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2021 국내답사 3차

# 남도역사기행 보성

“다함께 떠났노라 마침내 보았노라 이제야 알았노라”

사)인문연구원 동고송이 6월을 맞아 보성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갑니다. 한말호남의병장 안규홍의 파청승첩비와 독립운동가 나철의 기념관을 지나 송광사의 참선도량 대원사로 발길 누릅니다. 녹음 우거진 산양정 정자에 앉아 주련 한 구절을 읊조리면 보성만의 유장한 삶의 노래가 들릴 것이지요. 어서 오십시오.

**일시** 2021년 6월 5일(토) 오전 9시 출발 ~ 오후 5시 마침

**출발 장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앞  
(광주일고 內,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25)

**답사지** 전남 보성 일대

**일정** 광주-열선루터-김구선생은거지(쇠실마을)-안규홍파청승첩비-홍암나철기념관-점심(별교)-태백산맥기념관-서재필기념관-대원사-산양정(박관정 정자)-광주

**해설**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 원장)

**회비** 2만 원(농협 601152-52-134774)

**준비물** 마스크 착용, 편한 복장

**문의** 010-9810-1966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 남도역사기행 ③ 보성\_ 자료집을 펴내며.



1. 남도역사기행의 자료집은 일정한 리듬 속에 준비됩니다. 2개월 동안의 자료 수집과 탐독, 3주에 걸친 정리, 그리고 1주 동안의 교정과 편집이 진행됩니다. 혹 중간에 다른 바쁜 일이나 '사고!'라도 생기면 며칠 정도 잠은 생략입니다. '금제'와 '소화불량'일지라도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보며 언젠가는 '제대로' 소화시키겠다고 되뇌이면서...
2. “아뽀싸!” 그런데 이번 보성역사기행이 원래의 일정에서 2주 앞당겨졌습니다. 평소의 작업 리듬과 ‘물리적으로’ 달라진 환경에서 보성의 삼보향(의향·예향·다향)을 구성하는 인물과 사건, 그 시공간적 배치를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원래의 구상과는 너무도 달라진 자료집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예·회화, 보성소리 등 예향 보성의 예인들이 빠져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3. 부득이하게 이번 자료집은 실제 답사 현장 순서를 우선적으로 정리했고, 관련 내용들을 조금씩 보충했습니다. 애초의 구상에서 제외된 내용들은 참고문헌들 중에서 한번 읽어봄직한 것들을 추려 뽑아 별도의 ‘자료’ 형태로 편집하여 실었습니다.
4. 남도역사기행 자료집을 세 번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와 문제의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동안의 무지와 게으름이 크게,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5. 다음 8월의 남도역사기행은 ‘화순’입니다.

2021. 06. 02.

망출<sup>窓抽</sup> (졸렬함을 무릅쓰며)

편집자 박 전 일

# 목차

## 1. 삼보향, 보성의 지리·연혁·문화 개관 -/5

보성의 자연지리 / 연혁 / 역사문화 자원

## 2. 제1답사. 열선루 터\_ 정유재란기 조선수군재건의 현장 -/9

수군 재건 당시의 상황 / 이순신과 보성

## 3. 제2답사. 쇠실마을\_ 비석으로 다시 만난 김구와 박문용 -/15

김구와 쇠실마을의 인연 / 박문용, 의사박공기적비

## 4. 제3답사. 나철기념관\_ 한말 비밀결사운동과 대종교의 창시자, 나철 -/20

나철\_ 동양평오하, 자신회, 그리고 대종교 / 나철의 두 아들, 정련과 정문

## 5. 제4답사. 태백산맥기념관\_ 별교에서 찾는 『태백산맥』의 문학·역사 공간 -/25

별교의 역사 / 근현대사의 축소판, ‘별교’ / 소설의 중심축이 되는 공간들  
소설 속 좌익의 공간 / 소설 속 우익의 공간 / 그 외 소설 속 흥미로운 공간들  
『태백산맥』에 서린 또 다른 이야기들

## 6. 제5답사. 서재필기념관\_ 개화·독립·민주의 삶, 서재필 -/45

근대계몽운동의 선각자 / 서재필의 외가, 가내이씨의 시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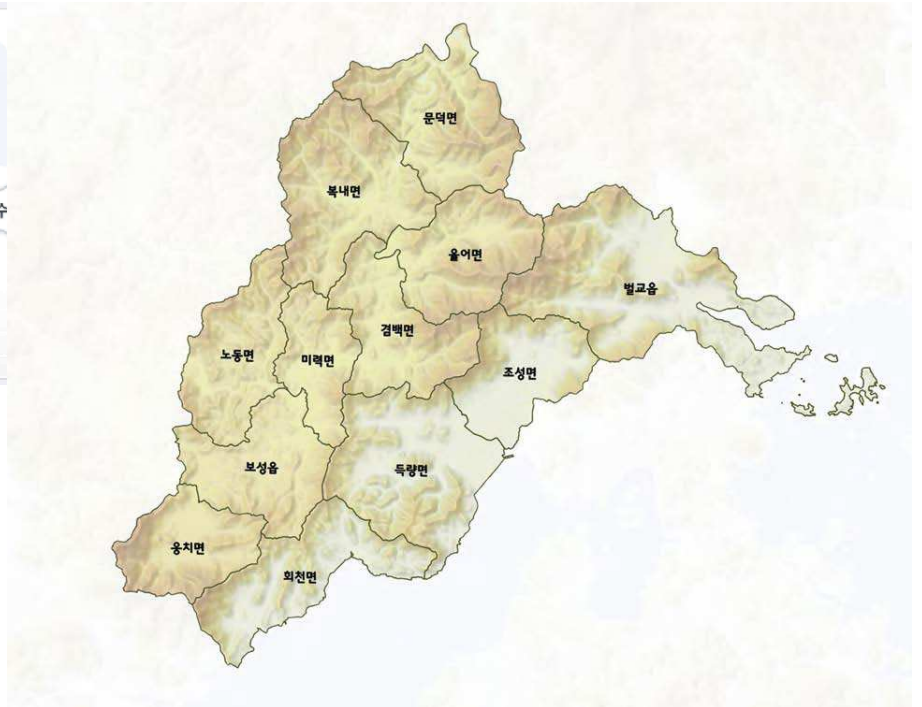
## 7. 제6답사. 천봉산 대원사\_ 봉소형국의 명당 대원사와 티베트박물관 -/48

## 8. 제7답사. 천봉산 산양정\_ 의향 보성의 뿌리, 죽천 박광전 -/52

## 9. [부록] 자료\_ 답사지 이외의 보성의 역사와 문화 -/55

미력면에 세워진 부조묘\_ 문익점 / 전라좌의병대장, 임계영  
안방준, 절의를 나라의 원기로 삼은 진유 / 최대성, 도망군관이 되어버린 모의장군  
영광정씨 가문의 한 많은 가족사 / 민족의 교사, 학산 윤윤기  
선율마다 조국애가 용솟음치는 민족음악가, 채동선  
보성의 사회주의 운동가들 / 김선우, 전남 빨치산의 총수

## 보성의 지리·연혁·문화 개관



### 1 보성의 자연지리

- (1) 위치    보성군은 **전라남도의 남동부**에 위치한다. 북동쪽으로 순천시, 북서쪽으로 화순군, 남서쪽으로 장흥군, 남동쪽으로 고흥군과 경계를 이룬다.
- (2) 지형    • 보성군은 전라남도에서도 고지대에 위치한다. 해안선에 면해있는 득량면, 조성면 일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 보성군에서도 고지대에 속하는 서쪽 일원은 응치면 제암산<sup>807m</sup>을 비롯해 사자산<sup>1667m</sup>, 일림산<sup>668m</sup> 등의 산악지대를 형성하였고, 북쪽과 동쪽 일원에도 **천봉산**<sup>608m</sup>, 존재산<sup>712m</sup>, 백이산<sup>582m</sup>, 제석산<sup>560m</sup> 등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 (3) 하천    • 보성군의 하천은 서쪽 고지대에 속한 사자산에서 흘러내린 **보성강**이 주류이고, 보성강은 응치면,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검백면을 거쳐 **주암호**로 유입된다.  
 • 보성군에서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회천면, 득량면, 조성면, 벌교읍 등의 지역에는 25개의 소하천(회천천, 송곡천, 조성천, 벌교천 등)이 흐르는데, 이들은 비교적 유로가 짧고 하류구간이 감조하천(感潮河川)을 이루면서 남해바다로 유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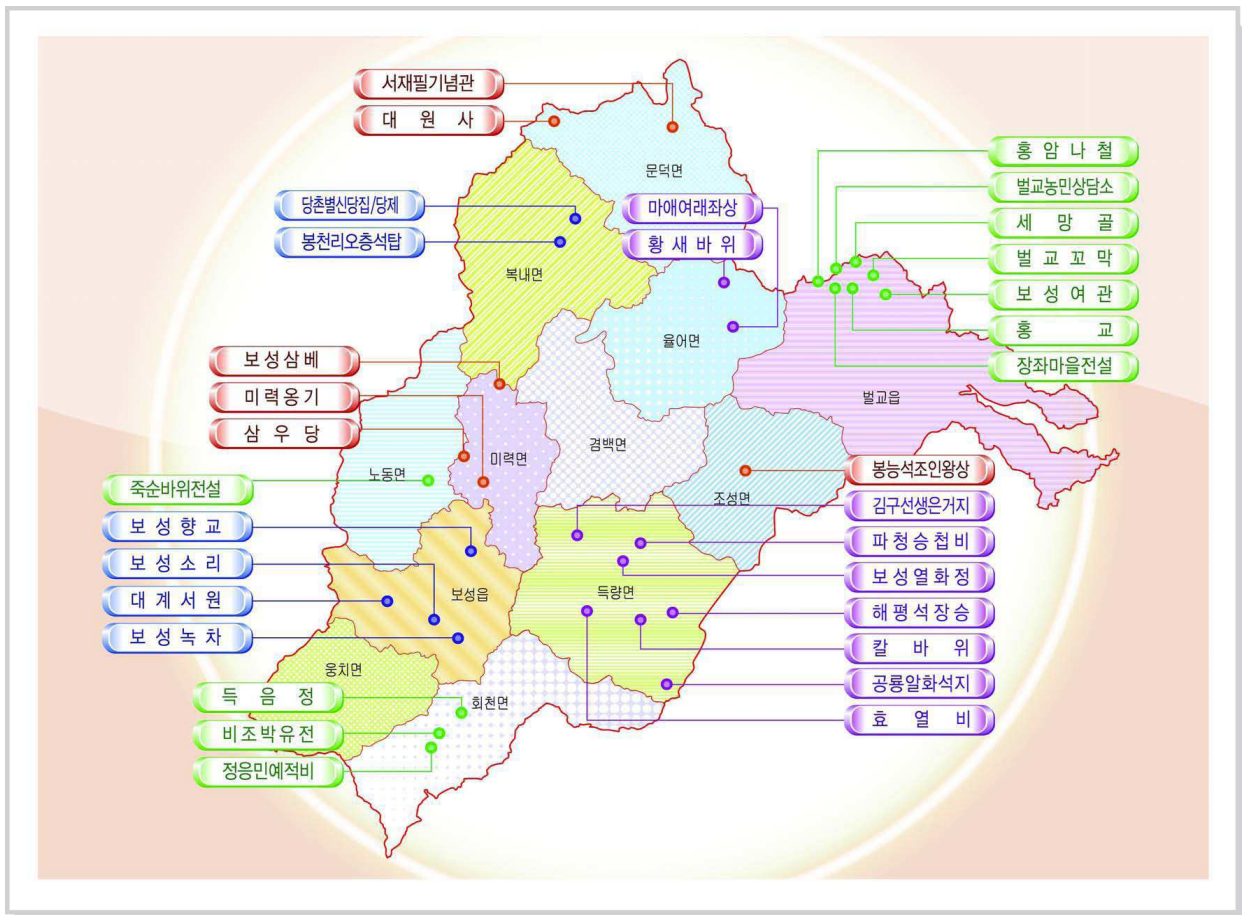
## 2 보성의 연혁

- 삼국시대 보성군은 북내면 일대가 마한의 불은국<sup>不雲國</sup> 또는 벽비리국<sup>辟卑離國</sup>으로 비정되기도 하며, 백제 때는 **복홀군**<sup>伏忽郡</sup>이 있었던 곳이다.
-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sup>757</sup>, 군현의 명칭을 모두 중국식으로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보성군**<sup>寶城郡</sup>이라 부르게 되었다.
- 고려시대
- 성종 14년<sup>995</sup>, 절도사제도를 도입하면서, **패주**<sup>貝州</sup>로 개칭하였고, 이때 **별호로서 산양**이라 부르게 되었다.
  - 현종 9년<sup>1018</sup>, 행정제도를 개편하면서 다시 보성군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 조선시대
- 태조 4년<sup>1395</sup>,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홍양현(고흥)의 치소를 보성군의 속현인 조양현(현 조성면)으로 옮겨 조양이 일시적으로 고흥에 속하게 되었다.
  - 태종 9년<sup>1409</sup>, 본군에 속해있던 남양·태강·도화·풍안의 4현이 홍양의 관할에 놓여지고, 조양현은 본군에 환속되었다.
  - 세종 12년<sup>1430</sup>, 한때 장흥도호부의 관할에 놓여 있다가 이후 순천도호부에 속하게 되었고, 고종 32년<sup>1895</sup>에는 나주부 관할이었다가 1896년 8월 광주부 관할에 놓이게 되었다.
  - 순종 2년<sup>1908</sup>, 10월 15일 **낙안군이 폐지**되고, 낙안군의 11개면 가운데 남하, 남상, 고상, 고하의 4개면이 고상면과 남면으로 합해져 본군에 편입 되었다.
- 일제강점기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인에 의해 행정제도 개편이 여러 차례 있었다. 주로 **순천시 낙안면의 일부와 장흥군의 일부가 보성군에 편입되어 별교면, 회천면, 응치면으로 개편**되었고, 1937년과 1941년에는 **별교면과 보성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다.
- 1914년 일제에 의한 대규모의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장흥군의 장동면 마흘, 울리의 일부와 부평면 금동리 일부, 순천군 동상면의 세곡리 일부, 동하면의 봉림리 일부, 고흥군 대서면의 남당리 일부와 동면의 하송리 일부, **장흥군의 회령면, 천포면과 응치면이 본군에 편입**되었다.
  - 1915년 고상면과 남면을 합하여 **별교면을 신설**
  - 1929년 4월 순천군 동초면의 연산, 봉림, 회정, 장양, 호동의 5개리를 별교면에 편입
  - 1932년 3월 **회령면과 천포면을 합하여 회천면으로 개칭**
  - 1937년 7월 1일 **별교면을 읍으로 승격**
  - 1941년 10월 15일 **보성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보성군은 2읍 10면 126리의 행정구역이 되었다.

대한민국

- 1973년 7월 1일 본군 문덕면 한천리가 승주군 송광면으로 편입된 대신 1983년 2월 15일 고흥군 동강면 장도리와 그 해역이 별교읍에 편입 1973년에는 고흥군 동강면 장도리 및 주변해역이 별교읍에 편입되었다.
- 1984년에 기공하고 1991년에 완공된 주암 다목적댐 공사로 인해 본군 문덕면의 8개리, 북내면이 7개리, 울어면의 2개리 일부 지역들이 수몰되었다.
- 2011년 현재, 보성군의 행정구역은 2읍 10면(보성읍, 별교읍, 문덕면, 북내면, 울어면, 노동면, 미력면, 겸백면, 조성면, 득량면, 응치면, 회천면), 법정리 126개, 행정리 316개, 자연마을 593개, 유인도 4개, 무인도 17개로 구성되어 있다.

**3 보성의 역사문화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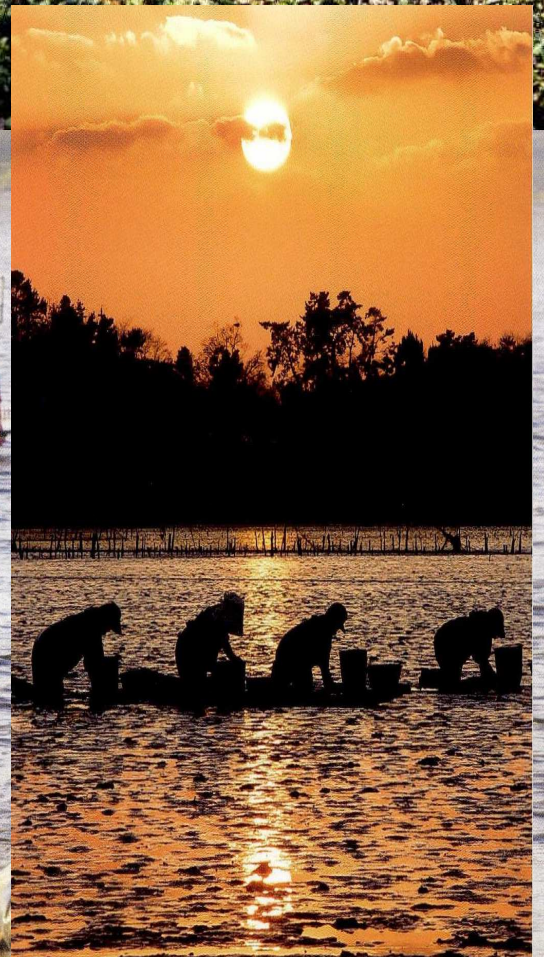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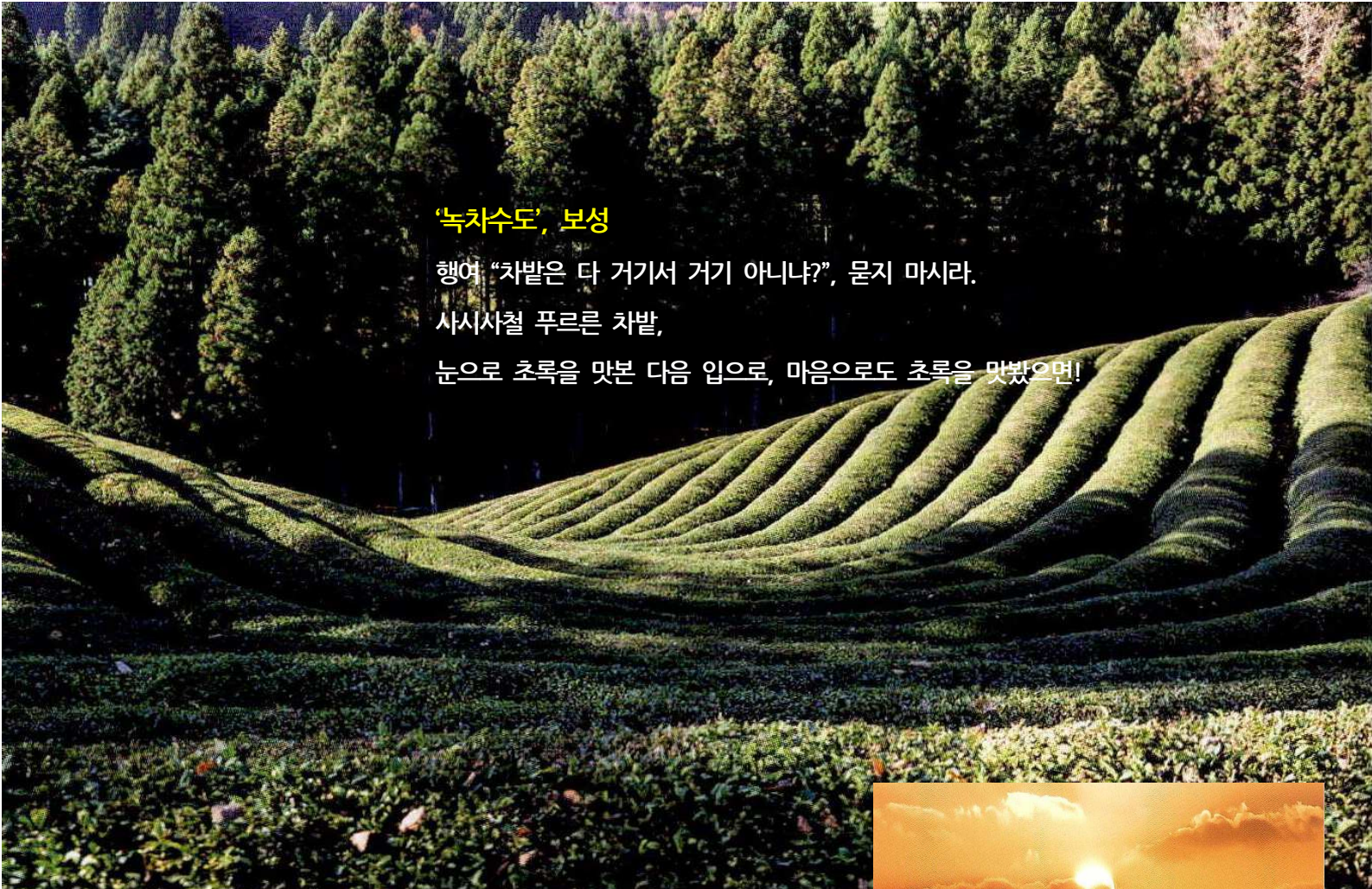


위 자료는 2012년 9월 보성군에서 펴낸 『보성군 스토리텔링 소재 발굴 용역보고서』에서 선정한 보성군의 주요 역사문화자원들을 읍면별로 표현한 것이다. 스스로 표방하는 ‘삼보향(의향·예향·다향)’이라는 정체성에 비춰 아직 제외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이 여전히 많다.



**‘녹차수도’, 보성**

행여 “차밭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묻지 마시라.  
사시사철 푸르른 차밭,  
눈으로 초록을 맛본 다음 입으로, 마음으로도 초록을 맛봤으면!



**‘꼬막의 고장’, 보성 별교**

별교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꼬막부터 맛볼 일이다.  
별교갯벌이 키워낸, ‘간간하고, 즐글하고 알큰하고 배릿하기까지 한’<sup>(태백산맥)</sup>  
해질녘 뺑배를 타고 귀환하는 어낙들의 행렬에 쫓겨진 꼬끝으로.





# 제1답사. 열선루 터



## 정유재란기 조선수군재건의 현장

### 1 수군 재건 당시의 상황

임란초기 이순신은 연전연승을 거듭하며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반면 1597년 정유재란은 임란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순신이 칠천량<sup>漆川梁</sup> 해전 대패의 비보를 접한 것은 이틀이 지난 1597년 7월 18일 새벽이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부분적인 타격이 아니라 궤멸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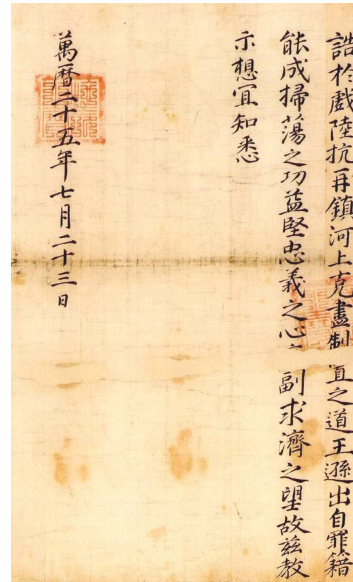
칠천량 해전에서의 패배는 당시의 전황<sup>戰況</sup>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남해상의 제해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일본의 전라도 침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전란 개시 이래 5년간 조선 수군과 의병들이 애써 지켜낸 전라도가 남원성이 함락됨으로써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칠천량 해전의 대패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도원수 권율과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해안 지방으로 가서 보고 듣고 난 뒤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자신의 눈으로 칠천량 해전의 상황을 보고자 백의종군 처지임에도 현장조사를 자청하여 아홉 명의 군관을 데리고 퍼붓는 빗속에서 행군을 강행했다. 삼가-단성-강정-곤양-노량진 등지의 경남 해안을 살피며 수군의 손실 정도와 전선의 상황을 확인했다.

그러던 8월 3일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로 복귀하라는 조정의 교서<sup>교서(敎書)가복수직교서(加復守職敎書)</sup>를 받았다. 이 교서는 1597년 7월 16일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이 크게 패하여 위기에 처하자 선조가 상중<sup>喪中</sup>의 몸으로 백의종군 하고 있던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이 교서는 칠천량 해전의 패배 소식이 전해지고 7월 23일 작성되어 연안 답사길에 나선 이순신에게는 열흘 후 진주에서 전달되었다. 그리고 8월 3일 이른 아침에 선전관 양호가 이 교서와 유서를 가지고 와서 이순신은 숙배<sup>肅拜</sup>를 한 뒤에 이를 받았다는 서장<sup>書狀</sup>을 올리고 곧 다시 길을 떠났다.

이제 통제사로서 삼도 수군을 수습하여 적의 공격을 막아야 할 막중한 임무가 다시 주어진 것이다. 삼도 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이순신은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순신의 계획은 수군 병력과 군량, 무기가 있는 곳을 먼저 파악하여 이를 수습하여 서진하고 있는 일본수군과의 해전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가까운 거리에서 10만 명의 일본군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력을 복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적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때에 그나마 보유한 배설의 12척 함선을 서둘러 무장시켜야 했다.

8월 6일 이순신이 옥과에 도착한 후 군관 송대립 등이 적정<sup>敵情</sup>을 탐지해 왔고, 다음날 새벽 일찍 순천 등지로 가서 적의 정세를 정찰해 왔다. 그리하여 이순신은 남원성 공격에 나서는 일본 육군과 수군을 피해 전라도 구례에서 낙안, 보성 방향으로 전진하였다.



가복수직교서. 기복<sup>起復</sup>이란 기복출사<sup>起復出仕</sup>의 준말로, 나라의 필요에 의하여 상제의 몸으로 상복을 벗고 벼슬자리에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한다.

## 2 이순신과 보성

### 1. 보성에서의 10일간

이순신이 보성에서 머문 10일은 조선순군재건의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 『난중일기』의 생생한 기록을 따라가며 보성에서의 10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본다.

정유년<sup>1597</sup> 음력 8월 9일, 일찍 출발하여 낙안<sup>別報</sup>에 이르니, 5리의 길에까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인사하였다. 백성들이 흠어져 달아난 까닭을 물으니, 모두들 말하기를, “병사<sup>이복남</sup>가 적이 임박해왔다고 전하자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까닭에 백성들도 도망하여 흠어졌다.”고 하였다. 관사에 이르니 적막하여 인기척도 없었다. 순천 부사 우치적과 김제군수 고보상 등이 와서 인사했다. 늦게 보성의 조양창<sup>보성 조성면 우천리 고내마을</sup>에 가서 김안도의 집에서 잤다.

10일 몸이 불편하여 그대로 김안도의 집에 유숙했다.

#### [조양창, 김안도의 집]

- 전라병사 이복남의 지시로 집과 관사를 태웠고 창고도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적이 요긴하게 사용할 식량과 무기 등을 모조리 없애버린 것이다. 이른바 청야작전<sup>淸野作戰</sup>이었다. 8월 9일 전라병사 이복남은 청야전의 일환으로 관청과 창고에 불을 질러 군량미와 무기 등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그 여파로 피란민들이 길을 메우고 있었다. 이순신은 그 사이에 군사를 모으고 관고를 뒤져 식량과 무기를 모아야 했다.
-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로 재부임 후 처음으로 군량을 확보한 곳이 조양창으로 옛 조양현성의 군량창고였다. 전라좌수영 내 고흥 남양현 산성과 조양창만 군창이 있었으니, 중요한 군량기지였다.
- 보성군 조성면 우천리에 고내<sup>庫內</sup>라는 마을이 있다. 마을 뒤 언덕에는 이순신이 정유재란 때 군량을 얻었다고 전하는 군량창고, 조양창의 옛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조양현성 동헌 터는 고내 마을 뒤편에 있었다. 동헌 터의 바로 동쪽 텃밭과 대나무 밭이 내야<sup>內衙</sup> 터이다.



(왼쪽부터) 조양창, 조양창 마을, 고내마을, 조양성터

11일 아침에 양산원<sup>(또는 양산현)</sup>의 집으로 옮겨서 유숙했다. 송희립과 최대성이 와서 만났다.

12일 계본을 등서했다. 그대로 유숙했다. 거제 현령<sup>안위</sup>과 발포 만호<sup>소계남</sup>가 와서 만났다.





양산원 가옥

13일 거제 현령과 발포 만호가 와서 인사하고 돌아갔다. 수사<sup>배설</sup>와 여러 장수 및 피란하여 나온 사람들이 유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이몽구가 오긴 했으나 만나지 않았다. 하동 현감<sup>신진</sup>을 통해 진주 정개산 성과 벽견산성은 병사가 스스로 외진을 파괴시켰다는 소식들 들으니 비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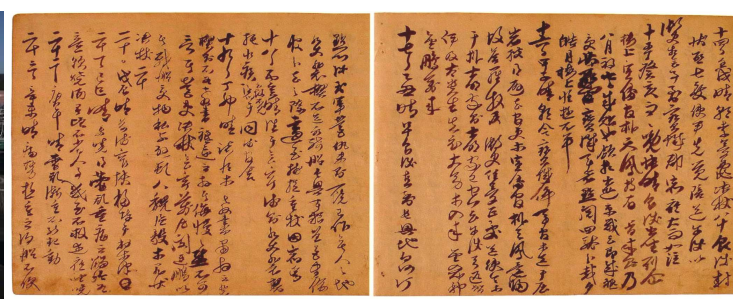
### [박곡 마을, 양산원의 집]

- 양산원은 참봉 양응덕의 아들이며 양팽손의 손자로 기묘명현의 후손이다. 양산원의 증손자 양우급은 전라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 이곳으로 군관 송희립과 최대성이 찾아왔다. 이들은 임란 초기 조선 수군이 연전연승을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로, 이들이 이순신의 막하로 찾아온 것은 전열의 재정비가 이루어진 과정을 시사한다. 송희립은 이순신의 군관으로 형제들과 함께 이순신 휘하에 들어가 핵심 참모로서 뛰어난 지략과 용맹을 발휘하였다. 송희립은 칠천량 해전에서 겨우 살아 돌아와 전라좌수영 쪽에 머물다가 통제사에 다시 기용된 이순신을 보성 땅에서 만나게 되었다. 군관 최대성은 1597년 2월, 수군통제사 이순신이 관직을 박탈당하고 그 자리에 원군이 들어왔을 때 최대성은 보성에 돌아온 다음, 독자적인 의병활동에 착수하여 모의장<sup>募義將</sup>의 기치를 세웠다.
- 이순신의 전령을 받고 보성군수와 전라좌수영의 오후 이몽구, 하동현감 신진, 거제현령 안위, 발포만호 소계남이 차례로 소집되었다.
- 이순신은 그동안의 상황을 조정에 보고하는 7통 장계를 보냈다. 장계의 내용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하동, 구례, 순천을 거쳐 보성에 오기까지 일본군의 침략으로 백성들의 피해와 병참활동을 한 내용을 보고하였을 것이다. 또 여러 명의 군관과 수령에게서 보고 받은 전황과 수습대책을 장계에 올렸을 것이다.
- 양산향의 집은 삼도수군통제사의 움직이는 통제영으로, 이순신은 옛 군관들을 만나 작전을 논의하며, 이들과 함께한 관민을 모을 수 있었고, 수군 재건을 위한 병참활동의 내용을 장계한 곳이었다.
- 현재 박곡마을에는 양산원의 집터지와 옛 정원인 오매정 석축, 연지가 남아 있다.

14일 아침에 이몽구에게 곤장 80대를 쳤다. 식후에 장계 7통을 봉하여 윤선각에게 주어 보냈다. 오후에 어사<sup>임몽경</sup>를 만날 일로 보성군에 가서 잤다. 밤에 큰비가 물 쏟아지듯 내렸다.

15일 비가 계속 오다가 늦게 꺾어졌다. 식후에 열선루에 나가 공무를 보니, 선전관 박천봉이 유지를 가지고 왔다. 그것은 8월 7일에 성첩한 것이었다. 영상<sup>유성룡</sup>은 경기 지방으로 나가 순행 중이라고 하니, 곧 바로 잘 받았다는 장계를 작성하였다. 보성의 군기를 검열하여 네 마리 말에 나누어 실었다. 저녁에 밝은 달 비치는 누대 위에서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다.

16일 아침에 보성 군수와 군관 등을 굴암으로 보내어 피난 간 관리들을 찾아내게 했다. 선전관 박천봉이 돌아가기에 그편에 나주 목사와 어사 임몽정에게 답장을 보냈다. 사령들을 박사명의 집에 보냈더니, 사명의 집은 이미 비었다고 했다. 오후에 궁장 지이와 태귀생, 선의, 대남 등이 들어왔다. 김희방과 김봉만도 왔다.



열선루 터지(좌)와 ‘금상유십이’ 장계(우)

[열선루]

- 어사 임몽정은 홍문관 교리로 선유어사의 칭호를 주어 칠천량 해전 전황을 알고자 비변사가 파견한 인물이다.
- 이순신은 열선루에서 선전관 박천봉이 가져온 선조 임금의 유지<sup>유旨</sup>를 받았다. 선조 임금의 유지는 8월 7일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선조 임금의 뜻은 ‘약세인 조선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의탁하여 싸우라.’는 것이었다. 선조는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했지만 그 규모가 너무 미약하여 수군을 폐지하고 육전에 종군하라는 유지를 내린 것이다.
- 이때 이순신은 보성에서 12척의 전선으로 수군을 재건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신에게는 전선 12척이 있습니다<sup>今臣戰船南有十二</sup>. 죽을힘을 다하여 항거해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수군을 전폐한다면 적들이 만 번 다행으로 여길 뿐 아니라 충청도를 거쳐 한강까지 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록 전선은 적지만 제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 이순신은 공무를 복원시키기 위해 보성군수와 군관 등을 소집하였다. 유진 장소에 이지·태귀생·선의·대남·김희방·김봉만 등이 이순신을 찾아와 합류하였다. 이들은 한산도 통제영에서 수군의 활과 화살 등을 만드는 장인이며, 흩어져 있던 옛 군관들로 보성에서 유진 중인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을 찾아 그 휘하에 들어갔으며, 이로 120명의 군사가 모집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 보성 열선루는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풍전동화에 놓인 조선을 구해내기 위해 조선 수군 통제영을 꾸린 역사 현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성에서 이순신은 조정의 명령서를 받고, 군기를 검열하는 등 공무를 수행하고, 유숙하는 장소로 열선루를 활용하였다. 열선루는 그 지리적 위치나 구조적 기능 때문에 이순신에 의해 군사 지휘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 열선루는 관청 정자로 조선 초에 건립되었다. 궁궐이나 관청에서 세운 누각이나 정자는 접대, 의례, 연회 등의 여러 행사를 거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열선루는 보성에서 건립된 누정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되었는데, 수령이 외부에서 온 손님을 접대하거나 또는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서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17일 일찍 아침 식사 후에 곧장 장흥 땅 백사정<sup>白沙汀</sup>에 갔다. 점심 후에 군영구미<sup>軍營仇米</sup>로 가니 온 경내가 무인지경이 되었다. 수사 배설은 내가 탈 배를 보내지 않았다. 장흥의 군량을 감관과 색리가 모두 훔쳐 갔는데 관리들이 나누어 가져갈 때 마침 가서 붙잡아다가 중한 장형을 내렸다. 그대로 유숙했다.

18일 회령포<sup>장흥 회진면 회진리</sup>에 갔더니, 경상 수사 배설이 배 밑미를 핑계 대므로 만나지 않았다. 회령포 관사에서 잤다.





(왼쪽부터) 군영구미터, 군학마을, 군학마을 노거수, 김명립의 비

- 백사정과 군영구미는 조선시대 당시 장흥땅에 속하였지만, 현재는 보성군 회천면에 속한다. 백사정은 회천면 벽교리 명교마을 앞 모래 둔덕과 물가이다. 전선을 정박할 수 있는 곳이다. 백사정은 목장성이 있었으며, 식수와 말먹이가 풍부하여 군사 조련에도 적절한 수군 수비처였다. 이곳에서 이순신이 휘하의 모든 군사를 도열했다. 군영구미는 현재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에 있는 장흥부의 관방유적이다. 봉수대, 망파장, 목장성, 객사, 동헌, 옥, 창고, 사직단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전일리 일대가 군대가 주둔한 군영이다. 군영구미에서도 군량이 있었다.
- 이순신이 이곳 군영구미로 향한 이유는 경상우수사 배설에게 전선 12척을 인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군영구미는 경상우수사 배설의 함대가 입항하기로 한 곳이다. 그러나 8월 17일 배설은 이순신의 지시를 어겼다. 육지에서는 남원성을 탈환한 일본군과 바다에서는 칠천량 해전에서 승리한 일본수군이 남해안을 넘어 서해안을 넘보며 수륙병진책을 펼치고 있을 때였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장흥의 군량 감관과 색리는 군량을 모두 도둑질해서 나눠 가지려던 참에 이순신이 당도하여 잡아다 호되게 곤장으로 다스렸다. 그곳에서 하룻밤 묵었다. 다음날 장흥 회령포로 들어갔다.

이처럼 칠천량 해전 패전 후 이순신이 8월 9일~18일까지 10일 동안 보성에 머문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순신이 보성으로 향한 가장 큰 이유는 명량<sup>鳴梁</sup>을 왜군의 서진을 막는 요충지로 인식했으며, 임란 이후 수군의 근거지였던 전라도에서만 다시 수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당장 전역의 재정비가 절박한 상황에서 보성지역이 임란 당시의 막하를 비롯한 관민의 재규합이 비교적 수월했으며, 궁극적으로 연해읍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여 수군복구의 기반으로 인식하였다.



## 2. 전라좌수영 관할 고적<sup>古蹟</sup>, 선소<sup>船所</sup>



임진왜란 시기 보성군은 해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591년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후 전쟁준비에 돌입하면서 보성은 5관<sup>官</sup>(순천·광양·낙안·홍양·보성)·5포<sup>浦</sup>(사도·방담·여도·녹도·발포) 중 한 곳으로 필요한 물자를 공급했을 뿐 아니라 수군의 한 축을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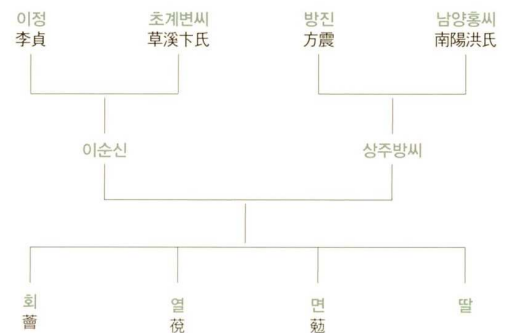
보성 수군이 편성되어 전라좌수영에 소속되어 임진왜란 초기에 큰 전과를 올린 보성 수군의 전선 및 병선 등의 단위기지인 선소<sup>船所</sup>는 보성읍으로부터 50리 거리인 현 보성군 득량면 비봉 2리 선소마을 일대이다. 지리적으로 뒤에 있는 오봉산에서 양쪽으로 산등성이가 쪽 뺀어 나와 이 마을을 마치 두 손으로 안은 것처럼 되어 있고 앞은 득량만의 연안바다인데, 바닷가가 급경사를 이루어 마을의 서편 쪽으로 바닷물이 깊숙이 들어와 저수지처럼 되어 있어 선박들이 조류에 관계없이 항상 드나들 수 있어 관방의 요충지였다고 전한다.

## 3. 이순신의 장인, 보성군수 방진

이순신이 21세 되던 해, 1565년 상주방씨 방진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의 장인 방진은 선조 초 보성군수를 지냈다. 방진의 사위가 된 이순신은 장인의 정신적 격려와 경제적 후원 속에서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처가에서 지내면서 무예를 연마하였다. 장인 방진과 장모 남양홍씨가 세상을 떠나자, 후손이 없는 처갓집<sup>현재 아산 이 충무공 고택</sup>은 이순신의 본가가 되었다. 그리고 장인, 장모 묘소도 이순신이 외손봉사<sup>外孫奉祀</sup>하게 되었다.

장인 아래에서 이순신은 장인의 병서를 두루 읽었을 뿐만 아니라, 궁술·검술 등 무예를 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예를 익혀 무과에 합격한 이순신은 임진왜란을 맞아서도 장인 방진의 무예전법과 정신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장인 방진은 이순신에게 정신적 지도자로 스승이었다.

보성에는 이순신 리더십 교육관인 '방진관'이 개관되었다. 보성 군수의 관사를 이순신 역사·교육·문화공간으로 새로 단장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하였다. 그동안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해 온 군수 관사를 이순신의 장인이자 전 보성 군수 '방진'의 이름을 딴 '방진관'으로 개관하여, 이를 계기로 보성군의 이순신 유적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제2답사, 쇠실마을

2

### 비석으로 다시 만난 김구와 박문용

#### 1 김구와 쇠실마을의 인연

대종교를 중광하고 황해도 구월산에서 단식 순교한 홍암 나철의 최후를 지켰던 6인 수행제자 중 으뜸 상교<sup>尙敎</sup>가 김두봉이었다. 1948년 4월 남북협상 당시 김두봉이 김구를 만나 넋지시 건넸을지 모른다. “재작년 여름 주석께서 남부지방을 순회하시며 보성을 가셨다는데, 제가 한때 모셨던 홍암이 보성 태생이십니다.” 그렇다면 김구, “백연! 그렇소이까? 홍암을 모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소만… 내가 파옥하고 망명하면서 보성에서 신세를 졌으니, 나도 홍암과 인연이 없지 않구려. 그런데 우사! 송재 박사님 외가가 보성이라지요?”(이종범)

#### 도망자가 되어 남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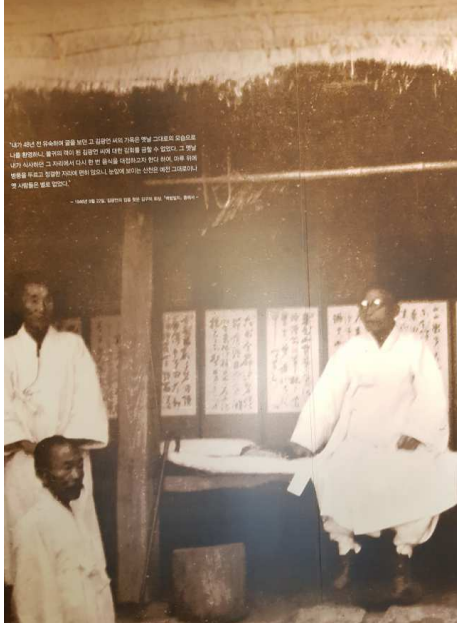
김창암은 1876년 7월 황해도 해주 팔봉산 자락 가난한 집 외아들로 태어났다. 인조반정 일등공신이었다가 효종의 역적이 되며 빨빨이 흩어졌던 김자점의 방계 후손이었다. ‘한울님 모시고 도를 행하며 존비귀천을 없애자’는 교리가 좋아 동학을 공부하면서 ‘장수’로 개명하였다. 많은 평민과 산포수를 끌어들이며 ‘애기 접주’ 소리를 들었다. 1893년 18살 때였다. 이듬해 가을에는 충청도 보은을 찾아 최시형에게서 ‘접주’ 첩지를 받았다. 동학농민이 재차 기포할 당시 ‘팔봉산 접주’ 김창수도 선봉장이 되어 해주성을 점령하였다가 일본군이 출병하자 구월산으로 퇴각하였다. 이때 동학당을 토벌하고자 ‘의려<sup>義旅</sup>’를 일으킨 안진사와 ‘불가침’ 맹약을 맺었다. 안중근이 바로 안진사의 장남이다.

김창수는 황해도 안악군에서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일본 육군중위 스치다[土田讓亮]를 처단하였다. 1896년 3월 9일 ‘치하포 의거’였다. 인천감리영에 수감되어 해주감옥을 거쳐 인천감옥에 갇혔다가 1898년 3월 탈옥하였다. 서울·수원·야산을 지나 강경포구를 넘어 전라도로 접어들었다. 김제와 광주를 지나 함평으로 들어갔다. 다시 목포를 거쳐 해남과 고금도 등지의 바닷가를 돌았다. 다시 뭍으로 나와 강진·장흥을 거쳐 보성에 들어섰다.

‘안동 김씨가 많이 사는 마을’을 물었다. 일가를 찾았던 것이다. 기러기재[雁峙]에서 들어가는 득량면 쇠실마을이었다. 마을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첫날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다른 집에 묵었다가 이튿날에 후한 집이 어디냐를 물어서 김광언씨를 찾았다.”



(왼쪽부터) 쇠실마을 김광언의 집, 김구 은거 추모비, 쇠실마을 백범김구은거기념관



위에서부터 쇠실마을 우물, 김광언의 집 마루에 앉은 김구, 시 '이별난'

주인은 도망자임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사랑채에 머물게 하였다. 쇠실마을은 깊숙하여 기러기재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마을 뒷산 구릉에 오르면 동구가 훤히 보인다. 낮에는 구릉에 올라가 동구를 살피고, 저녁에는 사람들과 계곡에서 목욕하고 사랑채에서 덕담하며 글을 가르치고 『동국사기』도 읽어주었다. 사람들은 김창수를 따랐고 서로 허물없었다. 훗날 마을 노인의 전언, “우리 할아버지는 백범과 교우하느라 넣어놓은 보리가 비가 와서 떠내려가는데도 내버려 뒀서 할머니가 성화를 부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40여 일, 꿈같은 여름휴가였다. 떠날 때가 되었다. 동갑이던 선씨는 바느질 솜씨가 좋은 부인이 만든 필낭<sup>筆囊</sup>을 선물하였다. 어떤 일꾼은 따라나서려고 하였다. “다음에 자리 잡고 부를 테니 기다려라, 내가 큰 욕을 얻어먹는다.” 아쉬움은 컸다. 정표로 남긴 『동국사기』 속장에 「이별이 어렵구나<sup>離別難</sup>」을 풀었다.

이별이 어려워라 이별이 어려워라	離別難離別難
이별하는 곳에 일가들이 모였다고.	離別莊處花樹開
꽃나무 가지를 꺾어 돌로 나누고서	花樹一枝分絕半
반은 종가에 남겨두고 하나는 지니고 갑니다.	半留宗家半行帶
지금 천지에 살면서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生今天地逢何時
이 강산 버리고 떠나기도 역시 어렵군요.	捨此江山去亦難
네 사람이 같이 놀다 한 달이 넘었으니,	四員同遊至餘月
석별이 주저되지만 이제 가야 한다오.	齟齬惜別而去也

그리고 적었다. “후일 보거들랑 혹여 제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를 남겨 정을 드러내고 멀리멀리 떠나갑니다. 종인<sup>宗人</sup> 김두호.”

김창수는 쇠실마을에서 김두호였다. 이후 화순 동북과 담양 대덕, 승주를 거쳐 하동 쌍계사에서 유숙하고, 임실과 금산 등지로 빠져나가 계룡산 감사에서 어떤 사람을 따라 마곡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1년 가깝게 원종<sup>元宗</sup>이란 범명으로 살았다. 1899년 가을 환속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1900년 겨울 부친상을 치렀다.

부친상을 마치면서 기독교에 입문하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사범강습도 받았다. 황해도 신교육운동의 기수가 되어 서울을 왕래하며 비밀결사 신민회에도 가담하였다. 그러던 중 1910년 12월 안중근의 동갑내기 사촌 동생 안명근이 독립자금을 모으다가 체포된 ‘안약사건’에 연루되어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대문 감옥에서 백정 같은 비천한 사람이 깨어나는 날을 소망한다는 뜻으로 백정범부<sup>白丁凡夫</sup>를 줄인 ‘백범’으로 자호하고 김구로 개명하였다.

### 해방 이후 다시 찾은 남도

백범은 광복되고 석 달 지나 조국 땅을 다시 밟았다. 1946년 9월 13일 백범은 명동성당에서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비상국민회의 의장 홍진을 영결한 이튿날, 삼남 시찰에 나섰다. 부산·김해·진해·창원·마산·진주·통영 등 경상도 지역을 약 1주일 동안 방문하고, 다시 배를 타고 여수로 건너와서 순천·보성·강진·목포·무안·함평·나주·광주를 지나 김제·전주·익산·군산·강경을 거쳐 상경하였다. 환영은 뜨거웠고, 강연회는 인산인해였다. 백범에게는 자신을 살피주었던 소중한 인연, 호국과 충의의 현장이었다.

이 여정에서 방문한 곳이 바로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쇠실마을이었다.

“보성군 득량면 득량리는 48년 전 망명할 때 수삼 개월이나 머물렀던 곳이다. 그곳은 나의 동족들이 일군 동족부락인데, 동족들은 물론이고 인근 지방 동포들의 환영 역시 성황을 이루었다. 입구의 도로를 수리하고 솔문을 세웠으며, 환영 나온 남녀 동포들이 도열하여 나를 맞이하는지라 차를 멈추고 걸어서 동네로 들어갔다. 내가 48년 전 유숙하며 글을 보던 고 김광언 씨에 대한 감회를 금할 수 없었다. 그 옛날 내가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음식을 대접하고자 한다고 하여, 마루 위에 병풍을 두르고 정결한 자리에 편히 앉으니, 눈앞에 보이는 산천은 예전 그대로이나 옛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모인 동포들을 향하여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으니, 동네 여자 노인 한 분이 대답했다. ‘제가 일곱 살 때 선생님 공부하시던 좌석에서 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외 동족 중 한 사람인 김판남 씨가 나와서, 48년 전 나의 필적이 완전한 책 한 권을 내보이며 옛일이 어제 같다고 말했다. 전에 나와 알던 이는 이 두 사람뿐이었다.”

쇠실마을 사람들은 마을 입구의 도로를 수리하고 솔문[松門]을 세워 백범을 환영하였는데, 당시 국민학교 2학년생으로 백범을 만났던 쇠실마을의 김경희는 집집마다 형편 되는 대로 쌀을 걷어 음식을 장만했다고 회고하였다. 백범은 그렇게 마련된 음식을 병풍이 둘러친 마루에서 대접받았는데, 그곳은 1898년에 그가 식사하던 자리였다. 백범이 머물렀던 집의 주인 김광언은 해방 직전 고인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 중에 오직 두 명이 백범을 기억하였다. 7살 때 백범이 글공부하던 자리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다는 여성, 그리고 김판남이었다. 김판남은 백범이 김광언의 집을 떠나면서 김두호라는 이름으로 서명하고, 속표지에 한시를 써서 선물했던 『동국사기』를 보여주었다. 단군부터 조선 순조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백범의 한문 필사본 『동국사기』의 표지 뒷면 첫 장에는 ‘戊辰 三月初八日 抄’라 기록되어 있다. 김구는 주민들에게 휘호를 써 주면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그중에 또 잊지 못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다름 아닌 48년 전 동갑되는 선씨 한 사람이 있어, 나와 격의 없이 지내다가 그 동네를 떠날 때, 그 부인의 손으로 만든 필낭 하나를 작별 기념으로 내게 주었던 일이 눈에 선하다. 그 선씨에 대해서 물으니 ‘선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부인과 가족은 보성을 부근에 거주합니다. 그 노부인 역시 옛일을 잊지 않고 지금 가시는 보성읍으로 마중 나온다 합니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날 그 동네를 떠나 보성읍에 도달하니, 과연 그 부인이 전 가족을 거느리고 마중 나온 광경은 참으로 감격에 넘치었다 만나는 자리에서 나이를 물으니 나와 역시 동갑이라, 과거사를 잠깐 토론하고 헤어지는 예를 마쳤다.”

1898년 작별 선물로 백범에게 필낭을 주었던 선계근 씨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부인 안씨와 아들을 보성읍에서 만나 인삼으로 답례하였다. 이후 백범의 호남 방문은 강진~목포~무안~함평으로 이어졌다.



## 2 박문용, 의사박공기적비

1979년 2월 28일 전남일보에 “기미 독립만세 60년 만에 밝혀진 ‘제2의 독립선언’ 주역”이란 제목으로 한 독립운동가를 대서특필하였다. 기사에서 “묘소엔 비 하나 없어”, “부인 임여사 후손과 쓸쓸한 오막살이” “기록마저 빠져 있는 역사의 인물” 등이 눈에 띈다. 생질인 조철환 옹이 정부기록보존소를 찾고 『동아일보』 등을 들추며 공적을 밝혀내자 전남일보 서영진 기자가 썼다.

박문용<sup>1882~1927</sup>. 그는 1882년 1월 15일 보성군 겸백면 사곡리에서 태어났다. 이황의 문인으로 광해군의 사부를 거치고 현감으로 은퇴하여 노구에 임진의병을 일으킨 박광전의 11대손이었다. 가난했지만 가학의 전통은 깊었다. 동국대학교 전신으로 1906년 5월 개교한 명진학교에 다니던 그해 겨울 기말시험에서 우등생으로 뽑혔고, 졸업 후 평안도를 거쳐 봉천·하얼빈·블라디보스토크를 돌아 연길의 한명의숙에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1911년 고향에 돌아왔다. 그이 나이 30살이었다. 그때까지 소식을 몰라 행방불명되었다고 생각한 고향사람들은 일본어·중국어·영어·러시아어까지 능통한지라 놀랍고 반가웠다.

그는 재능과 학식으로 인하여 고흥군에 있는 거금보통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러다가 2년 후인 1913년에는 보성군 복내면장에 취임하였다. 2년 정도 고흥군 소록도 넘어 거금보통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보성군 복내면 면장을 거쳐 겸백면 면장으로 옮겼다. 당시 신식 면장은 수령과 향청의 명령을 마을에 단순 전달하는 정도의 이전의 면임<sup>面任</sup>과 달리 세금 징수, 면 재정 운용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였다. 1913년 12월 그간 면에서 보관하던 327원 6전의 공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떠났다. 그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박환이란 가명으로 활동하였다.

### 불변단, 그리고 제2독립선언

박환, 독립운동에 투신한 박문용의 또 다른 이름이다. 3·1운동 직후인 4월 18일 천진에서 ‘불변단<sup>不變團</sup>’이 결성되었다. “변치 말고 독립에 목숨을 바치자”는 이 단체에 참여한 박환은 부단장 겸 의사부장을 맡았다. 그리고 그해 10월 30일 박은식이 기초하고 발표한 「대한민족대표독립선언서」(일명 ‘제2독립선언’)에 서명하였다. 그 선언서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 우리는 3월 1일의 초지를 중히 하고 인도와 정의를 위하여 한 번 더 은인하고 한 번 더 평화로운 만세소리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국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임을 일본과 몇 세계만국의 전에 선언하노라.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우리 민족을 통치하난 자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니 우리 민족은 영원히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지니라. ... 일본의 근



(좌)1979.2.28 전남일보 기사, (우)비석이 되어 만난 김구와 박문용

래에 다소 자가의 비를 회오하여 조선통치의 개혁을 운운하나 이는 우리 민족이 중시할 바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요구는 하나요, 오직 하나이니 즉 완전코 절대한 독립이 있을 뿐이로다...

공약 삼장

일. 질서를 엄수하여 난폭한 행동이 무할 것.

일. 부득이 자위의 행동에 출하더라도 부인, 소아 및 노병자에게는 절대로 해를 가하지 말 것.

일. 전국민 일치로 독립의 요구를 강하게 표하되 최후의 1인까지 할 것.”

## 임시정부 전라도 특파원

1920년 1월, 박문용은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임시정부 전라도 방면의 특파원이 되었다. 그는 국내로 들어와 경성부 정동 11번지에 잠입하였다. 충청도 청양 출신 한우석을 만나 임시정부 교통부 차장 김철을 비롯하여 이동휘·이동녕·이시영·안창호 등 임정 요인을 소개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조선독립군사령부'와 같은 결사대를 조직하고 행동하자며 의기투합하였다. 한우석은 민중식의 호서의명의 소모관으로 1906년 홍주성을 점령하는데 앞장섰다. 전라도 태인에서 일어난 최익현 의병을 실질적으로 이끌다가 대마도에 유폐되어 돌아온 임병찬이 결성한 독립의군부에도 참여했다. 또한 울산 출신 박상진을 도와 광복회에서 활동하다가 압록강 건너 망명하여 당시는 무역에 종사하던 중이었다.

박문용은 상해에 갔다가 돌아온 한우석과 함께 광주로 가서 일곡동 사는 부자 노진영을 직접 만나 군자금 6천원을 요구하여 그 중 1천원을 받아내서 압록강 너머에서 육혈포와 실탄 등을 사들이며 동지를 끌어들이었다. 이들은 한국 시찰을 위하여 방한하는 미국 의원단이 경성역에 도착하는 8월 24일을 D-Day로 잡았다. 이때 미국 의원단 환영식장에서 정무총감 이하 이완용·송병준 같은 친일파 거물을 응징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던 중 8월 22일 한우석이 '결사대'를 같이 하기로 약속한 김상옥에게 무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압록강에서 반입된 무기의 향방을 추적하던 일경에게 체포되면서 그만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박문용과 함께 체포된 사람은 김동순, 한우석, 이돈구, 조만식, 명제세, 김태원 등이었다.

박문용은 8년 전의 공금횡령까지 병합하여 7년 징역형을 받았다. 8년 만에 만나 '쫓기는 남편과의 불안한 생활 속에서도 행복해하던' 부인은 임신 중이었다. 그는 사식도 거절하면서 저항하였고, 고문과 구타 등으로 몸이 망가졌다. 1924년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내 운명하였다. 1927년 7월 20일, 향년 46세였다.

한편 한우석은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의병에 가담한 사실이 탄로나 형이 가중되어 모두 19년 6개월을 복역하였다. 그런데 한우석에게 무기를 받으려다 날째게 몸을 피하고 중국으로 들어가 김원봉의 의열단에 들어갔던 김상옥은 1923년 1월 일본제국의회에 참석하기 위한 동경으로 가는 조선총독을 암살하기 위하여 서울에 왔다가 여의치 않자 종로경찰서를 폭파하고 열흘 동안 일경 수백 명과 홀로 시가전을 벌이다가 마지막 한 발 총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거뒀다. 향년 34세였다.

46세의 일생을 파란만장하게 보낸 그는 검백변 사곡리 초암산 기슭에 묻혔다. 1980년 8월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자 1982년 봄 보성군에서 성금을 모으고 권용현의 비문을 받아 '의사박공기적비(義士朴公記蹟碑)'를 세웠다. 권용현은 합천군 초계면 출신으로 부안 계화도에서 강학하던 척사유림 전우에게 배웠는데 죽곡정사를 자주 방문한 인연이 있었다. 1990년 '백범은거추모비'가 세워지자 당시 조철환 옹은 감동하였다. "생전에 백범을 모시더니 이제 다시 비석으로 만나시게 되었구나!"

# 제3답사, 나철기념관



## 한말 비밀결사운동과 대종교의 창시자, 나철

### 1 나철\_ 동양평화, 자신회, 그리고 대종교

나철<sup>1863~1916</sup>은 독립운동가이자 대종교 창시자다. 1863년 12월 2일 나용집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전라남도 보성 출신으로 별교읍 칠동리 금곡마을에 생가가 있다. 초명은 나두영, 과거 급제 후에 나인영으로 고쳤다. 자는 문경이며 호는 경진, 대종교를 중광할 때 지혜와 홍익의 뜻을 담아 철<sup>鐵</sup>로 개명하고, 호를 홍암<sup>弘巖</sup>이라 고쳤다. 본관은 나주, 정묘호란으로 형제 맹약을 맺은 후금에 춘신사<sup>春信使</sup>로 갔다가 온갖 곤욕을 치렀던 나덕헌<sup>1573~1640</sup>의 후예였다. 언제 나주에서 별교<sup>당시 낙안</sup>으로 옮겼는데 분명하지 않다.

어려서는 왕석보 문하에서 수학했다. 당시 구례는 왕석보<sup>1816~1868</sup>와 세 아들 사각<sup>1836~1896</sup>·사천<sup>1842~1906</sup>·사찬<sup>1846~1912</sup>을 중심으로 크게 문풍이 일어나며 ‘시향<sup>詩鄉</sup>’으로 이름이 높았다. 황현<sup>1855~1910</sup>도 구례로 이주하기 훨씬 전, 열 살 무렵부터 왕씨가에서 배웠으니 서로 만났을 수도 있다.

#### 김윤식과의 만남, 배움

20살 즈음, 1884~1885년경에 한양으로 올라가 김윤식<sup>1835~1922</sup>을 만났다. 김윤식은 일찍이 박규수에게 배우며 외국과의 통상 교섭의 필요성에 눈을 떴고, 영선사를 이끌고 중국을 다녀와서 동양의 도<sup>道</sup>를 지키고 서양의 기<sup>器</sup>를 받아들이는 동도서기론<sup>東道西器論</sup>을 신봉하였던 정치가요 문장가였다. 남산에서 화전놀이 시회를 열었을 때 찾아갔는데, <신연>이란 제목으로 시를 지어 낭송했다고 한다. “호남 바닷가 별교에서 글을 익히고 / 한강 북쪽의 한양으로 운양대감을 찾아왔소 / 한양에는 주옥같은 누각이 셀 수 없이 많으나 / 내가 머무를 곳은 아직 찾지 못했네.” 이 시로 김윤식의 마음을 사로잡아 문인이 되어 서울의 명문대가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김윤식이 민비의 배척으로 충청도 당진 면천으로 유배 가자 아예 그의 계동 저택에서 살았다.

1891년 10월 식년문과에 급제한 후로 승정원 가주서, 병조사정, 승문원 부정자 등을 거쳤다. 1895년 6월 징세서장으로 되었지만 일본군과 낭인이 민비를 시해한 을미사변 직후 사임하였다. 1897년 3월 부친상을 당하고 별교로 내려와 시묘하였다. 그런 중에 김윤식의 제주도 종신유배형 소식을 들었다. 곧장 제주에 가서 스승을 모셨다. 1901년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스승의 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 동양평화론과 도일 활동

나인영은 스승 김윤식에게 배우며 구미열강이나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특히 김윤식으로부터 만국공법에 입각한 균세외교론을 배웠다. 이를 바탕으로 나인영은 모두 4차례에 걸쳐



독립외교활동을 추진하였다. 첫 번째 도일은 강진 출신의 오기호와 해남 출신의 양한묵, 그리고 김제 출신으로 구례에서 황현과 교류했던 이기 등이 합세했다.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기 바로 직전이었다. 그는 일본 지식인들에게 ‘동양 평화를 위해 한·일·청 3국이 친선동맹을 맺고 서로 주권을 존중하자’는 의견서를 제시했다. 반응이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사는 황궁 앞에서 3일간 단식투쟁을 했다. 그때 일본이 한국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나철 일행은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온다. 품안에 단도 두 자루를 품고서였다. 매국노들을 모두 제거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결심에 따라 단도를 구입했던 것이다. 서울에 당도해 숙소로 가고 있을 때 한 백발노인이 나타나 책 2권을 그에게 주었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삼일신고』와 『신사기』이다.

두 번째 도일은 1905년 8월 러일전쟁 이후 미국 포츠머스에서 종전협상을 시작하였을 때였다. 나인영은 오기호·윤주찬·이기와 같이 우리 대표를 미국으로 파견할 것을 주장하였다. 강진 출신으로 단성현감을 지낸 김형석이 토지를 전당잡혀 마련한 여비로 직접 미국으로 가고자 했으나 일본이 비자를 내주지 않아 일본 방문에 만족해야 했다. 이때 양한묵이 동행하였다. 해남 출신으로 능주 세무관을 지냈는데, 일본에서 손병희와 같이 활동한 이력이 있어 일본사정에 밝았다. 훗날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옥중 순국하였다.

세 번째 도일은 1906년 10월에 이루어졌는데 일본 국회의 시정방침을 파악하고자 도일했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와 대립관계에 있던 오카모토, 도야마 등을 만나 협조를 구하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귀국하는 길에 그는 폭탄이 장치된 선물상자를 구입, 이완용·박제순·이지용·권중현·이근택을 을사오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죽이려 했으나 또다시 실패하고 만다.

네 번째 도일은 1908년 11월에 이루어졌으나 국치 이후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가 추구했던 동양평화론은 한중일 삼국이 힘을 합쳐 서양의 침략을 격퇴해야만 동양 3국의 강토를 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앞장서 전파했던 것으로, 그는 동양평화론을 실현하기 위해 네 차례나 일본을 왕래하면서 일본의 지식인·관료들과 접촉했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한국침략 의도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한편 나인영의 국내활동은 주로 학회와 계몽단체를 통해 전개되었다. 1904년 6월 일제가 황무지개간권을 요구하자 이기, 홍필주 등과 신소소청을 개설하여 황무지개간권을 반대하는 상소운동을 전개했다. 고종황제와 정부대신, 주한 각국공사관, 이토 히로부미와 오쿠마 시게노부 등에게도 성토문이나 호소문을 발송했다.

## 자신회 결성과 을사오적의 처단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나인영은 외교적인 방법에 의한 독립의 유지와 동양평화론의 한계를 절감했다. 무엇보다 정부 고위관료들에게 격분하여 매국의 장본인만큼은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매국노의 처단은 이미 결행된 바 있었다. 1906년 2월 기산도와 구완희 등이 군부대신을 지낸 이근택을 난자하여 중상을 입혔다. 기산도는, “5적을 살해하려는 사람이 어찌 나 혼자이겠느냐?”라고 말하며 매국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대변했다.

기산도의 거사가 잇힐 무렵, 1907년 2월 나인영은 오기호 등 호남의 우국지사들을 중심으로 자신회<sup>自新會</sup>를 결성하고 ‘을사오적’ 처단에 나섰다. 자신회의 지도부는 나인영과 오기호, 윤주찬 등이 맡았으며, 재정은 이용태, 김인식, 민형식, 이광수 등이 담당했다. 담양 창평의 이광수는 서재필의 이모부 이최선의 손자였고,

임실의 김인식은 주사였다. 그리고 을사5적을 비롯한 현 내각의 정부대신들을 처단할 행동대는 강상원, 김동필, 박대하, 이흥래 등 의병계열 인사들이 맡았다.

자신회는 약 200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기가 자신회의 취지서와 자헌장을, 나인영이 애국가와 동맹서, 참간장을 작성했다. 윤주찬과 이광수는 한국정부와 통감부, 헌병사령부, 각국 영사관에 보낼 공함과 내외국인에 보낼 포고문 등을 작성하여 동맹서와 참간장을 영호남 일대에 배포했다. 나인영이 작성한 동맹서에는 “이번 거사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2천만 민족의 원한을 갚는 것”임을 표방했다.

자신회는 처단해야 할 각 대신별로 3명 1조의 결사대 6개조를 편성했다. 몇 차례 연기 끝에 1907년 3월 25일에 거사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군부대신 권중현에게 부상을 입혔을 뿐 모두 실패했다. 권중현을 저격한 강상원이 체포된 후 일경은 연루자의 색출에 혈안이 되었다. 그러자 나인영·오기호 등은 스스로 주모자임을 밝히고 행동대는 죄가 없으니 모두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주도 인물들은 대부분 전라도 출신들이었다. 나인영 등은 연루자 30명과 함께 재판관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나인영(낙안)·오기호(강진)·이기(구례)·윤주찬(강진)·이광수(담양)·이승대(담양)·최동식(순천)·서정희(광주)·이완수(담양)·차정오(담양)·이승당(담양)은 전남, 김인식(남원)·강상원(금산)·황문숙(진산)·황성주(금산)·이경진(진산)·이종학(금산)·최종오(진산) 등은 전북 출신이었다. 이들은 5~10년 유배형을 선고받아 진도·지도 등지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1907년 12월 순종의 특사로 석방되었다.

## 대종교 창시

1907년 말 순종의 특사로 해배된 나인영은 새로운 독립방략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한편, 한동안 선도(仙道)에 빠져들며 번득하였다. “국조 단군은 민족의 뿌리이니 한민족이 단군의 자손임을 알아야 한다.” “단군 사상으로 겨레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1909년 1월 15일(음), 자신회의 동지들과 재동 지금의 조계종 안국선원에서 ‘단군대황조신위(檀君大皇祖神位)’를 모시고 제천의식을 거행하고 ‘단군교’를 공포했다. 당시 참석자는 오기호, 이기, 유근, 김인식, 정훈모, 김춘식, 최전, 김윤식 등 수십 명이였다. 대종교에서는 이날을 ‘중광절(重光節)’로 기념하고 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단군을 다루지 않았다. 또한 그때까지 존재한 『구삼국사』의 ‘동명왕 사실’까지 황당하다며 생략하였다. 그러나 일연의 『삼국유사』는 달랐다.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고 하니 요와 같은 때였다. …조선의 유민들이 나뉘어 70여 국으로 되었으니 모두 땅은 사방 100리였다.” 원의 침략과 간섭으로 휘청하던 시절, 일연의 파장은 컸다. 자주성과 고유성을 지켜내자는 의식 전환의 지침과 같았다. 14세기 국난 끝에 창업한 신앙조가 국호를 조선으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세종 치세 민족문화 황금기 또한 중국과는 다른 풍토 언어, 하늘에 대한 자각을 자양 삼았다.

국망의 세월, 단군교는 나라를 망해가지만 사람의 마땅한 길 도마저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국망도존(國亡道存)’을 제창하였다. 또한 ‘한 사람의 마음은 하늘 아래 천하 마음’이라는 ‘천인동심(天人同心)’을 표방하였다. 즉 땅을 잃더라도 하늘까지 빼앗길 수 없다! 우리의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사람답게 살자! 우리의 하늘을 처음 열었던 단군을 섬기자! 단군교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1910년 8월 교명을 ‘대종교(大宗教)’로 고쳤다. 한얼[大猷]을 밝히는 종교임을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10월 3일(음력)을 ‘단군 신조가 하강하고 나라를 처음 세운 날[檀君神祖下降及建極日]’로 선포하였다.

대종교의 교세는 날로 달로 번창해갔다. 대종사인 나철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강연을 하는 등 교

세 확장에 열정을 쏟았기 때문이었다. 나철은 한동안 강화도와 평양 등 단군의 성지를 순례하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거쳐 길림성 화룡현 청파호(靑波湖)에 본당을 세웠다. 어느덧 수십 곳에 학교가 들어서고 입교자는 십여 만에 이르렀다. “북간도 삼도구(三道溝)에 들어가 고기와 술 담배를 끊고 밤과 새벽에 몸을 깨끗이 닦으며 정성껏 도를 실천하니 세상 티끌이 말끔히 사라지고 남의 병을 치료하여 신비한 효험을 많이 보았다. 원근에서 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십여 만에 이르렀다고 한다.” 본국에서 교세를 확장하리라 생각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1915년 봄이었다.

당황한 일제는 대종교를 종교단체로 보지 않고 독립운동단체로 규정하게 된다. 1915년 종교통제안을 공포하고 대종교를 불법화시켰다. 심한 감시와 탄압으로 교단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나철은 1916년 8월 상교 김두봉을 비롯한 시봉자 6명을 대동하고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 들어가 수행을 시작한다. 구월산은 대종교의 성지다. 8월 14일, 사당 앞 언덕에 올라 북으로는 백두산, 남으로 선조의 묘소를 향해 참배한 뒤 ‘오늘 3시부터 3일 동안 단식수도하니 누구라도 문을 열지 말라’고 문에다 써 붙이고 수도에 들어갔다. 16일 새벽, 인기척이 없어 문을 뜯어내고 들어가니, 죽음의 이유를 밝힌 유서를 남기고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는 스스로 호흡을 멈추는 폐식법으로 세상을 떴다. ‘목숨 바치는 세 가지 이유’ 「순명삼조<sup>殉命三條</sup>」 ‘세상 떠나는 노래’ 「이세가<sup>離世歌</sup>」 ‘거듭 빛 노래’ 「중광가<sup>重光歌</sup>」를 남겼다. 1916년 8월 15일(음), 향년 54세. 나철의 유해는 유언에 따라 화룡현 청파호에 안장되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다.

## 대종교의 유산

나철 사후 대종교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교단을 만주로 옮겨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다. 대표적인 예가 청산리대첩인데, 교단 아래에 ‘중광단’을 결성한데 이어 3·1운동 이후엔 이를 확대 개편해 북로군정서를 설치하여 대첩을 이뤄낸 것이다.

대종교를 빛낸 인물로는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장도빈, 신규식,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 이시영, 이범석, 신성모, 이동녕, 김좌진, 홍범도, 조완구, 조성환, 정관, 이흥수, 안호상, 이상룡, 김두중, 이상설, 김동삼, 김승학, 안희제, 채동선, 홍명희, 안재홍, 유동열, 서상일, 서일, 박찬익 등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쟁쟁한 인물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대종교는 민족정신의 요람이며 독립운동의 활로였고 민족정신을 배양하는 신앙결사였던 것이다.



(하)홍암 나철추모관 내·외부, (우상)홍암나철선생유적비



## 2 나철의 두 아들, 정련과 정문

나정련은 나철의 장남으로, 1909년 대종교 교주인 아버지를 따라 입교하여 최초의 신자가 되었으며, 1914년 중국 간도의 연길현 의란구로 이주하여 전교에 힘썼다. 구룡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어 민족교육에 이바지하는 한편, 북로군정서 기밀참모로서 군자금 조달 및 군량미 보급과 의병 모집에도 헌신했다. 1922년에는 밀산현 당벽진으로 이주한 이후 20여 년 동안 대종교 교세확장에 진력했고, 1934년 총본사를 동경성으로 옮긴 이후 1937년부터는 발해고궁유지에 천진전<sup>天眞殿</sup>, 단군의 영정을 모시는 집을 건립하여 교세확장에 더욱 힘썼다.

1942년 이후 만주지역에서 대종교를 중심으로 한민족정신과 민족문화 선양운동을 크게 일으켜 국내의 민족주의 지도자들과도 긴밀한 연락을 유지했으며, 1942년 11월 대종교 탄압이 거세게 일면서 교주 윤세복 이하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일본경찰에 체포되었으니 이것이 곧 임오교변<sup>壬午教變</sup>이다. 액하현 감옥에 구금된 지 9개월 만에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한 채 1943년 8월 18일 현지에서 순국했다. 1968년 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이 수여된 후 1991년에 다시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나정문은 나철의 차남이자 정련의 아우이다. 선린상업학교를 졸업한 뒤 성진척식은행에서 근무했으며, 대종교의 참교<sup>參教</sup>와 지교<sup>知教</sup>로 활약하다가 1914년 가족을 따라 중국 간도로 이주하여 상교<sup>商教</sup>로서 포교에 힘썼다. 1942년 11월 임오교변 시 대종교 지도자들이 일제히 체포되었을 때 함께 구금되어 일경의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15개월 뒤 1944년 2월에 액하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출감했으나 3일 만에 순국했다. 1968년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수여된 후 1991년에 다시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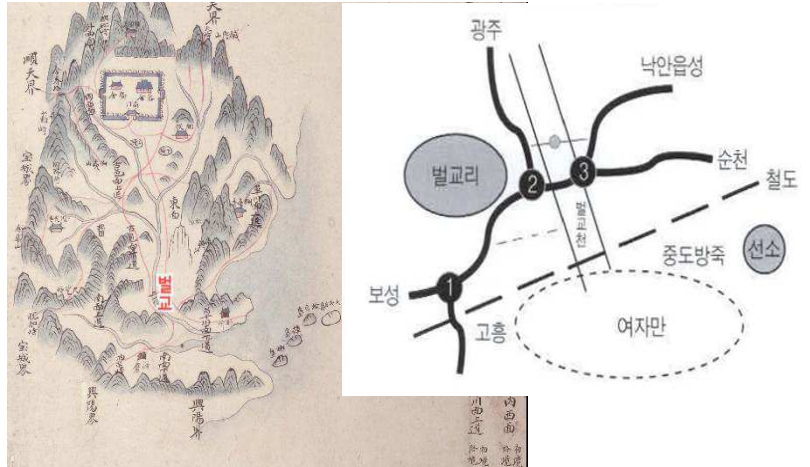
# 제4답사, 태백산맥기념관



## 별교에서 찾는 「태백산맥」의 문학·역사 공간

### 1 별교의 역사

내[심재모]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별교’라는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순천이야 많이 들어봤지만 별교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별교, 한자로 뜻을 알지 않고 소리모만 들을 때는 얼마나 이상한 이름입니까. (《태백산맥》 3권, 223쪽)



(좌) 『해동지도』낙안군, (우) 1930년대 도로망 체계

별교는 한 마디로 일인<sup>日人</sup>에 의해 구성, 개발된 읍이었다. 그전 까지만 해도 별교는 낙안 고을을 떠받치고 있는 낙안 벌의 끝에 꼬리처럼 매달려 있던 갯가 빈촌에 불과했다. 그런데 일인들이 전라남도 내륙지방의 수탈을 목적으로 별교를 집중 개발시킨 것이었다. (1권, 140쪽)

별교는 낙안군의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포구였다. 조선 초기에는 낙안포, 후기에는 단교포<sup>斷橋浦</sup>로 불렸으며 조세를 보관하던 해창<sup>海倉</sup>이 존재했었다. 또한 1895년 수군제도와 선소가 폐지되기까지 낙안군의 수군과 전선들이 모여 있던 수군기지로 ‘낙안군 선소(船所)’ 또는 ‘낙안군 전선소’라고도 불렸다. 조선후기 오늘날 전남 동부지역에는 순천도호부, 낙안군, 보성군, 홍양현, 광양현, 구례현 등 6개의 독립된 행정구역이 있었고, 낙안은 홍양<sup>洪陽</sup>·구례·광양보다 큰 고을로 수륙의 산물이 풍부한 군수관<sup>郡守官</sup>이었다.

낙안군은 1908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폐군되는데, 이는 항일의병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것에 대한 보복성 만행이었다. 전남 동남부 지역의 교통의 요지이자 해륙산물의 집산지인 낙안 별교포에서 독자적인 지역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한 일제의 지역말살 정책은 낙안군의 행정력과 업무를 순천과 보성으로 분산시킴으로서 항일의 대가를 보복하겠다는 술책이었다.

이렇듯 일제에 의해 몇 천 년을 이어 살아온 고을을 빼앗긴 낙안군민들의 반일감정은 고조되었고 역설적 이기도 별교는 일제에 의해 성장하게 된다.

오래고 먼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바깥의 갯가가 아니라 안쪽의 들판이었을 것이다. ... 왕조시대의 관청인 동헌이 낙안에 있음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었다. (8권, 277쪽)

‘바깥의 갯가’는 별교를, ‘안쪽의 들판’은 낙안을 의미하며 왕조시대의 관청 역시 낙안에 있었으며 봉건시대의 중심지를 의미한다. 역사시대 동안 유지되어온 낙안과 별교와의 공간적 위상관계는 일제에 의해 무너

지게 된다. 일제라는 외부 세력에 의해 공간의 중심이 낙안에서 별교로 이동하게 되고, 중심성은 봉건적 권력에서 식민지적 자본으로 대체되었다. 행정구역의 변화와 함께 근대 교통의 성장은 별교와 낙안의 지역 구조를 변화시켰으며 지배세력의 대체를 가져왔다. 과거 봉건시대의 중심지인 낙안은 쇠퇴한 반면, 일제에 의한 근대화로 지역의 중심성이 별교로 이동하게 되었다.

일인들이 전라남도 내륙지방의 수탈을 목적으로 별교를 집중 개발시킨 것이었다. 별교 포구의 끝 선수머리에서 배를 띄우면 순천만을 가로질러 여수까지는 반나절이면 족했고, 목포에서 부산에 이르는 긴 뱃길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목포가 나주평야의 쌀을 실어내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항구였다면, 별교는 보성군과 화순군을 포함한 내륙과 직결되는 포구였던 것이다. 그리고 별교는 고흥반도와 순천 보성을 잇는 삼거리 역할을 담당한 교통의 요충이기도 했다. 철교 아래 선착장에는 밀물을 타고 들어온 일인들의 통통배가 득시글거렸고 상주하는 일인들도 같은 규모의 읍에 비해 훨씬 많았다. 그만큼 왜색이 짙었고 읍 단위에 어울리지 않게 주재소 아닌 경찰서가 세워져 있었다. 읍내는 자연스럽게 상업이 터를 잡게 되었고, 돈의 활기를 쫓아 유입인구가 늘어났다.(1권, 139-140쪽)

이렇듯 일제는 별교를 전남 동남부 지역의 중심포구로 개발해, 내륙과 해안지역의 물자를 집중시켜 유출할 수 있는 최적지로 삼았다. 교통 여건의 개선으로 별교장은 전남의 3대 시장으로 성장했고, 1930년대 별교는 합자회사나 주식회사가 30여 곳에 이르렀는데, 대부분이 일본인 회사였다. 조선식산은행 별교지점, 금융조합, 호남은행 별교지점과 같은 금융업도 발달했다. 단적인 예로 별교금융조합은 1919년에 설립되어 별교면, 조성면, 순천군 외서면 등 주변지역을 관할하였다.

그러나 별교의 이러한 성장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문제, 불합리한 경제구조로 인한 농민 문제, 그리고 중도방축이나 남선철도 부설 같은 대규모 공사로 노동자 문제까지 사회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일제의 상업적 자본의 침투로 농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고 절대빈곤의 상태로 내몰리게 되었다. 특히 경지면적이 넓은 전남지방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토지를 사들여 대지주로 변신하여 소작료 수탈과 고리대를 이용해 토지소유를 확장해나갔다. 또한 일본인들은 별교와 조성의 평야지대에도 진출하였으며 조성면 득량만 일대에 자본력을 바탕으로 간척사업을 통해 농토를 확장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몰락했다.

단적인 예로, 1938년 별교에서 경영별 농업호수는 자작농 154호, 자작 겸 소작농 417호, 소작농 2,158호로 소작농이 다수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식민지 농업인구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20년대 초반소작인 조직화의 진전, 소작쟁의의 빈발이라는 형태로 가속화되었다. 1922년~1923년초 전남 곳곳에서 소작농의 권익옹호를 목표로 한 농민단체가 출현하였으며 전남에서 최초로 농민단체가 등장한 곳이 별교이다.

1923년 7월 1일,『조선일보』에 별교 소작인들의 참상이라는 기사는 소작인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구소작인인 모를 심으면 신소작인이 뽑고 신소작인이 심으면 구소작인이 시비를 끊이지 않는데 경찰은 지주의 권리만 옹호할 뿐이다’는 기사를 통해 당시 소작인들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소설에서도 봉건시대부터 지속되어온 지주들과의 관계, 일제시대 이중적 수탈로 인한 소작인들의 생활과 의식개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작쟁의에 관한 내용이 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설 속에서는 서민영을 통해 토지문제의 모순은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분출되었으며 여순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민족분단을 야기하는 내재적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일본식 개화가 빨랐던 것에 비례해 농민의 저항도 심해 3·1운동도 별교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소작쟁의도 별교에서 먼저 일어났다.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이 별교를 중심으로 활발했던 것도 별교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해방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실제로 별교는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이 심각했으며 사회주의 사상에 동조하는 소작인들이 많았다. 별교의 지역적 특성은 지리·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사실들은 작가의 경험과 기억에 의해 소설 속에서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다.

## 2 근현대사의 축소판, '별교'

소설 『태백산맥』은 여순사건부터 6.25 전쟁 직후 휴전조인까지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작품의 내용적 구성은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제1부(제1,2,3권) 〈한의 모닥불〉은 여순사건 직후 보성과 별교에서 벌어진 갈등양상을 다루고 있으며 제2부(제4,5권) 〈민중의 불꽃〉은 입산한 염상진의 야산대가 울어올 해방구로 장악하는 과정과 토지를 둘러싼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제3부(제6,7권) 〈분단과 전쟁〉은 1949년 10월-1950년 12월까지 6.25전쟁 발발 직전의 사회적 상황과 전쟁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제4부(제8,9,10권) 〈전쟁과 분단〉은 1950년 12월부터 1953년 7월 휴전협정 직후의 시기와 지리산에 은거한 빨치산들의 투쟁을 그리고 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48년 여순사건 직후부터 1953년 휴전까지 시기이며, 공간적으로는 별교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만주까지 확대된다. 작품의 표면적인 시간적 배경은 여순사건 직후부터 1953년 6.25 전쟁 직후까지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구한말에서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의 시기까지의 역사를 연속선상에서 밀도 있게 서술하고 있다. 공간적 배경은 6.25전쟁이후 한반도, 만주 지역, 지리산으로 확장되지만 모든 사건은 별교라는 공간으로 귀결된다.

별교라는 곳은 여러 가지로 이상하고 특이한 데가 많았다. 규모나 인구가 군청소재지인 보성보다 배 이상인 것부터 시작해서 농토를 중심으로 한 고읍들과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포구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서로 다른 모습은 전형적인 농촌과 개화된 도시가 가깝게 붙어있는 것 같았다. 보통의 읍 단위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하고 규모가 큰 상점들, 솔공장, 철공소, 제재소, 주정공장, 정미소와 같은 시설들, 금융조합, 우체국, 공설시장, 사진관 등의 규모가 그 어떤 도시와 다르게 넓고 소방서까지 갖추어져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5권, 95-96쪽)

별교는 고읍들과 낙안벌의 농토를 기반으로 한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포구의 이중구조를 지닌, 전형적인 농촌과 개화된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의 경제구조는 소설의 주요무대로서 별교의 적합성을 드러내고 있다. 고읍들과 낙안벌이라는 전통적인 농촌지역은 '토지'를 둘러싼 지주-소작인의 갈등과 기존의 토지제도의 모순을 그려내기에 적합하다. 지주와 소작인이 한 공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계급간 갈등이

더 심하고 직접적일 수밖에 없었다. 벌교 지역의 특수성은 토지를 둘러싼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에 적합했으며 이는 해방 후 남한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지주양반덜이 양심적으로 허야 민제라. 농지개혁한다는 말이 나뉠스롱부터 지주덜이 뿔구녕으로 실금실금 무신 짓거리덜 허는지 서방님도 아시제라?” 김범우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농지개혁에 대비해서 지주들은 자기네 농토를 가난한 친척들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서 은폐시키거나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 그건 우선적으로 분양양도권을 가진 작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었다. 지주의 법적 토지가 줄어드는 만큼 작인들은 분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참말로 순사가 들었다 허면 몽당이찜질당할 소리제만 서방님 앞이니께 허는디, 사람덜이 위째서 공산당 허는지 아시오? 나라에서는 농지개혁한다고 말대포만 평평 싸질렀지 차일피일 밀치기만 허지, 지주는 지주대로 고런 짓거리 허지, 가난하고 무식헌 것덜이 믿고 의지힐 디 읍는 판에 빨갱이 사상되면 지주 다 쳐웁애고 그 전답 노놉준다는디 공산당 안 힐 사람이 워디 있겠는가요. 못힐 말로 나라가 공산당 맹글고, 지주덜이 빨갱이 맹근당께요.(1권, 144쪽)

김범우의 작인 문서방의 입을 통해 지주들의 행태와 소작인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정현동이 소작인들의 소작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서운상에게 토지를 팔아넘기고 소작인들은 서운상에게 소작을 얻으려 하지만 거절당하게 된다. 생존이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서운상의 태도는 소작인들의 반감을 갖게 했고 소작인 강동기는 그를 삼으로 내리친다. 강동기는 입산하여 빨치산이 되고, 다른 소작인들은 오히려 강동기를 부러워하게 되고 좌익 사상에 동조하게 된다. 토지제도의 모순으로 인한 계급 간의 갈등 심화는 소작인들을 절대빈곤의 상태로 내몰았으며, 좌익사상이 쉽게 침투하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 3 소설의 중심축이 되는 공간들



## 1. 중도방죽과 중도들판, 소작인들의 한<sup>恨</sup>의 장소

소설의 주요 주제라 할 수 있는 ‘땅’에 대한 열망은 소설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토지는 소작인들의 생존과 관련된 주요 문제로 계급과 이념 갈등의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별교의 주요 농토는 고읍들, 낙안별 그리고 일제시대 간척된 중도들판이다. 간척사업 시 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는데 중도방죽은 중도들판 간척을 위해 건설한 독으로, 일본인 중도(나카시마, 中島)의 이름을 따 붙여진 이름이다. 중도방죽은 현재는 별교읍 장양리에 속해 있으며 이 지역 사람들은 뚝방 20리길이라 부른다. 지금은 뺨이 차올라서 방죽의 높이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두 길 높이였다고 한다.

중도라는 사람은 당시 실존 인물이고 철다리 옆에 있는 중도방죽 마을에 살았다. 원래 재산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엄청난 간척사업을 벌일 만큼 큰 재산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의 이름을 내걸어 추진된 간척사업의 뒤에는 그 유명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돈줄이 닿아 있었다. 자신의 땅을 갖는 것이 소원인 소작인들이 일제로 공출해가기 위한 식량기지 건설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아픈 역사적 사실을 작가는 중도방죽 공사에 참여한 소작인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위따 말도 마씨요, 고것이 워디 사람이 할 일이었간디라. 죽지 못허 사는 가난하고 가난헌 개돼지 같은 목심덜이 목구녕에 풀칠허자고 되들어 개돼지맹키로 천대받아감서 헌일이제라. 옛적부텀 산몬덩이에 성쌓는 것을 질로 심든 부역으로 쳤는디, 고것이 지아무리 심든다허도 워찌 뺨밭에다 방죽쌓는 일에 비하겄소. 동덩이 지고 깔끄막 올라댕기기도 심이 들제만, 장판지고 허벽지꺼정 폭폭 빠지는 뺨밭에서 돌집지는 고초에 비하겄소? ... 그 에렵고 피 맺히는 일얼 가난하고 배끓은 조선사람덜 손으로 헸다는 것만 확실허제. 근디 기맥히게도 방죽을 다 쌓고본께 배불리는 늠덜언 일본놈들 이었다 그것ियो. 하여튼지간에 저 방죽에 쌓인 돌덩이 하나하나, 흙 한 삽, 한 삽이 다 가난헌 조선 사람덜 핏방울이고 한 덩어린다, 정작 배불린 것은 일본놈덜이었으께, 방죽 짠 사람덜 속이 워짤겄소 ..더 기맥힌 꼴은 해방이 되어갓고 벌어지지 않았겄소. 동척 재산인 저 논얼 불허할 적에는 응당 소작인헌테 해야만 옳은 순서고 순린다, 미군정청늠덜언 소작인 제계놓고 지주똥덜하고 짹짹궁이 되어부렀단 말이요. 중도들판 소작인덜 거지반 방죽쌓는 일얼헸던 사람덜이고, 또 그런 집안 자석덜인디, 모다 그 꼴을 당허고 말었으니 누가 이눔에 시상얼 믿고 따르겄소. 니나 읍이 가심에 쌓이느니 미움이고원한이제.(4권 290~291쪽)

가난한 조선의 소작인들이 피땀 흘려가며 쌓은 중도방죽과 들판을 일본인 지주의 차지가 되었고 해방 후에도 토지는 그들의 것이 아닌 조선인 지주들에게 돌아간다. 가난한 이들의 피와 땀이 모여 이루어진 중도들판을 바라보는 소작인들의 심정은 허탈함과 억울함이었을 것이고 가슴에 한으로 쌓이게 된다. 소작인의 한, 그리고 민족의 한이 되는 것이다. 일제시대이나 해방이 된 후에도 그들은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한 소작인일 뿐이었다. 일본인 지주가 조선인 지주로 변했을 뿐 가난과 착취는 지속되었다. 지주들은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하고 소작인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러한 소작인들의 한은 결국 소작쟁의를 일으키게 되고 빨치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2. 이념 갈등으로 인한 민족의 아픔: 소화다리

소설 속에는 별교천 양안의 봉림리와 별교 읍내를 연결하는 다리가 셋으로 묘사된다. 맨 위쪽이 흥교, 두 번째가 소화다리, 마지막이 철교이다. 소화다리의 원래 명칭은 부용교<sup>芙蓉橋</sup>인데 일제 강점기 소화 6년인 1931년에 건립된 다리로 소화다리라 불린다. 소설 속에서 소화다리는 여순사건 이후 별교를 장악한 좌익세





력들이 지주, 유지들을 비롯한 우익세력들을 처형한 장소이다. 그 처참한 장면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소화다리 아래 갯물예고 갯바닥예고 시체가 질펀히  
니 널렸는디, 아이고메 인자 징혀서 더 못 보겼구만  
이라. 재미가 오진 싸까쓰도 똑같은 거 두 번씩 보문

질리는 법인디, 사람찍이는거 날이 날마동 보자니께 환장 허겼구만요. 그리고, 그 사람덜이 가난하고 배 곡  
는 사람덜 편이랑께 나쁠 것은 읊는디, 사람도 지각각 죄도 지각각이라고 사람마동 진 죄가 달볼 것인디 위  
째서 마구잡이로 찍이기만 허는지, 날이 갈수록 그 사람덜이 무서짐스로 겁이 살살 난당께요.(1권 61쪽)

예전의 소화다리는 좁고 낡아서 사람만 이용하고 자동차는 그 옆의 새로운 다리로 통행할 수 있다. 일제  
시대 소화다리 건립 당시에는 철제 난간으로 이루어져있었는데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에 필요한 철을 공출해  
가면서 난간을 뜯어갔다. 여순사건 당시에도 난간이 복구가 되지 않아 학살 장소로 이용이 된 것이다. 이 다  
리가 소위 여순반란사건의 회오리로부터 6·25로 이어진 우리 민족의 비극을 고스란히 겪어낸 소화다리이다.  
실제로 반란군이 별교에 들어온 지 2~3일 사이에 백여 명의 우익인사들이 처참하게 학살되었다. 이러한 상  
황은 반란이 진압된 후에 부용교, 소화다리에서 고발자와 처단자의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재연되었다.  
이와 같은 ‘피의 고발극’은 「손가락총」에 의해 생사가 엇갈렸다. 반란군이나 진압군이나 그들의 협조자에게  
색출 대상자를 지적케 함으로써 그 손가락 끝에 지적되기만 하면 다 총살시켰다.

2006년 11월 3일, 이곳에서 죽어간 원혼들을 달래는 진혼제가 열렸다.

### 3. 이념의 대립: 남·북국민학교

세 사람은 아름답리 플라타나스에 하나씩 묶여졌다. 그리고 수건으로 눈이 가려졌다. 운동장은 싸늘한 침  
묵에 덮혀 있었다. 어느 나무에선가 매미가 울어댔다. 세 사람을 향해 아홉 사람이 총을 겨누었다... “발  
사!”.. 총소리들이 운동장의 침묵을 흔들었고 세 사람의 목이 폭 꺾이면서 몸뚱이도 처져내렸다. 사람들이  
말없이 교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큰 물결이 흐르듯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박수를 쳤던 열기가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다.(7권 62-63쪽)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인공세력이 별교를 지배하면서 남국민학교에서 인민재판을 실시하는 장면이다. 별  
교 읍내에 위치한 학교로 소설 속에서는 이지숙과 손승호가 근무했던 곳이다. 남국민학교는 계엄군의 열병  
식, 인민재판과 조선인민해방군 환영대회(7권), 별교·보성 좌익척결위원회 결성(4권), 보도연맹가입자 관련  
연설(6권), 정전 반대 국민대회(9권) 등 좌우의 세력들의 관련 행사가 이루어지던 장소이다. 소설 속에서 별  
교 읍민들은 특정 이념을 지지하지 않아도 동원되었으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반동’이나 ‘부역자’로 몰리기도  
한다.

별교 남국민학교는 1909년 3월에 설립된 사립 유신학교가 전신으로 1917년 4월 14일 별교공립보통학교,  
1938년 4월 1일 별교남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다가 광복이후 별교남국민학교로 현재는 별교초등학교이다. 일  
제 강점기부터 일인들 자녀와 별교읍내 시가지 중심부에 살던 부유한 자녀들이 다닌 학교였다. 과거에는 목  
조 2층의 순 일본식 교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로 새로 지어졌다. 별교남국민학교 건너

편에 별교 북국민학교가 있었으며 소설 속에서는 남국민학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여순사건 직후 좌익세력들에 의한 인민재판(1권), 군경의 별교 수복 후 좌익가족 색출 (2권), 반공교육(10권) 등이 북국민학교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북국민학교는 1970년 학구개편으로 폐교되어 남국민학교에 병합되고, 별교중학교에서 별교여자중학교가 분리 신설되면서 현재는 별교여자중학교로 바뀌었다.

#### 4. 분단 극복과 민족의 화해: 별교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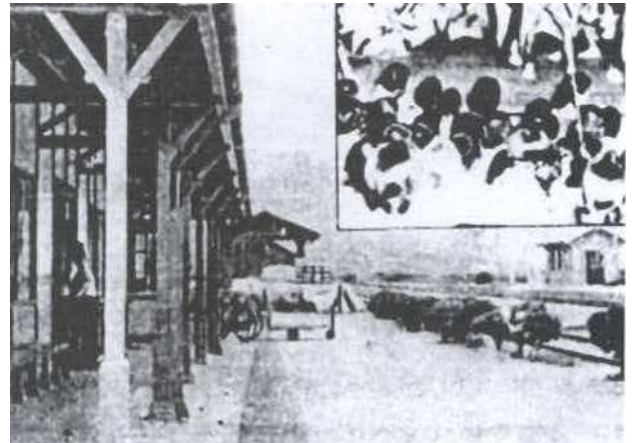
별교역은 1930년 12월 경전선이 개통되면서 세워졌으며 현재 역사<sup>驛舍</sup>는 1987년에 새로 지은 것이다. 철도교통이 주를 이루던 일제, 해방 후에는 역을 중심으로 여관, 식당 등이 번창했고 70년대 초반까지는 역광장이 버스정류장까지 겸하고 있어 붐볐으나 지금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별교역은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근대화를 상징한다. 역 자체로서는 이동,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이나 개방성을 지닌 장소로 인식된다. 소설 속에서는 김범우와 학생들의 순천으로의 통학, 재판소나 도립병원으로의 이동과 관련된 사건을 묘사할 때 등장한다.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역전의 광장은 전시, 공개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된다. 소설 속에서 계엄사령관 백남식, 양효석의 부임 그리고 염상구의 활동무대이기도 하다. 그리고 빨치산 배성오가 사살당해 죽자 그 시체를 역전 마당에 전시하자 손승호가 잔인성을 항의하기도 했던 장소이다.

특히 별교역은 ‘악질 빨갱이 염상진 사살’이라는 글씨가 쓰인 종이와 함께 염상진의 목이 내걸린 장소이다.

살아서나 빨갱이제 죽어서도 빨갱이여! 당장에 못 떠내리겠어!“ 염상구가 두 경찰의 어깨죽지를 동시에 치며 외친 소리였다. 그러, 그러, 니가 사람이다. 하만, 느그 성인다. 그제서야 마음을 놓은 호산택은 솟구치는 서러움을 눈물로 쏟아내고 있었다.(10권 325쪽)

염상진의 수급(首級)은 동생 염상구가 거두게 된다. 둘은 피를 나눈 형제이지만 이념을 달리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소설 속에서 두 형제는 마주치는 장면이 거의 없다. 둘은 마지막 장면에서 죽어서야 얼굴을 맞댄다. 이념은 다르지만 피를 나눈 형제, 이는 서로 다른 이념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비록 죽어서 화해를 하지만 형제를 통해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역전마당은 통일과 화해의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된다.



이밖에도 별교역에서는 백남식의 떠들썩한 부임, 양효석의 금의환향과 봉변당하는 최익달, 콧대 세던 윤옥자의 냉소, 염상구가 어깨를 흔들며 어슬렁거리던 모습 등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작가는 별교역을 통해 우리 근대사를 관통했던 질곡의 역사를 고스란히 펼쳐놓고 있다.

#### 5. 별교의 상징: 홍교



홍교는 별교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세 칸의 무지개형 돌다리이다. 원래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뗏목다리가 있었는데 수해에 의해 자주 유실되자 조선 영조 5년<sup>1729</sup>에 선암사 초안선사에 의해 돌다리가 건립되었다. 별교라는 지명도 바로 이 뗏목다리에서 유래했으며 그 자리를 홍교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별교의 상징이면서 근원이 되는 장소이다.

일제시대 홍교에 대한 지역민의 생각은 도시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즉 별교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30년대 도시의 확장과 함께 별교천의 하천정리 후 일제는 소화다리를 건립하고 홍교를 철거하려 하였다. 일부 지주들과 결탁한 일본인 별교면장과 행정당국은 홍교의 철거를 기정사실화 하지만 주민들은 별교에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유일한 고적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별교사람들에게 있어 홍교는 소중한 역사유적이자 별교의 명소였고 낙안·순천 방면으로부터 고흥·보성방면으로 통하는 없어서는 안 될 다리였다. 특히 일제 강점하의 홍교는 민족전통의 상징적 문화재로서 별교에서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1931년 후반에 들어와서 일제는 홍교를 폐쇄하고 소화교 통행을 강요했으며 이 사건으로 별교주민들의 항일의식이 더욱 고조되었다. 조선 사람들은 거의 소화다리를 건너다니지 않았고 주로 일본인들이 통행했다고 한다.

소설 속에서는 염상진과 하대치 등 좌익세력이 지주들의 쌀을 빼앗아 소작인들에게 설을 쇠라는 격문과 함께 홍교에 놓아둔다.

다리 위에는 쌀가마니들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글씨가 쓰인 한지 한장이 나붙어 있었다. 별교 인민 여러분! 이 쌀을 고루 나눠 설을 쇠십시오.(4권, 168쪽)

소화다리가 일제시대에 의해 건립된 다리라면 홍교는 별교라는 지명이 유래된 별교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염상진의 야산대가 지주에게서 빼앗은 쌀을 홍교에 놓아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홍교는 현재도 별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리이며, 횡갯다리로도 불린다. 홍교는 다리 밑이 반월 모양의 무지개형의 다리를 말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홍교중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워 보물 304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는 세 칸의 무지개형 다리였는데 1981~1984년까지 4년의 보수공사를 통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주민들은 60년마다 환갑잔치를 열어주며 이 다리의 장수를 기원한다고 한다.

이렇듯 소설 속 별교는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민족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이다. 이러한 별교의 장소성은 별교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이라는 토대 위에서 성립된 것이다. 별교는 지리적 이점으로 일제에 의해 성장한 근대적 상업 및 교통 도시이지만, 일제의 극심한 식민지 수탈로 고통 받은 지역이기도 하다. 중도반쪽 역시 일제의 곡물 공출을 위한 식량기지로서 간척되었으며 수많은 조선인 소작인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진 한(恨)의 장소이다. 지속된 봉건적 토지제도의 모순,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해방이 된 후에도 소작인들은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하였으며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보장되지 않는다. 소작인들의 땅에 대한 열망과 지주들의 착취는 이념적 대립으로 전환되며 소작인들은 살기위해 빨치산이 된다. 소화다리는 이러한 이념간의 갈등이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장소이며, 서로 다른 이념으로 대립하는 우리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소설 속에서 염상진과 염상구는 형제이면서 서로 다른 이념을 추구한다. 이 형제의 관계는 우리민족을 상징하며, 염상진의 수급을 동생 염상구가 거두는 장면을 통해 분단의 극복과 민족의 화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4 소설 속 좌익의 공간

### 1. 좌익의 공간 1 : 산지

소설 속에서 좌익들의 주요 점유공간은 산지이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산지들은 여순사건반란군의 은신처로서 조계산, 전남도당으로서 백운산, 여순사건 이후 주력부대 은신처, 6.25전쟁 후 전남-전북-경남도당집결지로서 지리산, 백야산(화순군당), 덕유산(전북도당, 남반부 6개 도당위원장 회의) 등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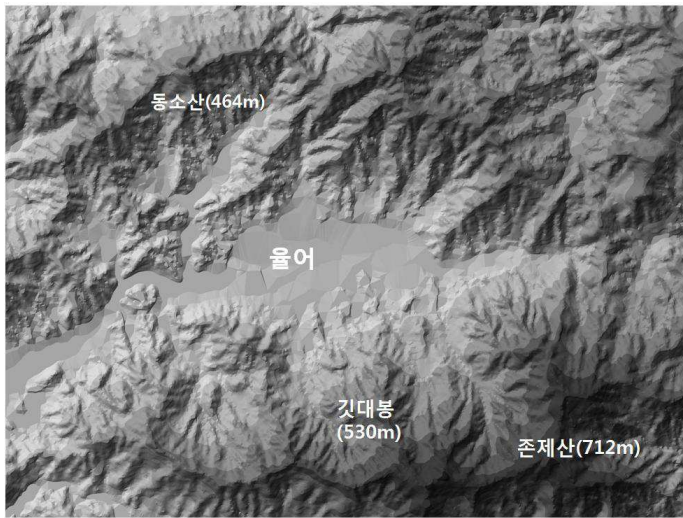
여순사건과 6.25 전쟁을 제외하면 좌익세력들의 주요 공간은 조계산과 해방구인 울어면이다. 여순사건과 6.25 전쟁 당시, 좌익세력이 별교를 장악하면서 우익세력이 인민재판으로 처형되고 반대로 좌익세력이 퇴각한 후에는 군경에 의해 좌익세력 및 부역자 색출이 이루어지면서 또한번 ‘피의 고발극’이 자행된다. 이때 별교는 좌우익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하게 표출되는 공간으로 민족상잔의 갈등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산지는 빨치산들에게 피난처이자 인민해방의 혁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장이었다. 소설 속에서 구빨치인 솔뚜쟁이 입산한 손승호에게 자신의 산 생활을 토대로 빨치산의 공간으로서 산에 대해 이야기 하는 부분이다.

“산이란 거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시나브로 알게 될 것이구만. 빨치산한테 산은 아그한테 엄니품이나 같은 거. 근디 경험 읊는 사람덜이 요것이 무신 말인지 알아묵어지겠어? 차차로 적어감서 알게 될일일게 접어두고, 좌우당간 일단 산에 들었다 하면 푹 한가지 지킬 것은 있그만. 고것이 면고 하니, 맥엄씨 산얼 무서바하고 겁목을 일도 아니고, 글타고 시퍼보고 마구잡이로 텨빌일도 아니다 그것이어. 산이 첩첩이라고 타보도 앓고 무서바혀뿔은 산심에 눌러서나 끝까지 갱신얼 못하게 되고, 그 반대로 산얼 시퍼보고 텨비면 지가 아무리 지랄발광을 혀도 산언 꼬떡도 안 혀는 디다가 종당에는 지가 당히고 말제. 산이야 한 발 앞이 워찌 생겼는지 몰르게 골골이 같은 디가 하나도 읊으께. 글면 워찌 할 것이냐, 겁목지도 말고 시선방구치게 나대지도 말고, 그저 내 한 목심 보존시켜주십소사 혀는 맘으로 산혀고 친해지는 것이여. 글면 산타기도 몸에 쉴허게 익고, 산이 엄니품이 돼야 목심도 보존혀게 되는 것이제. 궁께로 산이 엄니맹키로 보듬아 주면 이쪽에서 순헌 애기맹키로 보듬킨다 그말이어.(7권, 203쪽)

하지만 산지는 평지에 비해 추위가 빨리 찾아오고 겨울 또한 길다. 이러한 점들은 빨치산 투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겨울철 추위에 동사자가 늘어나고 식량보급도 어려워지자 정부는 겨울철 흑한기를 이용해 토벌작전을 수행한다. 힘준한 산과 깊은 계곡이 있는 지리산도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나뭇잎이 떨어져 토벌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흑한기의 추위와 싸워야 하는데다 눈까지 쌓이면 발자국 때문에 이동 자취가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대한민국 군경 측은 이 같은 약점을 공략하고자 겨울철을 토벌의 최적기로 삼아 몰아붙였다. 빨치산은 정부의 적극적인 토벌작전과 불리한 자연 조건, 돌림병 피해, 보급로 단절 등으로 해체되어갔다.

소설 속에서 빨치산들은 차별과 착취가 자행되는 비인간적 공간에서 인민의 평등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삶을 위해 산으로 들어가 치열하게 투쟁하다 죽어간다. 비록 인민해방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의 투쟁은 역사 속에 기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죽어간다. 빨치산들에게 산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거점이자, 인민해방의 혁명을 위해 싸우다가 죽어간 삶과 죽음의 공간이다.



해방구, 울어의 지형

## 2. 해방구 공간, 울어

내가 보기엔 이곳은 참 희한하게 생긴 천연요새야. 옛날에 성이라는 게 제 아무리 높아봤자 저 산줄기들을 어찌 감히 당하겠어. 저 줄기들은 평균 높이가 해발 삼사백미터야. 혹시 갑오란 때 여기서 동학군을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그때부터 여긴 비밀 군사기지로 사용됐던 거야. 자연조건 때문이지.(4권, 39쪽)

울어의 경우 보성군에서 좌익세가 강했던 지역으로 여순사건 당시 좌익세력이 약 90%였다는 설도 있다. 한편 그때 당시 울어면의 실제 상황을 보성군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 “보성의 모스크바’로 불렸던 울어는 당시 보성군 내에서 좌익세가 강했던 지역으로 꼽힌다. 그것은 빨치산들의 주둔지가 되었던 존재산을 끼고 있고, 조계산에 잇닿아 있는 지형 탓으로 반란사건 이전에도 빨치산들의 활동이 활발했었던 때문이다.” 울어는 ‘보성의 모스크바’로 불렸으며 당시 보성군 내에서 좌익세가 강했던 지역으로 꼽힌다. 보성에서 좌익세가 강했던 지역은 별교지역 이외에도 울어, 문덕면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야산대의 주둔지이던 조계산, 존재산 등을 끼고 있어 여순사건 이전에도 이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특히 울어면의 경우 소작인이 많아 계급 간 갈등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열성적 좌익 활동가들의 고향으로 좌익세가 강했다. 1928년 울어의 인구는 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소작농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제와 결탁한 지주들의 횡포로 소작인들의 삶은 곤궁했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울어인구의 40가구가 간도로 이주했으며 백 가구 이상이 일본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또한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 기념식 때 2000여명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경찰관 1명과 우익인사 1명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울어 주변의 산들은 당시 관의 추적을 피해 숨어들어온 사람들의 은신처여서 산속으로 치우친 울어는 많은 좌익 활동가들의 무대가 되었다.

이처럼 좌익세가 강해서 여수·순천이 진압된 이후에도 40여 일간이나 울어는 좌익의 지배하에 있었다. 울어지역의 좌익 토벌작전은 12월에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밤에는 ‘밤손님’이라 불리는 좌익세가 내려와 밥과 가축, 젊은 청년을 잡아가는가 하면, 낮에는 군인과 경찰이 좌익에 협조했다고 때리거나 죽이는 일이 빈번했다.

울어는 해방구로서 좌익에게는 활동의 근거지 이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었지만 좌우익의 이념대립이 극심하던 시기에 이념에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양측의 갈등으로 무참히 살해되었던 아픔을 간직한 공간이다.

## 5 소설 속 우익의 공간

그곳은 지주들까지도 의외로 신식물이 많이 들어 있었다. 옷부터 양복차림이 대부분이었고 재산도 논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업체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논만 밟고 장죽 물고 앉아 헛기침하

는 옛날식 양반 지주가 아니라 사업의 손익을 재빨리 계산하고 돈 버는 요령을 아는 사업가이면서 지주였다. 물론 그들은 가문이니 양반이니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만 그건 자기네들을 과시하려는 거드름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의 언행에는 이미 양반다운 품격도 체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대표적인 이물들이 최익달, 윤삼걸, 정현동이었다. 양반다운 언행으로 품격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김사용이나 서민영 정도였다.(6권, 91쪽)

별교는 홍교를 기준으로 위쪽은 낙안별과 고읍들을 포함한 지역으로 농업이 기반이 되는 ‘전통 별교’(전근대적 공간)이다. 반대로 홍교 아래쪽은 포구를 중심으로 별교역과 같은 교통시설, 읍사무소, 금융조합, 세무서 등 관공서 남도여관, 남원장 같은 상업과 서비스업종들이 분포하는 ‘개화된 별교’(근대적 공간)이다. 즉 별교는 홍교를 기준으로 농업 중심의 ‘전통별교’와 상업을 기반으로 하는 ‘개화된 별교’로 구분되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 사이에 두 구지 공간이 혼재된 ‘중층적 공간’이 존재한다.



『태백산맥』속의 문학·역사 공간들

### 1. 봉림리 일대 전통별교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별교’ 인근의 봉림리 일대는 주로 지주의 공간에 해당한다. 지주층의 대표적 인물이 김범우의 아버지 김사용이다. 그는 유교적 사상을 지닌 지주로 신식문물을 적극 수용하지는 않



지만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으며 항일독립운동을 하는 큰 아들을 지원하느라 재산을 많이 잃게 되지만 일제 식민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농지개혁 당시 농지 빼돌리거나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양심적인 지주였다. 또 봉림리에는 지식인 좌익운동가인 안창민네 안씨 문중이 터를 잡고 있다. 지주들의 공간인 봉림리 일대는 그들의 농토인 낙안벌과 고읍들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주들은 자신들의 농토와 소작인들의 모습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 1) 김범우의 집

흥교에 서서 별교천 건너편의 언덕 위를 바라보면 마을 중앙에 오래된 기와집이 있다. 그곳이 소설 속 김범우의 아버지 김사용의 집으로 묘사되고 있는 실제무대이다. 항일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광복 이후 인민군 고급장교가 되어 귀향한 김범준이 황계다리 흥교 목을 꺾어 돌면서 마주 바라다보이는 집을 보고 감회에 젖었던 곳으로 별교읍 봉림리에 위치하고 있다.

유학적 사고를 지닌 김사용은 큰아들 범준을 독립군으로 내보내고 작은 아들 범우를 학병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팔아 독립군 자금으로, 한편은 일본을 위해 희사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삶이 배어있는 곳이다. 또한 자식과도 같은 염상진에 의해 인민재판에까지 끌려 나가야만 했던 수모와 배신감을 눈감고 침묵으로 삭혀야 했던 김사용의 회한이 담긴 곳이다.

소설 속에 나오는 김범우나 김사용은 실존인물은 아니다. 다만 조정래 씨와 이집 아들이 초등학교 동기였고, 이 집에 자주 놀러와 당시 먹기 힘든 쌀밥누룽지였다 귀한 설탕을 뿌려먹었던 기억이 강해 이 집을 소설 속 배경으로 선택했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소설에서 작가는 김사용을 양심적 지주로 그려놓고 있다. 김범우의 경우 실존인물인 박순동(조정래의 친외삼촌)으로 어머니의 동생을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 2) 현부자네 별장

중도 들녘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제석산 자락에 세워진 이 제각은 본래 박씨 문중의 소유이지만 소설에서는 현부자네 집으로 꾸며졌고 정하섭이 무당의 딸 소화의 도움을 받아 그 현부자네 제각에 몸을 숨기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집의 안채를 보면 한옥을 기본틀로 삼았으며 곳곳에 일본식을 가미한 색다른 양식의 건물로서 문화재적인 그런 가치는 없지만 그 시대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건물이다. 예를 들어 마루는 조선식, 천장은 일본식이고 사방으로 둔퇴를 따라 돌아가면 안채에 설치된 화장실에 이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래 한옥은 안채에 화장실을 배치하는 경우가 없었었다. 또한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구경조차도 하기 어려웠던 양변기가 놓여 있고 지붕 아래 처마의 서까래에는 벚꽃 무늬를 단청했다. 또한 목욕탕의 욕조는 무쇠로 만든 것으로 툇마루 아래에 있는 아궁이를 통해 물을 데우게 되어있다. 툇마루 밖으로 유리식 덧문이 설치되어 집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목욕탕과 화장실을 출입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다. 문간채에는 2층 누각이 서 있고 누각으로 오르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당시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형태로 소설 속에서 현부자가 누각에 올라앉아 기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자기 소유의 농토를 내려다보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실제 이 누각에 올라보면 중도들이 한 눈에 훤히 보인다. 현재는 재석아파트와 장미타운이 들어서 시야를 가리고 있다.

### 3) 소작인들의 공간, 들물

소작인들은 자신들의 일터인 소작논 근처에 모여 마을을 이루었다. 그 대표적인 마을이 들물이다.

항아리 속처럼 넓은 낙안벌에 몇 십호씩 이마 맞대고 있는 들마을들은 구할이 넘게 작인들이었고, 항아리 속에 머리를 넣고 소리치면 되올림이 갑절이나 커지는 것처럼 그 소문은 낙안벌 들마을 들에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갔다.(5권, 312쪽)

들물은 ‘들마을’의 전라도 발음이며 한자식 표현으로는 평촌<sup>坪村</sup>으로 현 별교읍 전동리에 속한다. 들물은 초가 형태의 가옥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당시 대부분 소작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마을들은 소작논과의 거리를 고려해 들판 가까이 자리잡고 있었다. 소설 속에서는 하대치의 부인 들물댁의 친정 동네이다. 구석구석에 들물댁의 처녀적 부끄러운 소망과 설레던 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다. 자식을 낳아 기르고 나이 들어갈 수록 진한 그리움에 들물댁에게는 친정어머니만큼 그리운 땅이기도 하다고 묘사되고 있다.

## 2. ‘개화된 별교’

‘개화된 별교’는 토지뿐만 아니라 상업적 자본주의를 통해 재산을 증식해가는 유지(신식 지주)들과 관련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개화된 별교’는 일제시대에 개발된 당시의 중심가로 본정통이라 불렸으며 현 별교읍 일대이다. 본정통은 왜색이 짙은 일본식 건물들과 염상구의 주요 활동지인 차부, 정현동의 술도가, 포 목점, 유지들의 회합 장소인 남원장, 별교 유일의 고급 숙박기관인 남도여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본정통 중간 즈음에 금융조합, 근 거리에 읍사무소, 경찰서, 청년단이 자리 잡고 있다. 소설 속에서 좌익에 빠진 아들 정하섭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술도가 사장 정현동의 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정현동은 술도가를 내주고 금융조합 언저리의 왜색집으로 옮겨 앉았다. 일본놈들이 모여 살았던 본정통 주변 좌우로는 한옥집 보다 왜색집이 더 많은 형편이었다. 정현동은 다다미방을 온돌로 개조하는 번거로운 일을 벌이면서도 굳이 왜색집에 살기를 고집했다.(5권, 264쪽)

이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몰염치한 행태를 일삼으며, 소작인들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다. 또한 이들은 전쟁이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정전협정이 진행되자 최익달의 술도가 모여 앉아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어허, 이래저래 여러 말 헐 것이 하나또 읊소. 정전하고도 우리가 안심하고 편케 살 방도가 딱 한나 있소! 고것이 먼디, 싸게 말허씨요. 간판허요. 요새 큰 도시서부터 말 시작되고 있다는디, 정전힘스로 남쪽이 미국에 한 도로 들어가뿌는 것이요. 미국은 도가 아니라 주요. 도든 주든 위짚으나 간에 그리 맹글어불면 빨갱이 걱정 안해도 되겠다, 을매나 신간편케 살아지겠소허! 고것 참말로 신통헌 방법이시. 고것이야 우리 맘이 제 미국이 받아줄라등가?(9권, 168-169쪽)

### 1) 술도가

별교에서 유일한 요정 남원장이 있었던 곳에서 남국민학교로 통하는 길을 계속 건다가 그 셋길이 끝나는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면 우측으로 이십여 미터 앞에 삼성주조장이라는 술도가가 있었다. 그곳은 소설에서 정현동의 술도가로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 술도가의 주인과 소설에서 묘사되는 정현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하다. 또한 그 술도가 집은 정하섭의 어머니 낙안댁이 아들에게 보내는 전대를 소화가 치마를 걷어 올리며 허리에 차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과의 관계를 염려하기도 했던 곳이다. 지금은 개인주택으로 변해있지만 술도가의 흔적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황호일이 경영하던 술공장의 경우 현재는 사라지고 없으며 그 흔적을 살펴보면 제일문구사 옆 경운기수리센터 자리이다.

## 2) 남원장

소설 속 별교 유지들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남원장을 들 수 있다. 남원장은 별교의 대표적인 요정으로 주로 별교 유지들이 온갖 책략을 꾸미던 장소이다. 좌익을 하는 아들을 둔 정현동을 토벌대후원회 회장으로 추대하는 사건(2권), 서운상과 정현동의 토지거래(2권), 유지들의 좌익철결위원회 조직(6권), 계엄사령관 심재모를 용공행위로 고발하기 위한 모임(5권) 등이 남원장에서 이루어진다.

남원장은 유지들의 대소모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안위에 반하는 세력, 주로 좌익세력을 제거하거나 반대되는 활동을 위한 공간, 토벌대나 경찰과 같은 공권력과 결탁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생존을 위해 땅 한 뼘도 아닌 소작권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작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공간인 것이다. 남원장은 과거 본정통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지금은 철거되어 그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 3) 금융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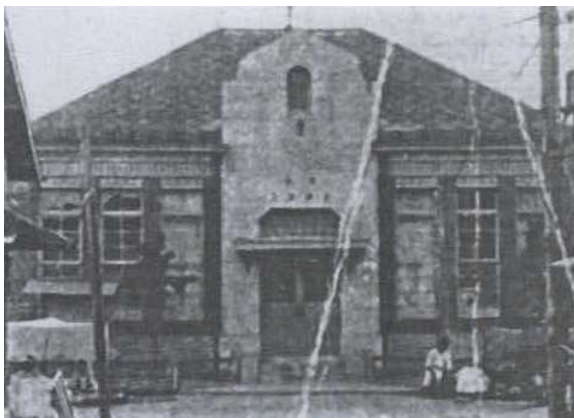
‘개화된 별교’에서 유지들의 또 다른 공간으로 금융조합이 있다. 이곳 역시 유지들이 농지개혁법 발표 후 자신들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대응책을 논의 하던 곳이다. 금융조합장의 성격을 설명하는 다음 내용을 통해 유지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송기묵은 일정 때부터 금융조합에 근무해온 사람이었다. ... 그는 금융인답게 토지 소유욕은 갖지 않았다. 그 대신 현찰신봉자였다. 그는 현찰을 가지고 은밀하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다. 돈이라면 마누라도 팔아 먹을 놈이라고 소문이 난 윤 부자의 공공연한 고리대금업의 일부 돈줄이 송기묵과 연결되어 있었고, 처남을 앞세워 순천과 여수지역에서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1권, 263쪽)

돈을 벌기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여순사건 당시 별교를 장악했던 염상진 세력에 의해 처형당한다. 금융조합은 1919년 3월 14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건물이 보존되고 있다. 별교면, 조성면, 순천군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일부와 고흥군 동강면, 대서면등 7개면을 관할하고 있었으며 광복 후에는 협동조합, 농촌지도소, 현재는 농민상담소로 이용되고 있다. 금융조합은 일제 식민 수탈의 선봉에 섰던 기관이다.

별교에 금융기관이 들어선 것은 교통의 중심지인 별교를 식민지 수탈의 본거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별교가 순천만·여자만에 가깝고 고흥·순천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물자를 실어내기 위한 포구를 개발하고 수탈을 지원하는 금융조합을 설치했던 것이다.

일본인들의 이용에 편의를 위해 가장 변화한 거리의 중심에 세운 금융조합은 현재 보성군 소유로 ‘별교금융조합’이라는 건물 이름과 함께 외부의 모습, 내부의 금고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건물 뒤편에 과거 조합장 사택이 목조건물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 4) 남도여관

소설 속 남도여관은 실제 별교읍내에 있는 보성여관이며, 일제시대 건축양식을 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소설 속에서 경찰토벌대장 임만수와 그 대원들의 숙소로 이용되어 오다가 계엄사령관으로 부임한 심재모에 의해 민폐를 없애고 경찰토벌대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선창 옆 창고로 내몰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건물1층은 현재 상점과 일반 가정에 임대하면서 개조해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일제시대 당시 숙박시설의 건축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 건물 뒤쪽 외벽은 검은색으로 바랜 목재가 그대로 있어 일제시대 건물이란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존이 잘 돼 있다.



#### 5) 차부

별교역 대합실을 나와 광장 끝에서 왼편으로 꺾어 돌면 현대식 건물로서 있는 별교우체국을 만나게 된다. 이곳이 아침 일찍 첫차가 뜰 무렵부터 밤늦게 차가 끊길 때까지 실재없이 시끌벅적거리며 바쁘게 돌아가던 차부. 곧 시외버스정류장이었다. 10년여쯤 전에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외곽지역인 도래등 위의 현재 터미널 위치로 이전을 하고 지금은 그 자리에 별교우체국이 들어섰다. 소설에서는 주변에 좌판을 벌린 상인들에게 염상구가 이삿돈을 불리고 텃세를 받고 그 대가로 그들의 상권을 보호해주기도 한다. 목에 힘을 잔뜩 넣은 채 뺨 눈을 가늘게 뜨고 어깨를 휘저으며 다니던 염상구의 모습과 정류장 양편 길가에 자리 잡고 앉아 있던 떡장수며 고구마장수 그리고 시끌복잡하던 모습들을 보여준다.



(상중)보성여관의 내외부, (하)차부

#### 6) 선창과 창고

소설은 선창을 김범우의 생각을 빌어 아름다운 한편의 시로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김범우는 별교의 그런 어스름녘을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선창 옆 창고는 소설에서 경찰토벌대와 계엄군이 숙소로 이용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심재모가 별교지구 계엄사령관으로 부임하자마자 임만수가 이끄는 경찰토벌대를 그동안 묵고 있던 남도여관으로부터 철교 아래 줄지어 선 창고로 내모는 한편 별교에 배치된 계엄군 소대의 숙소도 이곳 창고였다.

#### 7) 경찰서

소화다리에서 별교천 오른편 시가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면 바로 삼거리에 이른다. 왼편으로 오십여 미터쯤에 세운 장여관과 목욕탕이 있는데 그곳이 불타버린 옛 경찰서가 있었던 자리이다. 군 소재지가 아닌 읍에 경찰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일제강점기 별교읍의 번영을 짐작할 수 있다. 1948년 여순사건 때 반란 세력들이 진압군과 경찰토벌대에 밀려 퇴각하면서 불태워졌다. 소설 속에서는 반란군들이 별교를 점령하면서 불태운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실제로는 반란군들이 별교에서 퇴각할 때 경찰서를 불태운 것을 소설은 반란군 진압과 함께 경찰서가 불태워진 것으로 바꿔 묘사하고 있다. 이는 소설 「태백산맥」이 논픽션이 아닌 탕도 있었으나 소설의 효과를 높이고 독자들의 책 읽는 재미를 살리기 위해 작가가 고심한 흔적으로 보인다.

온갖 비리와 모략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계엄군 사령관 심재모

를 제외하고는 토벌대장 임만수, 계엄사령관 백남식, 경찰서장 남인태 등도 역시 친일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지역의 유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승진하기에 급급하다.

## 8) 청년단

읍사무소 뒤로 나가는 샛길을 따라 별교공원으로 오르는 돌계단 아래 골목에 염상구가 큰소리치던 청년단 건물이 있다. 김범우가 다방 아가씨들에게 듣고 나서야 알게 되는 청년단 건물의 위치는 소설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어쩔 별교 사시면서 청년단을 모르세요? 나같이 타향살이하는 사람도 아는데 공원 아래 목욕탕 이층이잖 아요?(1권 313쪽)

청년단 사무실은 염상구가 자애병원 간호원을 죽쳐 총상 입은 안창민을 치료했던 사실을 밝혀낸 곳이다. 마음에 품었던 윤옥자의 가방에 조작된 빨갱이들의 편지를 넣어 빨갱이 세포라는 혐의를 씌운 뒤 여기서 살 아날 수 있는 길은 ‘자기 마누라가 되는 것뿐’이라며 그 자리에서 군용 모포를 펼치고 윤옥자를 겁탈한 곳이기도 하다. 청년단 아래층에 있던 공동목욕탕은 거의 일본인들 전용이다시피 했다. 해방이 되고 일본인 주인이 쫓겨 가게 되자 그 집 일꾼으로 일하고 있던 나씨의 차지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많았던 때처럼 목욕탕 운영이 신통치 않아 결국 문을 닫았다고 소설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별교읍 세망리 별교읍 사무소 뒤편에 위치해 있었던 청년단 건물은 1990년대에 헐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시멘트콘크리트 건물이 서 있다.

청년단은 해방 후 생겨난 단체로 지역의 주먹패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주먹패의 오야봉인 염상구가 단장이 다. 염상구는 지식인 좌익 운동가 염상진의 동생이지만 형과는 전혀 다른 인물로 교활하고 사악하며 형에 대한 열등감이 좌익에 대한 반감으로 전이되어 좌익색출에 앞장선다. 염상구는 청년단장으로서 권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재력에 대한 욕심으로 술공장, 정미소 주인 딸인 윤옥자와 강제로 결혼해 별교의 유지가 된다.

‘개화된 별교’ 읍내의 구조를 살펴보면 금융조합, 청년단 건물, 읍사무소가 근거리에 배치되어있다. 돈과 그것을 증식하는 서류들,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하는 ‘주먹’이 근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다. 돈과 행정, 그리고 주먹(힘)이 민중을 수탈해 냈던 일제와 해방 초기의 사회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구조인 것이다.



## 6 그 외 소설 속 흥미로운 공간들

### 1. M1 고지, 별교공원

부용산 자락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에 있는 공원으로 이곳에 오르면 별교 시가지와 별교 포구가 한눈에 보인다. 고개를 돌리면 김범우 집과 낙안들과 고읍들이 보인다. 일제시대에 이곳에 신사를 세웠고, 해방 후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작품에서 심재모가 부임한 후 계엄군 종합지휘소를 설치하고(3권 108쪽), 이곳을 M1고지라고 이름붙인다. 심재모에게는 ‘엠원고지’였어도 별교 사람들에게는 ‘애망고지’였다. ‘애망고지’는 ‘엠원고지’에 대한 별교인들의 한 맺힌 패러디이자 새로운 의미 창조이다. 별교 출신 민족음악가인 채동선기념비와 부용산시비가 세워져 있다.

### 2. 용연사

별교읍 별교리 795번지에 위치한 용연사(龍淵寺)는 소설에서 계엄사령관 심재모가 별교를 지키기 위해 설치한 M1고지가 있었던 별교공원 옆 부용산 칠부능선쯤에 자리하고 있다. 1910년 무렵에 개창한 용연사는 최근에 중창불사를 하였다. 용연사 이전에 부용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다는 설도 있지만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기 어렵다.

소설에서 문기수가 야산대장 염상진의 「최후의 명령」을 접수하기 위해 불공드리는 신도로 위장하고 용연사로 향하는 대목이 있다. 절 뒤로 더 올라가 바위들이 덩이를 이루고 있는 곳에 있는 미륵불을 찾아가기 위해 손아귀에 배어난 땀을 말아준 채 한계단 한계단 느린 걸음으로 자연석 돌계단을 오르는 것이 다 찼보 자기를 미륵불 앞에 놓고 느린 동작으로 절을 하면서 읍내에 세포조직망을 구축하라는 최후의 명령을 받고 빨갱이 조직의 철저함과 무서움을 뒤늦게 깨달으며 자신의 전신을 휘감아오는 오싹한 찬바람을 느낀 곳이다.

용연사에 올랐던 길을 되돌아 내려오는 길에서는 5~60년대에 별교를 중심으로 호남에서 유행되고 애창되었던 노래 ‘부용산’(박기동 작사, 안성현 작곡)의 배경이 되었던 부용산이 있다.

부용산 오리길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 발사이 사이로 회오리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부용산 봉우리에 하늘만 푸르러푸르러

‘부용산’의 곡을 지은 안성현은 우리가 잘 아는 동요 ‘엄마야 누나야’(김소월 작사)를 작곡한 사람으로 후에 월북했다. 슬프고 아름다운 노래 ‘부용산’은 빨치산들이 즐겨 불렀다는 소문 때문에 빨치산 노래로 오해되어 오랫동안 금기시했다.





### 3. 철다리

1930년 경전서 부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놓인 이 철다리는 소설의 배경이던 시절은 물론 1970년대 후반 국도 호선도로가 확장 포장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홍교, 소화다리, 부용교와 함께 별교천 포구의 양안을 연결하는 세 개의 교량 가운데 하나였다. 소설에서는 독립투사를 만들어 낸 선창과 함께 주먹패들의 오야봉을 결정짓는 최후의 결전장으로 그려지고 있다. 주먹싸움에 이은 단칼싸움에서까지 패배한 땅벌이란 별명의 깡패는 염상구에게 희한한 설욕전을 제안해 온다. ‘철교의 중앙에 서서 기차가 가까이 올 때까지 누가 더 오래 버티다가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는지 담력을 겨루자’는 것이다. 여기서 지는 자는 영원히 별교바닥을 떠나는 조건으로 철교 아래서 들려오는 「쌍칼이 이겼다아아」는 긴 환호성과 함께 염상구는 당당하게 별교주먹패의 오야봉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장터를 중심으로 한 역전 일대의 텃세권, 상점들의 정기상납권, 하나뿐인 극장의 기도권, 부장집의 경조사보호권 등 땅벌이 장악하고 있던 읍내의 권한이 고스란히 염상구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다.

### 4. 자애병원

자애병원은 실제 별교에 있었던 병원은 아니다. 다만 별교읍사무소에서 홍교 앞으로 나가는 길의 중간쯤에 후생병원이란 이름의 양의원이 있었다. 이 병원이 소설에서는 자애병원으로 묘사되고 있다. 별교 읍사무소에서 홍교 방향의 대로로 나가면 옛 시장 아래 지금의 어린이집이 바로 자애병원으로 묘사된 후생병원 건물이다. 또한 자애병원은 염상구가 임신한 소화를 매질하다가 유산되어 몸부림을 치는 소화를 입원시킨 곳으로 기지를 발휘, 정하섭의 모친 낙안택을 요리하여 「애 떨어지게 해주는 조건」으로 쌀 스무가마를 뜯어낸다. 소화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부담한 낙안택이 염상구에게 속은 줄 모른 채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아들 정하섭과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소화를 억박지르기도 한 곳이다. 자애병원으로 묘사된 당시 후생병원원장은 조덕제로서 지역민의 신망을 샀다고 한다. 옛날의 병원은 둘로 나눠 팔렸는데 병동 부분은 성모유아원으로 유지되다가 1995년 무렵 현대식 건물로 신축돼 지금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 5. 회정리 교회

소설에서 서민영이 야학을 열었던 곳으로 ‘회정리 1구에 있는 교회’이다. 이곳은 원래 별교교회로 회정리 62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별교교회는 일제강점기 별교 지역 음악가 채동선의 누이가 부지를 기증하고 1935년 김형모 목사와 신도들이 건립한 60평 정도의 석조로 된 예배당이다.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는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회는 별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1985년 2월에 회정리 663-8번지에

새로 대광교회를 세워 이전하고 지금은 대광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대광교회의 소유 건물이다. 교회의 외부에는 지금도 음악으로 새겨진 글씨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춧돌에는 지금도 선명히 ‘1939. 5’라는 건립 연대가 선명히 보이고 박공 부분에는 ‘筏橋教會’라는 글씨를 확인할 수 있다. 소설에서 서민영이 야학을 열었던 곳으로 묘사된 이곳이 지금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 그의 미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다. 아직까지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고 있는 『태백산맥』의 몇 안 되는 무대 중 하나이다.



## 7 『태백산맥』에 서린 또 다른 이야기들

\*이 글은 이종범, 「그리움이 사무쳐도 돌아갈 땅이 없어라」, 『호남학산책』  
(한국학호남진흥원, 2020년 9월 1일)에서 발췌·요약한 것이다.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은 70, 80년대 ‘의식화 학습’의 필독도서였다. 일찍이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전임 교수가 거의 다 되었는데, 공부 성향이 문제가 되어 탈락하였고 이후 여러 대학 시간강사로 살며 ‘인민혁명당 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사건’ 등에 연루되어 순탄치 않았다. 당신의 글은 시대를 향한 편지와 같았고, ‘민족경제 수립을 위한 정치적 당면과제’ ‘민중의 민족적 과제와 전술’ ‘축소 지향적 민족적 생활양식’ 등의 화두는 그 반향이 깊고 넓었다. 어쩌면 살아남은 자로서 시대 변혁을 위하여 먼저 떠난 사람에게 들려주는 고백이었는지 모른다.

일찍이 풀빛 나병식 형에 이끌려 중구청 앞 골목길 허름한 사무실로 처음 찾았는데, 조선대학교가 민주화 되면서 정교수로 초빙되고 나 또한 공채되면서 자주 만났다. 언젠가 물었다. “선생님, 왜 문장이 이리 길어요?” 그런데 태연자약, “어허, 원고료가 있잖아.” 조정래 작가가 선생을 만나러 왔을 때도 옆자리에 낀 적이 있었다. 1950년 10월 서중학교 2학년 16살에 마을 가까운 백아산에 들어가서 소년돌격대 문화부 중대장으로 복무하다가 총상을 입고 환자비트에 있다가 1952년 8월 하산 체포되었던 전력이 있었다. 세무서 다니던 부친이 온 재산 바치다시피 하여 겨우 살아났다. 선생의 입산 장면이 『태백산맥』에 나온다.

“실례하겠소. 무슨 일어요?”

염상진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압적이었다.

“누군디, 왜 그요?”

총을 든 젊은이가 조금도 달라지는 기색 없이 염상진에게 눈길을 딱 고정시켰다. 그 당돌한 것 같기도 하고, 당당한 것 같기도 한 태도에 염상진은 어이가 없었다. 더욱이 그는 셋 중에 키나 몸집이 제일 작았고, 얼굴까지 하얗서 그런 태도가 영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눈만은 예사롭지 않게 총기가 서리고 날카로웠다....

보성군당위원장 염상진에 당돌하였던 총을 든 젊은이가 박현채였다.

어느 날 물었다.

“박준옥이란 분을 아시지요?”

“우리 중학 다닐 때 교장선생님이셨어, 일본 구주제대 나왔지. 입산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공부 가르쳤어.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가 쉬운가. 그런데 아주 쉽게 말씀하여 사람들이 좋아했지. 환자들이 있는 ‘비트’에서도 많이 가르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생님 오셨다’고 하면서 먹지 않고 아껴놓은 떡이나 과자를 드리곤 하였지. 그러면 다 잡수고 않고 나한테도 주고 가셨어. 하루는 엿을 받고 ‘현채 갖다 주어야겠다’ 하

시며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지. 거기에서 총 맞고 돌아가신 거야. 자네가 왜?...”

『태백산맥』에서 박준옥은 ‘출판과장’으로 나온다. 오랜 교단생활 경험으로 출판과장은 어려운 이론을 아주 쉽게 풀어서 강연하는 솜씨로 지구의 모든 대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특히 배움이 없는 기본출들에게 그 인기는 절대적이었다. 그 인기는 인기로 끝나지 않고 기본출들 거의는 출판과장을 존경하기까지 했다. 그가 주로 하는 강연은 ‘사회발전사’였다. 인간의 원시생활과 노동의 시작, 노동의 신성과 평등, 농경생활과 집단사회, 공동경제사회와 정치권력구조, 봉건사회와 경제착취, 착취의 부당성과 노동신성권의 회복, 혁명의 필요성과 인민이 주도하는 혁명, 이런 단계로 풀어 가는 강연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웠고 설득력이 강했다... 그런 존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보투<sup>補圖</sup>를 나간 대원들은 출판과장에게 선물할 물건을 따로 챙기게 된 것이었다. 꿀, 조청, 약 같은 것을 손에 넣게 되면 출판과장에게 갖다 주었고 그런 귀한 것을 구하지 못한 대원들은 지고 온 쌀을 축내 선물하기도 했다.

박준옥은 넉넉하지 않으나 자존심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보성 미력면 출신으로 본관은 진원. 구주제대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대지주였던 호남은행장 현준호(玄俊鎬)의 장학금 덕분이었다. 현준호는 비록 친일 인명사전에 올랐지만, 박준옥만이 아니라 여러 유망 청년에게 그런 혜택을 베풀었는데, 일찍이 김성수·송진우 등과 같이 창평의 영학숙(英學塾)에서 배우고 휘문의숙을 거쳐 일본 메이지 대학을 다녔다.

박준옥은 한때 유명한 친일기업인 박흥식의 화신백화점에서 근무하며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를 나온 규수와 결혼하였다. 해방 후 공산당에 몸을 담고 한동안 정읍 등지에서 지방조직을 추스른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남로당이 불법화되자 한 곳에 살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부인은 이제나저제나 부군이 돌아올까 밥상을 차릴 때면 먼저 부군의 밥그릇을 먼저 챙겼다. ‘인공’ 때 서중학교 교장에 부임하며 만났지만, 곧바로 영영 이별하였다. 당시 부인은 29살, 주위에서 재가를 권유하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어찌 그런 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겠소?”



# 제5답사, 서재필기념관

5

## 개화·독립·민주의 삶, 서재필

### 1 근대계몽운동의 선각자

#### 3일천하로 역적이 되다

서재필<sup>1864~1951</sup>은 전남 동북군 하내리(보성군 문덕면 가천리)에서 서광언과 성주이씨 사이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본적은 충청남도 논산군 구자곡면 금곡리(논산시 연무읍 금곡1리)이지만 그곳에 가 본 적이 없었다. 서재필은 가천에서 나서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가천리는 서재필의 외가로 어머니가 친정이 워낙 명당자리라고 하여 이곳에서 낳았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7살 때까지 생활하였고, 7촌 아저씨인 서광하의 양자로 들어가 서울로 올라갔다.

청년 서재필은 1882년 19세 때 별시문과에 최연소로 급제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를 갖는다. 당시 개화파는 서울 서대문에 자리한 봉원사를 중심으로 결속하고 있었다. 봉원사에는 개화파 승려인 이동인이 주지로 있었는데, 부산 출신인 이동인은 어려서 일본말을 배워 일본 지식인들과 교류하고 있었고, 서양 문물에 관한 서적들을 일본에서 들여와 당시 개화파들에게 제공하였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유길준, 이동인 등은 모두 한때, 연암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의 문하생이었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었다. 후일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봉원사에 비밀리 모여 서양 문물에 대한 책을 읽고 시국을 논하면서 자연스럽게 '개화당'을 형성하여 결속을 다지게 된 것이다. 서재필은 이 중 가장 어린 나이였다.

조선의 개혁을 꿈꿨던 서재필은 과거에 합격해 출세가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신식군대의 필요성을 절감, 1883년 5월 김옥균의 권유로 독일, 11월경 일본의 도야마 육군유년학교에 입학하여 8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듬해 5월 졸업, 7월 귀국하였다. 하지만 스무 살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기에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1884년 12월 김옥균이 주도하는 갑신정변에 가담하였으나 정변의 실패로 일본을 거쳐 1885년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서재필 인생에 있어 갑신정변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데, 갑신정변 주역은 역적으로 몰렸고 서재필의 가족들은 모두 살해당하였다. 서재필의 부모를 비롯하여 3명의 친형제 등 가족들이 사약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였다. 관가에 기생으로 보내지기로 된 서재필의 부인은 죽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독약을 먹고 자결하였다. 당시 서재필에게는 두 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굶겨서 죽였다고도 하고, 아이가 굶주림에 지쳐 죽은 어머니의 젖을 물었는데 어머니 몸속에 있던 독이 아이 몸속에도 퍼져 죽었다는 설도 있다. 군대에 있던 그의 동생 서재창 역시 처형당하였다. 개혁을 꿈꿨던 청년에게 돌아온 것은 일가족의 몰살!! 개인이 감당하기에 힘든 일이었다.



위에서부터 서재필 생가, 서재필과 독립신문, 보성에 세워진 독립문

##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

일본으로의 망명, 그러나 일본은 냉대했다.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188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게 된 서재필은 막노동꾼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저녁에는 YMCA에서 영어를 배우고 주말에는 교회에 나갔다. 서재필은 어느 교회 신자를 통해 ‘홀렌백’이라는 사업가를 소개받고 1886년 9월(23세) “해리 힐만 아카데미”라는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서재필은 라틴어, 그리스어, 수학 등 여러 과목에서 등생이 되었다. 서재필은 교장 집에서 집안일을 도우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마침 관으로 퇴임한 교장의 장인이 함께 살고 있어서 그에게서 미국의 역사 및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서재필은 1888년 ‘필립 제이슨(Philip Jaisohn)’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필립 제이슨은 ‘서재필’을 거꾸로 하여 ‘필재서’로 만든 다음, ‘필’을 필립(Philip)으로 ‘재서’를 ‘제이슨(Jaisohn)’으로 음역한 것으로 미국식 이름에서도 국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담겨 있다.

홀렌백이 대학을 보내주고 조선으로 가 선교사가 될 것을 권유하지만 거절하고 결별하였다. 대학에 다닐 무렵, 서재필은 하루 3불의 품삯을 받고 유리창담이 등 잡역부로 노동을 하였고, 노동의 여가로 틈타서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했다고 한다. 1889년 컬럼비아 대학(지금의 조지워싱턴대학)에 입학하였다. 1892년 미국에서는 한인 최초로 세균학 전공으로 의학사(M.D.)가 되었고, 1893년 정식 의사면허를 받았다.

유태인 및 유색 인종은 의대에 입학할 수 없었던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 재학 중이던 1890년 6월 10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었는데, 황인종에게 시민자격을 부여하지 않던 당시의 제도에 비추어보면 역시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후 1894년 6월 미국 초대 철도우체국장의 딸(뮤리엘 암스트롱)과 재혼하고 미국 주류사회에 편입됐다. 뮤리엘은 제임스 뷰캐넌 전 대통령과 사촌 형제이자 남북전쟁 당시 철도우편국을 창설했던 조지 뷰캐넌 암스트롱의 딸로 그 아버지는 이 미

작고한 상태였지만, 의붓아버지가 워싱턴에서 유명 인사였던 탓에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서재필과 뮤리엘 암스트롱은 두 딸 스테파니와 뮤리엘을 두었다. 서재필은 의사 개업을 하였으나, 인종차별로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조국에 돌아와 국민을 계몽하고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다

서재필은 미국의 생활을 버리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1894년 조선에서 갑오개혁이 일어나 개혁이 단행되고 갑신정변 주도자에 대한 역적 누명이 벗겨지자 1895년 미국에 들른 박영효의 권유로 그해 12월에 귀국하였다. 그가 미국에서 품어온 꿈, 보고 들었던 것을 국내에서 실천하고자 한다. 이때에 서재필은 이래로부터의 개혁을 위해 국민계몽과 사회개혁을 실천목표로 정했다. 서재필은 공적으로는 중추원 고문직을 맡으면서도 실제로는 국민계몽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1895년 말부터 1898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독립신문을 간행하였다. 그는 독립협회를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서대문 밖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축하고 영은문이 열린 자리에 독립문을 세워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정치단체의 성격을 띠면서 만민공동회를 여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개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게 되었고, 일본과 러시아는 서재필을 배후 조종자로 지목하였다. 그리고 결국 1898년 정부가 미국시민이라는 점을 들어 중추원 고문직에서 해임하고 미국으로 추방하였다.

## 다시 미국으로

필라델피아로 돌아온 서재필은 “독립활동을 위해선 안정적 재정이 필요하다”며 미국인 친구와 동업해 인쇄업을 시작한다. 사업은 종업원 50명 규모로 번창했고 서재필은 이를 재정적 바탕으로 삼아 독립운동을 벌인다. 1904년 서재필은 윌크스 베리에서 디머 앤드 제이슨이라는 상회를 세웠고, 1914년에는 필립제이슨 상회로 단독 운영하면서 1924년까지 사업이 번창하였다.

그러던 중 펜실베이니아에서 3·1운동 소식을 전해 듣고 4월 13일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의회(‘한인회의’·‘한인자유대회’)를 소집하였다. 3일 동안 열린 이 행사에는 이승만, 정한경, 유일한, 조병옥, 안창호가 설립한 국민회 간부 등 1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여하였으며, 서재필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미국인 인사들도 참석하였다. 결의안은 “첫째, 임시정부를 후원한다. 둘째, 구미에 외교사무소를 설치한다. 셋째,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독립선언과 국내 실정을 이해시킨다. 넷째, 일본의 실책을 깨닫게 한다. 다섯째, 임시정부의 승인을 미국과 국제연맹에 요구한다.” 등이었다. 대회가 끝날 무렵 의장 서재필의 지도로 140명이 한국국기의 행렬을 시도하였다. 이어 미국독립관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폐막하였다. 또한 잡지 《The Evening Ledger》와 제휴, 한국문제를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한편 한국에 친화적인 성향의 미국인을 규합하는 ‘한국친우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후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미국에서 일본이 벌이고 있던 조직적 선전활동에 대항하고, 미국인들에게 조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한국통신부를 설립한 후 Korea Review를 발간하였다. 서재필은 Korea Review를 통해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1882년 맺어진 조미수호조약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상해임시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활약, 1922년 워싱턴군축회의에 독립을 청원하는 연판장을 제출하고, 1925년 호놀룰루의 범태평양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 일본의 침략을 폭로·규탄하였다.

## 이역에서 잠들다

그 후 서재필은 미디어에서 의사생활을 하던 중 조국해방의 소식을 들었다. 1947년 이승만을 견제하고자 했던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의 초청으로 귀국, 미군정청 고문과 남조선과도정부 특별의장관을 맡았다. 그가 1947년 7월 1일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이승만,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등 당대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영접을 나갔으며, 그의 귀국환영대회는 이승만, 김구, 여운형을 명예위원장으로 하고 3·1운동 33인의 한 사람인 오세창을 위원장으로 해 5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조국은 당파의 이익과 권력쟁취를 위한 싸움으로 들끓고 있었다. 1948년 6월 1일, 정일형 등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은 서재필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운동을 시작했다. 6월 29일에는 ‘徐박사추대 연합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재필은 7월 4일 불출마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도 제헌국회가 7월 20일 대통령을 선출할 때 그에게 1표가 나왔지만 그가 미국 시민권자임을 이유로 무효 처리됐다. 그는 마지막으로 옛 제자인 이승만을 만나 5·10 총선에 불참한 김구, 김규식 등의 남북협상파를 끌어안을 것을 권유했다. 마침내 1948년 9월 11일 인천항의 배편을 이용하여 다시 미국으로 떠나야만 했다. 이승만과의 불화 및 시국의 혼란함을 개탄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서재필은 배웅나온 군중들에게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을 남겼다. “조국이 통일국가를 수립하여 잘 살기 바란다. 국민이 정부의 주인이요, 정부는 국민의 종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권리를 외국인이나 타인이 빼앗으려 하거든 생명을 바쳐 싸워라.”

얼마 안 되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조국에서는 한창 전쟁 중이던 때인 1951년 1월 5일, 서재필은 필라



텔피아 근교 노리스타운 병원에서 86세의 나이로 그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치게 되었다. 1977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되었으며, 유해는 1994년 4월 8일에야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 2 서재필의 외가, 가내이씨의 시련

\*출처 : 이종범 편, 『나는 호남인으로소이다』, 사회문화원, 255~257쪽

서재필의 외가인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 가내이씨의 본관은 성주이다. 고려말의 이조년 등의 위인을 배출하였다. 서재필의 외증조부인 이유원은 이조참판을 지냈으며 풍수에 조예가 깊어 전국의 산수와 지리를 답사한 끝에 지금의 전남 보성군 문덕면 가천리 가내마을에 터를 잡아 거택을 짓고 살게 되었다.

서재필의 외조부인 가은 이기대<sup>1792~1858</sup>는 책을 좋아하였지만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여 공부에 충실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살림을 일으키고 난 뒤에 학업에 대한 뜻은 변하지 않아 언제나 책을 옆에 두고 보았다. 가은은 일찍이 “자식에게 상자에 가득한 황금을 주는 것보다는 시렁에 가득한 책을 주는 것이 나으리라. 책이 없으면 사람이 속되어지니 하루도 책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말년에는 정사를 지어 책을 두고 식량을 마련해 놓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하였다.

가은과 장홍임씨 사이에는 1남 5녀를 두었으며, 계배인 경주김씨와의 사이에는 1남을 두었는데, 그 중 5녀가 서재필의 어머니이다. 서재필의 어머니는 어느 날 초당 후원의 뽕나무를 큰 용이 잡고 승천하는 꿈을 꾸고 나서 그 뽕나무 잎을 모두 즙을 내어 마시고 부군을 모셔오게 하여 서재필을 낳았다고 한다. 부군이 동북현감 임에도 친정에서 생활한 것은 아들이 친정에서 운영하는 삼학당(가은당, 일감헌, 친상재)에서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좌)성주이씨세거지 가내마을, (우)서재필의 외가

가은의 아들이며 서재필의 큰 외숙인 지용<sup>1825~1891</sup>은 글을 좋아하고 재물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큰 흉년이 들면 남을 도와주는 데 아낌이 없었다. 높은 벼슬은 사양하고 현감 등의 일선행정을 맡아보면서 기강을 세우고 예교를 일으켜 풍속을 돈독히 하였다. 그러나 상사의 비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산청으로 유

배되어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였다. 하지만 지용은 “소졸한 사람이 분수없이 망령되게 벼슬길에 나섰으니 스스로 취한 재앙을 누구에게 탓하리요”라고 하며 의연한 자세를 보여 주었다. 지용은 나이 67세에 병환으로 집에서 작고하면서 가인들에게 선묘를 수호할 것과 아손을 가르칠 것만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지용은 4남을 두었는데, 그 중에 장남이 교문<sup>1846~1914</sup>이다.

할아버지인 가은은 교문에게 말하기를 “이 애가 가르칠 만하다. 조금만 자라면 노사 기정진에게 가서 배우게 해야겠다. 내가 늙어 그것을 보지 못하겠으나 너는 명심을 해라”라고 하였다. 노사도 그의 진실함에 글을 배울 만하다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성균관에 유학했을 때에는 관유들이 서재의 장의로 추대하여 모범으로 삼았다. 그러나 친구들이 오랫동안 뜻을 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옆길을 일러주자 교문은 말하기를 “장부가 세상에 살며 직도를 행해야 한다”고 할 뿐이었다.

아버지 지용이 석성의 수령으로 있을 때 설사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더럽혀진 옷과 이불을 밤에 손수 냇가에 나가 빨았다. 관노들이 이를 알고 대신하려고 하지 아를 물리치면서 “부모의 침과 콧물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어늘 하물며 똥이겠느냐”라고 하여 주위사람들이 그의 효행에 깊이 감복하였다 한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교문은 항일의병전쟁을 결의하였다. 1907년에 면암 최익현과 같이 충청도에서 의병을 일으키려다 여의치 않아 호남으로 옮겨 양희열·이백래·백경인 등과 화순 쌍봉사를 본거지로 ‘호남의병창의소’를 설립하여 군율사감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1909년 8월 20일 안규홍을 도와 진산대첩을 하였다. 교문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게 되었다. 69세에 “종사가 회복된 것을 보지 못한 것이 나의 무궁한 한이다”라고 말하고 숨을 거두었다.

교문은 4남 2녀를 두었는데 그 중 장남이 일<sup>1868~1927</sup>이다. 그는 19세의 나이에 모친과 조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살림을 맡아야 하였다. 그러면서도 제사의 범절이나 손님의 접대 등 큰일에 실수가 없었다.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로 인해 서재필의 외가인 성주이씨 집안도 참화를 피할 수 없었다. 가산은 탕진되고 가족은 이산하는 참변을 겪게 되었다. 교문은 의병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모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집은 일본군 주둔소가 되었다. 일의 아들인 용순은 일본군에게 총살당하려다가 구명되었으며 가족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일은 이런 참담한 소식에 “강하는 비록 아름다우나 두옥은 이루기 어렵고 천지는 넓으나 홀몸도 은신하기 어렵다”고 탄식하였다.

용순도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항일운동에 몸을 바쳤다. 해방 후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은 제일 먼저 용순을 서울로 불러 만났다. 서재필은 용순을 전남 미군정의 고문으로 추천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 용순에게 “제발 정치에 참여하지 말고 고향에 돌아가 수진제가하고 가업에 충실하라”고 당부하였다. 용순은 고향으로 돌아와 후진양성과 지역발전에 전념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 제6답사, 천봉산 대원사

6

### 봉소형국의 명당 대원사와 티베트박물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왕벚나무 터널’. 길 양편에는 6km 남짓한 벚나무 터널이 있고, 그 끝에 대원사가 자리하고 있다.

대원사는 백제 무녕왕 3년<sup>503</sup> 아도화상<sup>阿道和尚</sup>이 세웠다고 전해지며, 고려 후기 원종 무렵 자진국사 원오에 의해 중건되었다. 이후 조선 영조 7년<sup>1731</sup>에 큰 불로 모두 불타버려, 4년간에 걸쳐 극락전을 비롯하여 16동의 건물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의 참화를 입었다. 모두 불에 타고 극락전만 남을 정도로 퇴락했다고 한다.

#### 봉소형국의 명당, 대원사

천봉산은 주암호 건너 솟아 있는 동소산과 함께 봉황에 얽힌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천봉산이란 이름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날아온 봉황이 터를 잡아주었다는 것으로 아도화상의 꿈으로부터 비롯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아도화상은 경북 선산군에서 몰래 불법을 전파하고 있었다. 신라 22대 지증왕이 배필을 구하기 위해 전국에 수소문을 했는데, 그때 아도화상이 신녀를 소개해 왕과 두터운 친분을 쌓았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신하들이 아도화상을 해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의 꿈에 봉황이 나타나서 슬피 울며 소리쳤다. “아도! 아도! 사람들이 오늘밤 너를 죽이고자 칼을 들고 오는데 어찌 편안히 누워 있느냐. 어서 일어나라. 아도! 아도!” 다급하게 외치는 봉황의 소리에 깜짝 놀라 아도는 눈을 떴다. 창밖으로 나와 보니 한 마리의 봉황이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놀라서 바라보고 있는 아도에게 봉황은 자꾸만 등에 타라는 시늉을 하였다. 머뭇거리던 아도는 봉황의 인도를 받아 광주 무등산 봉황대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도가 머무는 동안 화려한 날개짓을 하던 봉황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봉황이 꿈속에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불러 깨워 그곳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알게 된 아도는 그 고마운 봉황을 찾아 무등산, 조계산, 모악산, 모후산 등을 3년 동안 헤매다녔다. 그러다가 마침내 천봉산에 이르러 하늘의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의 봉소형국을 찾아내고 기뻐 춤추며 산 이름을 천봉산이라 하고 대원사를 창건하였다. 그 봉소형국의 명당 터가 오늘날의 대원사이다.

절집으로 들어가는 계단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는 사철나무에 커다란 왕목탁을 걸어 놓았다. 그런데 이 목탁은 머리로 쳐야 한다고 한다. 머릿속에 뭔가 안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면 삶의 고통스러우니 모든 걸 용서하고 지우는 마음으로 머리로 세 번 치라는 뜻이다.

위에서부터 대원사 벚꽃길, 극락전, 극락전 벽화



연못을 지나 연지문을 들어서면 극락전이 자리 잡고 있다. 극락전으로 들어서면 양쪽으로 벽화가 있다. 왼쪽에는 선재동자의 방문을 받고 있는 수월관음도, 오른쪽에는 신광선사단비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달마도가 그려져 있다. 이 달마도는 선종 제이조인 혜가의 설중단비 설화를 표현한 것이다.

극락전 왼쪽에는 자진국사 부도가 있다. 고려 원종 때 대원사를 중창한 송광사의 제5대 국사인 자진국사 원오<sup>圓梧</sup>의 부도이다. 극락전 오른쪽으로는 커다란 태안 지장 보살상이 서있다. 낙태된 어린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 조성된 야외 지장전이다. 주변으로 작은 동자승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데 각자 표정을 달리하고 있다.



### 대원사에는 티베트가 있다-현장스님

1987년 현장스님과 티베트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당시 스님은 인도 북부지역을 여행하다 ‘작은 티베트’라 불리는 라닥을 방문했다. 라닥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의 타임캡슐’이라 불리는 곳이다. 중국의 티베트 침공 때에도 해를 입지 않을 정도 히마라야의 오지이다.

불교문화가 온전하게 간직된 이곳에서 스님이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당시 티베트인의 정치적·종교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초크람사에서 묵이기도 중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참으로 편안하게 해 주었다고 한다.

스님은 이후 여러 차례 티베트와 중국, 인도, 몽골지역을 답사했다. 그리고 티베트 스님들을 대원사에 초청하면서 티베트 불교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어느 날, 28세 때 망명하여 어느 덧 예순이 된 한 망명 티베트 스님에게 물었다.

“그렇게 많은 동족을 죽이고 사원을 파괴한 중국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부모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분하고 괴로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 그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 군인은 잘못된 업으로 고통을 받게 될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20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고 고문으로 몸이 망가진 또 다른 티베트 스님은 “가장 괴로웠던 때가 중국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잃어버렸을 때였다.”고 답했다고 한다.

어느 덧 현장스님은 불교계에서 티베트 전문불자로 알려졌다. 슬라이드 강연을 시작으로 각 사찰에서 100여 차례 강연을 했다. 1998년 『티베트의 예술과 자연』이란 책자도 발간했고, 같은 해 티베트 불교미술특별전을 열기도 했다. 그의 티베트에 대한 열정은 마침내 티베트박물관으로 결실을 보았는데, 2001년 7월 8일 대원사 경내에 박물관을 개관했다. 제14대 달라이 라마로부터 개관축하 서신을 받았다. 달라이 라마는 서신에서 “많은 티베트 문화유산이 티베트 땅에서 파괴되고 있는 이때, 티베트박물관을 연다고 하니 무척 기쁘다”며 “불교도든 아니든 모든 한국분들께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관하기 한 달 전 대원사를 다녀간 주일 티베트 망명정부 대사 자툴린포체는 “티베트에도, 망명정부에도 없는 박물관”라고 했다.

이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이곳에는 티베트 불상과 경전, 천문·지리·의학·점성술 등 생활문화 전반을 기록한 탕카(티베트 불화), 밀교법구, 민속품 등 모두 1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대원사의 아기자기한 불상들과 티베트박물관

### 의향 보성의 뿌리, 죽천 박광전

#### 호남의 오현, 죽천 박광전

정유재란이 터진 1697년 겨울, 72세의 노구에 의병장으로 활약하던 죽천 박광전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사후 56년이 지난 1653년에 제자 안방준은 스승의 「행장」을 짓고 그 말미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호남은 본래 문헌의 고장으로 불렸다. 고려 말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학문으로 세상에 이름이 높았던 사람은 오직 하서 김인후, 고봉 기대승, 일재 이항, 미암 유희춘, 그리고 우리 선생뿐이다. 하서의 학문과 조행, 절의와 문장은 높아서 따를 수 없고, 고봉의 명쾌한 의논이나 일재의 강하고 굳세어 굽히지 않음이나 미암의 넓은 지식과 많은 문견도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이지만, 실천의 독실함을 논하자면 저 세 분 현인이 우리 선생과 견주어 누가 더 나은지 모르겠다. 다만 이름과 지위가 미치지 못하여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개탄하지 않으랴.”

이는 16세기 호남유학의 5현을 거론하고, 그 중에서 스승 박광전의 학문적 특징을 ‘독실한 실천력’으로 정리한 것이다.

박광전의 본관은 진원, 자는 현재, 호는 죽천이며, 보성군 조양리에서 진사 박이의의 아들로 태어났다. 조양리는 현재 보성군 득량면에 위치한다. 9세에 스승 홍섬으로부터 배운다. 훗날 영의정에 세 번 중임된 홍섬은 당시 김안로의 전횡을 탄핵하다 홍양에 유배와 있었다. 22세에 두 번째 스승을 만났다. 바로 양응정으로 그는 조광조의 시신을 수습한 양팽손의 아들이다. 31세에는 이항의 제자인 한운명과 1년 동안 경전을 토론했으며, 32세에는 보성 노동면 죽천에 정사를 짓고 과거공부 외에 ‘위기지학(爲己之學)’, 곧 도학과 주자학에 몰두했다. 그리고 34세 되던 1559년 봄, 천봉산 대원사에서 남언기와 반년을 강학하면서 「우계기」를 남겼다. 남언기는 이항과 김인후의 문하에서 학문했고, 22세 되던 1555년에 이항의 문하를 찾아갔는데 이항은 그를 ‘동방의 도학을 전수할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1566년 겨울, 그의 나이 41세에 퇴계 이항 문하에서 수학하기 위해 안동으로 떠난다. 안동은 천리 길이기도 하거니와 조선시대에 40대면 노인이다. 그는 안동 도산서당에서 한 철을 난다. 이듬해 정월 귀향하는 그에게 퇴계는 “만년에 좋은 벗을 만났는데 갑자기 헤어지게 되니 어찌 말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별시 다섯 수를 지어 마음을 전하고 그가 편찬한 '주자서 절요' 한 질을 선물했다. 죽천은 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을 묻고 스승은 답하는 서신왕래 문목<sup>문목</sup>이 86항에 달한다. 이 내용이 '퇴계집'에 전한다.

박광전은 1568년 증광회시에 진사 2등으로 합격했다. 이어 1571년 46세의 나이로 경기전 참봉을 맡으면서 드디어 출사한다. 헌릉 참봉을 거쳐 1581년 학문을 인정받아 왕자사부에 제수된다. 그는 사저에 있는 임해군(7세)과 광해군(6세)을 가르쳤다. 1583년 죽천은 함열 현감에 이어 회덕 현감을 지냈다. 백성을 다친 사람 살피듯 한다는 뜻의 '시민여상(視民如傷)' 4자를 동헌에 붙여놓고 일했지만 자주 상관의 뜻을 거슬러 결국 파직되었다.

## 전라좌의병을 일으키다

67세 되던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호남의 김천일·고경명, 경상도의 곽재우, 충청도의 조헌 등이 의병으로 나섰다. 그러나 담양에서 일어나 6천명의 의병을 모은 고경명이 금산전투에서 순절했다는 비보를 접하고서 창의격문을 쓴다.

“경상도와 충청도는 이미 궤멸되어 왜적의 소굴이 되었고 호남만이 겨우 한 모퉁이를 보전하여 군량의 수송과 정예병의 징발이 모두 이 한 도만을 의지하고 있으니, 국가를 일으켜 세울 기틀이 실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 격문이 도착한 날에 즉시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온 고을에 알리고 깨우쳐서, 군인들을 기록해 가지고 이 달 20일에 보성관아의 대문 앞으로 모읍시다.”

7월 20일 보성관아에 700여 명이 모였다. 당시 66세의 박광전은 와병 중이어서 임계영을 의병장으로 추대했다. 그러면서 장남 근효를 참모관으로, 차남 근제를 사병으로 출전시킨다. 이들과 제자 안방준의 활약으로 남원전투에서 승리하고 1차 진주성전투에 합류, 왜군을 물리쳤으며 경상도 성주·의령 등에서 공을 세웠다. 또 동궁(광해군)이 전주 분조를 이끌 때 병든 몸으로 달려가 민생안정, 군량확보 등 시사에 대해 언급할 만한 것 10여조를 올렸다.

1597년 정유재란에 왜적이 또 전라도를 침범하여 남원이 함락되고 길이 막혀 천봉산 골짜기에 은거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은 어른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망을 얻은 지 오래되었으니, 원컨대 의병장에 추대되어 여러 사람의 마음에 호응해야 합니다.” 하였다. 박광전은 “난리는 날로 급박해지고 병세는 날로 무거워지니 나는 장차 죽을 것이요. 그러나 한 줄기 목숨이 아직 붙어 있으니 맹세코 이 왜적들과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소.”라며 출사표를 던지며 의병장으로 나섰다. 그는 왜군을 무찌르고 화순 동북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한 달 뒤 병이 악화되어 숨을 거두니, 향년 72세였다. 훗날 좌승지에 추증되고 보성의 용산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강<sup>文康</sup>이다.

41세에 새로운 학문의 길을 떠나고, 66세에 의병을 모아 거병을 하고, 72세에 의병장이 되어 전장에 나서는 죽천 박광전. 그의 후손들 또한 ‘독실한 실천력’을 계승했다. 병자호란 당시 박광전의 손자인 16세 박춘수는 동생 박춘장, 사촌 박춘호, 아들 박진형과 함께 안방준이 이끄는 의병 창의에 참여했다. 후손 박태승은 동학 집주로 활약하였다. 박문용은 만주 봉천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선현의 문집과 유산을 보존하고 절의정신의 가통을 계승하기 위해 용산서원을 중건하고, 의병기념관을 건립해 의향 보성을 빛낸 777명의 영웅들을 후대가 기억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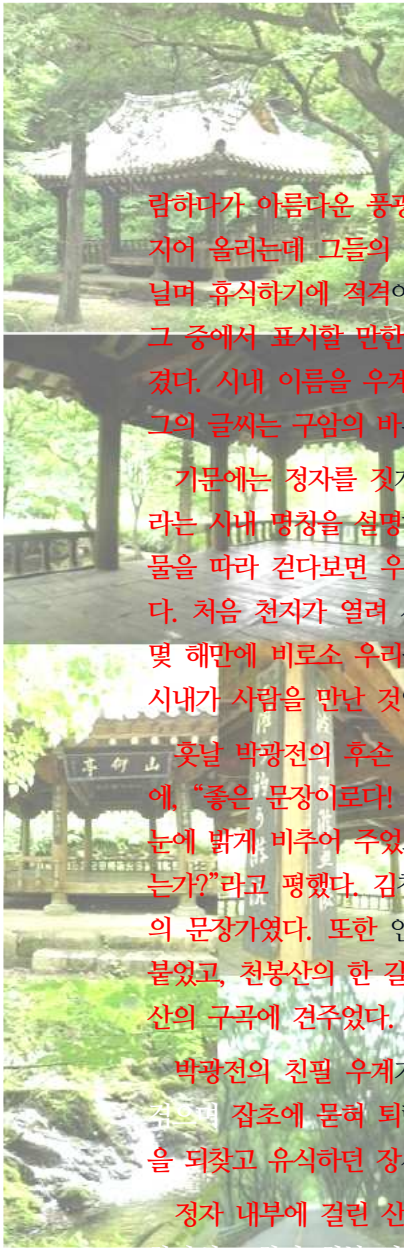
## 우계기, 그리고 산양정

천봉산과 대원사의 두 계곡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 바로 ‘우계’인데, 이곳에 산양정이라는 유서 깊은 정자가 자리하고 있다. 1559년 봄, 박광전과 남언기는 대원사를 유



(왼쪽부터 시계방향) 퇴계가 준 이별시, 죽천정, 퇴계가 선물한 필사본 『주자절요』, 용산서원 전경





림하다가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 계곡 옆에 정자를 하나 짓는다. 당시 대원사 스님 30여명을 동원하여 집을 지어 올리는데 그들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말술을 대접했다고 한다. 주변을 잘 다듬어놓고 보니, 은사가 노닐며 휴식하기에 적격이었다. 박광전과 남언기는 흥에 겨워 긴 시내를 따라 이곳저곳을 구경했다. 박광전은 그 중에서 표시할 만한 20곳의 경치를 골라 이름을 지으며 각각 의미를 부여하여 「우계기」라는 기문을 남겼다. 시내 이름을 우계라 부르고, 석공을 불러 열 번째 정자인 구암에 남언기가 쓴 글씨를 새겼다. 지금도 그의 글씨는 구암의 바위에 남아 있다.

기문에는 정자를 짓게 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계곡의 풍광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담겨 있다. 특히 우계라는 시내 명칭을 설명하는 부분이 백미이다. “만나다<sup>遇</sup>함은 무엇인가? 적막한 물가에서 무료할 때에 흐르는 물을 따라 걷다보면 우연히 시냇가에 이르러 뛰어난 경치를 얻게 되니, 이는 사람이 시내를 만난 것<sup>遇溪</sup>이다. 처음 천지가 열려 사물이 생길 때에 이미 지형이 뛰어난 곳을 갖추어 놓았건만 광채를 감추고 숨긴 지 몇 해만에 비로소 우리들에게 발견되니, 이는 시내가 사람을 만난 것<sup>溪遇人</sup>이다.” 사람이 시내를 만난 것인가, 시내가 사람을 만난 것인가?

훗날 박광전의 후손 박화석에게 우계기를 보여주자, 김창협은 두어 군데 오자를 수정한 뒤에, “좋은 문장이로다! 좋은 문장이로다! 그 말이 참되고 아름다워 한 시내의 맑은 경치를 몇 훗날 사람의 눈에 밝게 비추어 주었으니, 도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형식과 내용이 이처럼 환히 빛날 수 있겠는가?”라고 평했다. 김창협은 척하파의 거두였던 김상헌의 증손자이고 영의정을 지낸 김수항의 아들로 당대의 문장가였다. 또한 안방준의 손자인 안은은 “무이산의 아홉 구비 시내는 주자를 힘입어 그 같은 이름이 붙었고, 천봉산의 한 길래 시내는 죽천 박 선생을 만나 것처럼 일컬어졌다.”라며 천봉산의 우계를 중국 무이산의 구곡에 견주었다.

박광전의 친필 우계기는 후손가에 보관되고 문집 죽천집에 실려 후세에 전해졌으나, 우계는 오랜 풍상을 겪으며 잡초에 묻혀 퇴락함을 면치 못했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야 후손과 보성 유림들의 노력으로 옛 모습을 되찾고 유식하던 장서에 산양정<sup>山仰亭</sup>이 건립되었다.

정자 내부에 걸린 산양정기에 의하면 1929년에 죽천 박광전의 사상을 받드는 보성의 재야지식인들이었던 규용, 설주 송윤희, 낙천 이교천 등이 중수하는데 동참했다. 현판은 문신서화가요 벼슬이 예조·이조판서에 이른 해관 윤용구가 썼다. 그는 한일합방 후 일본 정부에서 남작을 수여하였으나 거절하고 서화와 거문고, 바둑으로 보내며 두문불출, 세사를 멀리하였다. 순천 선암사 입구의 강선루 현판, 전남 도내 정자 현판 등에 많은 글씨를 남겼다.

산양<sup>山仰</sup>은 ‘고산양지(高山仰止, 도학과 절의로 뛰어난 인물을 높은 산처럼 우러러 보는 것은 사람의 떳떳한 도리이다道學節義之爲人高山仰止秉彝也)’와 태산북두인개앙(泰山北斗人皆仰, 그러한 인물을 사람들은 태산과 북두성처럼 우러러 본다)에서 딴 것이라고 한다. 존경할 만한 선현을 사모할 때 쓰는 표현이다. 어느 경우이건 산양정은 박광전의 학문과 덕행을 받들고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보성의 학자·시인으로 산양정을 수축한 안규용, 송윤희, 이교천과 교류했던 담은 조병진이 박광전을 기리며 읊은 시가 전한다.

천봉산은 높고 물 절로 흐르고 / 선생은 모습은 천추에 남는다.  
 하늘이 내림 원액 그 글 중하고 / 귀신이 보호하는 바위 글 고적으로 남는다.  
 달빛 아래 다듬이 소리에 마을이 가깝고 / 구름 속 종소리에 절문이 그윽타.  
 해마다 향리 선비들 시를 짓고 / 녹음방초 좋아해 함께 노닌다.

### 답사지 이외의 보성의 역사와 문화

#### 1 미력면에 세워진 부조묘\_ 문익점

\*출처 : 이종범 편, 『나는 호남인이로소이다』, 사회문화원, 227~229쪽

문익점은 강성현 원당리 배양촌에서 태어났다. 현재 산청군 단성면 배양리이다. 호는 삼우당, 본관은 남평, 개국백 무성고 다성의 후손이다. 고려 중기 권문세족 가문으로 성장하였다. 태어나면서 왼쪽 어깨에 노란 점이 있어 아명을 익점이라고 하였다.

목은 이색의 아버지인 가정 이곡에게 배웠다. 1353년인 23세에 정동성향시에 급제하고, 1360년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의 나이 30세였다.

33세 되던 1363년에 원으로 사신을 가게 되었을 때 친원파가 반원정책을 추진하였던 공민왕을 폐위시키려고 책동하자 이에 저항하였다. 그는 구류되었다가 중국의 남쪽인 교지 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34세 때의 일이었다. 그리고 2년 만에 귀양이 풀렸는데, 그는 거기에서 목화씨를 가져와 장인 정천익과 함께 목화를 보급하였다. 그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문래·문영 두 아들이 실 뽑는 기계를 만들었고 또한 베 짜는 법을 개량하였다. 문익점 집안에서는 실 뽑는 기계를 ‘물래’라 함은 <문래>, 무명은 <문영>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귀국 후 문익점은 여러 높은 벼슬을 역임하였으나, 고려의 멸망이 다가오자 은퇴하였다. 과거에 합격한 그의 아들들에게도 관직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의 나이 62세 때에 조선이 건국되었다. 그리고 8년간을 더 살고 1400년에 70세의 일생을 마감하였다. 문익점은 고려에 의리를 지키고 역성혁명에 불복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왕조의 왕들은 문익점을 존중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문익점을 ‘의로운 선비’로 칭송하고 그가 외병 중임을 알고 ‘예부’를 시켜 문병하도록 하였다. 정종은 문익점의 장례에 예물을 내렸으며, 제전을 하사하였다. 묘사를 세우고 묘직호로 4호를 배정하였다.

문익점에게 가장 후의를 가졌던 왕은 태종이었다. 태종은 충선공의 시호를 내리고 조상의 신위·신주를 다른 사당에 옮겨 제사하지 않는 부조묘, 즉 불천지묘를 건립토록 하였다. 부조묘는 본시 그가 살던 산청에 세워졌다. 여기에 100결의 토지와 노비 70명을 하사하고 ‘고려충신지문’의 정려를 세우게 하였다. 세종은 영의정을 추증하고 ‘부민후’에 봉하였다.

고려에 충성하면서 조선을 따르지 않았던 문익점에 대하여 이처럼 대우하였음은 문익점이 조선국가의 국시가 된 성리학을 보급함에 있어서 이색·정몽주와 더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사실과 고려의 충신을 존중함에 조선국가의 충신이 생겨난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봉호의 뜻이 ‘백성을 부자되게 한다’는 의미인 것을 보면 이전까지 부자는 명주, 모시, 삼베를 입고 백성은 ‘동물가족’ 옷을 입었던 의류생활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는 공덕을 높이 샀던 점이 주요할 것이다. 삼한시대에도 면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면 문익점이 들여온 면화는 ‘숨이 많고 재배하기 쉬운’ 개량면화였을 것이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사손이 끊기게 되고 부조묘는 황폐화되었다. 영·정조대부터 삼남의 여러 선비와 문중에서 사손을 세울 수 있도록 거듭 청원을 올렸다. 그러하기를 150여 년 전, 마침내 1854년, 부조묘 제사가 끊긴지 250년 만에 부조묘가 다시 건립되고 제사가 이어지게 되었다. 이때 부조묘는 사손 문병렬이 살던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에 세워지게 되었다.

토정 이지함은 나라가 문익점의 공덕에 무관심함을 다음과 같은 시로 남겼다.

베짜는 아낙네들 집집에서 화평가를 부르는데  
지금토록 오막집에서 강성군 제사 올린다  
아아, 어이타 임의 미약한 후손은 다만 평민으로 지내어  
나라에서 작은 영화도 주지 않고 있을까

문익점을 배향한 서원, 사우로는 산청군 삼우사와 도천서원(서원 철폐 후 노산정사로 바뀜)을 비롯하여 장흥군 월천사(강성서원), 황해도 송화현의 삼봉서원, 창평의 운산서원, 의성현의 봉강서원이 있다. 1928년에는 나주 남평면 풍림리 장자산 기슭의 장연서원에 배향하고, 1935년에 장성 유림들이 장성 만수산 아래의 경현사에 배향하였다. 고려 말 선현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그런데 일제하 고려 충신을 추모하는 분위기는 '조선의 멸망'이 충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역사인식이 깔려 있다.

## 2 전라좌의병대장, 임계영

\*출처 : 안진오·오종일·최대우 외, 『호남의 유학자들』, 전남대학교출판부, 311~315쪽

임계영은 자는 홍보요, 호는 삼도이며, 본관은 장흥이다. 조선조 임진왜란 때 전라좌도 의병장이다. 아버지는 진사 국담 희중이요, 어머니는 김해김씨로 진사 규의 딸이다. 장흥에서 보성으로 이사하여 보성 대곡에서 태어났다.

삼도는 어려서부터 자품이나 재기가 비범하였고 글을 한 번만 봐도 문득 외우고 그 대의를 생각하지도 않고 문득 깨우치는지라 신동이라 지목하였다. 형 만영, 천영, 백영, 정영 그리고 동생 말령 등 6형제가 모두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문장 가운데서도 특히 변려문에 특징이 있었다.

삼도는 문장뿐 아니라 무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또한 효심이 지극하여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나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는 3년 여묘를 살면서 한 번도 집에 간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전라도 유생들이 보성군의 선비 안중홍, 정길 등과 함께 삼도의 효행을 당시 전라도 감사였던 정철에게 알려 정철이 장문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포전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는 공명을 급히 여기지 않고 집안 자제를 훈도하는 일로 지냈다. 1577년 49세에 비로소 문과 별시에 합격하였으며 진보현감을 지내다가 임기가 차자 이내 고향으로 돌아와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1592년 64세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의병장 고경명이 금산에서 패했다는 말을 듣고 임계영은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을 곳을 얻었다'고 말하고는 왕자사부 박광전, 전정자 정사제, 장흥 진사 문위세, 능성



현감 김익복 등과 더불어 동년 7월 20일에 보성 관문에 모여 격문을 각 고을에 보내어 의병 수백명을 모집하였다. 박광전이 병으로 군사를 거느릴 수 없어 임계영을 대장으로 삼았다. 그는 박광전의 아들 근효를 참모로 삼고 정사제를 종사관으로, 문위세를 양향관으로 삼았고, 순천에 이르러서는 순천부 수성장 장운을 부장으로 삼았고, 남원에 이르러서는 남원부사 윤안성이 군비를 힘껏 도와 병사 1,000여 명을 얻어 군세를 크게 떨쳤다. 이에 호자를 장표로 삼고 좌의병장이라 칭하였다.

이때 마침 우의병장 최경회가 군사를 이끌고 남원에 이르자 두 군사는 합세한 후 장수에 진군하여 금산, 무주, 진안으로 쳐들어오는 왜적을 막았다. 당시 왜적은 장수를 거점으로 하여 개령, 금산 등으로 통하기도 하고 거창을 통하여 침략하거나 퇴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를 전라좌우 의병은 전면전을 펼치지 못하고 지형지세에 의한 작전, 매복을 통한 기습공격으로 무주, 금산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전승을 올렸다. 그 결과 왜적은 금산성에서 성주, 개령 방면으로 퇴군하였고, 무주에 있던 왜병 역시 같은 방향으로 퇴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황에 따라 전라도의 적세는 약화된 반면 경상도는 더욱 치성하게 되었다. 그러자 동년 10월에 정상우감사 김성일이 공조정랑 박성을 보내 진주성이 포위되어 위급하니 와서 도와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일부의 반대도 있었으나 전라좌우 의병은 출병을 결의하는 한편 행재소에 글을 올려 호종하지 못하는 불충을 아뢰기도 하였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전라좌우 의병은 경상도 의병 김면군과 연합하여 개령 공격전을 전개하였고, 11월 중순 이후에는 좌우 의병이 나뉘어 우의병은 김면군과 개령에서, 좌의병은 정인홍군과 더불어 성주에서 수복전을 펴기 시작했다.

11월 중순부터 계속된 성주 싸움에서 왜장촌상경친이 중상을 당하면서부터 적세가 크게 꺾였다. 이때 전라좌의병은 정인홍군 및 그 밖의 관군과 함께 총공세를 펴기로 하였으나 정인홍을 비롯한 여타 경상도 군사들이 약속을 어겨 참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라좌우 의병만은 공격을 감행하여 왜적을 대비하는 큰 공을 세웠다. 그 결과 왜장 계원강은 성주에서, 모리휘원은 개령에서 각각 몇 기의 잔여병만을 거느리고 철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좌의병의 별장인 소상진, 남양길 등은 추격전을 펴다 전사하고 말았다.

이때 조정에서는 서울을 수복하고자 여러 의병을 모집하여 철군토록 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곽재우·최경화·임계영 군이 가장 뛰어난 의병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급히 근왕토록 하자는 비변사의 결의도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 전라도 체찰사 정철은 좌우 의병장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로 향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상도 유생들의 상소, 특히 경상우도 관찰사 김성일의 반대로 중지하게 되었다. 어떻든 전라도 의병이 경상도 지방에서 물러가리라는 소문이 퍼지자 그 지방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여기저기 숨는 자들이 잇달았다. 이러한 사실은 전라도 의병이 영남지방 방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한가를 짐작하게 한다.

1593년 6월 19일에 왜적의 진주성 공격이 시작되었다. 왜적이 진주성을 공격의 목표로 삼은 것은 지난해의 패전을 설욕하고자 하는 뜻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진주가 호남으로 통하는 요충지라는 점에 있었다. 즉 진주를 함락시킴으로서 전라도 곡창지대를 차지한다면 전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전황이 이렇게 되자 도원수 김명원, 순찰사 권율, 의병장 곽재우 등이 이끄는 영남의 의병과 관병은 대부분 방관하거나 퇴군의 자세를 보이거나 하였다. 그러나 전라 의병장 김천일과 최경회, 그리고 충청병사 황진 등은 이에 반대하고 결사고수를 주장하였다.

이때 전라좌의병은 의령에 주둔하였다가 곧바로 진주성으로 향하였는데 임계영은 부장 장운으로 하여금 병사 3백여 명을 이끌고 진주성에 들어가 사수하게 하고, 그 자신은 군량과 군비를 조달한 후에 입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임계영이 진주성에 들어왔을 때에는 왜적이 이미 성을 포위한 이후인지라 그는 결국 입성하지 못하였다. 진주성이 함락되자 그는 같이 참전하지 못한 것을 평생의 원한으로 여겼다.

임계영은 잔병을 수습하고 다시 훈련봉사 최억남을 부장으로 삼아 요새처에서 왜적을 지켰다. 10월에 어

가가 서울에 돌아오자 그는 의병과 왜병의 군정, 진주성 함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진주성 사육에 신은 부장 장윤으로 하여금 군사 3백을 거느리고 지키게 하고 신은 밖에서 병사와 군량을 조달하여 돕고자 하였으나 불행히 진주성이 함락되어 정병이 모두 죽었으니 통탄스럽습니다. 신은 부득이 같이 죽지 못한 것을 원통하게 여기고 남은 힘이나마 바치고자 하동에 있으면서 호남의 경계를 막고 있습니다.”

1594년 세자 광해군이 전주에 머물자 박광전은 “보성과 장흥에서 의병을 일으킨 자는 모두 좌의(左議)병에 소속시키도록 하고 군량을 도와주도록” 상언하였다. 이때 왜적은 거제로 들어가 웅거하였고, 임계영은 부장 최억남과 하동에 있었는데 그는 기병을 내어 고성(高城) 거제에 매복시켜 왜적을 소탕하였다. 4월에 여러 도의 의병을 모두 김덕령에게 소속토록 하는 명이 내리자 모든 군사를 귀의토록 하였다. 9월에 양주목사에 제수되고 1596년 정월에 정주목사로 옮겼다가 바로 장단부사가 되었다. 이후 해주목사를 거쳐 순창·양주군수를 역임하였다.

정유재란 때에 임계영은 늙고 병이 들어 거의하지는 못하고 시를 지어 자신의 회포를 술회하였다. 그는 이 시에서 다음과 같이 답답한 울분을 펴보였다.

젊은 시절 태평하더니 / 늘그막에 전쟁이로다 / 창강의 백조야 / 너와 더불어 지낼 수밖에

임계영의 전후 행적이나 교명, 기타 저술은 병란에 모두 잃어버리고 구전되어 오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 후 1974년 조경남의 『난중잡록』과 김성일의 집에서 임계영에 대한 유적 수편을 뽑아 『삼도실기』라는 제호의 책을 간행하였다.

### 3 안방준, 절의를 나라의 원기로 삼은 진유眞儒

\*출처 : 이종범 편, 『나는 호남인이로소이다』, 사회문화원, 248~252쪽

안방준의 자는 사언, 호는 빙호자·우산·은봉·매환옹, 본관은 죽산으로 보성군 오아리(현 보성읍 우산리)에서 태어났다. 생부 안중관은 진사로서 초야에 문혀 세상을 마쳤고, 생모는 진원박씨로 박이경의 딸이다. 꿈에 옷을 잘 차려입은 장자가 세 번이나 찾아와 아이를 낳았는가 하고 물은 이채로운 징조가 있어 처음에는 삼문이라 불렀다고 한다.

8세 되던 해에 안중돈의 양자로 들어갔으나, 그가 이미 죽은 뒤였기 때문에 생부의 보호를 받으며 가정에서 유가의 경전을 공부하였다. 11세에 이황의 제자 박광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9세에는 파주로 성훈을 찾아가 제자의 예를 갖추었다. 성훈은 손수 쓴 ‘구방십’이라는 글자와 손수 추려 만든 『위학지방』이라는 책을 주면서 학업을 격려했고, 경연의 기사 및 당시의 시사를 기록한 이이의 『석담일지』를 잘 보관하도록 부

탁하기도 했다.

20세에 임진왜란을 당해 스승 박광전을 따라 의병을 일으켰으며, 체찰사 정철을 찾아가 국가의 기무를 사리에 타당하게 논란하였다. 그는 왜란이 진행 중이던 24세에 「진주서사」를 기술한 것을 필두로 말년에 이르도록 심혈을 쏟아 「호남의록」과 「임진기사」 등 많은 사적을 기록하였다. 이를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진주서사」 (1596년, 24세); 계사년에 왜적이 호남을 곧장 공격할 계략으로 수만 대군을 동원하여 진주성을 공격해오자, 창의사 김천일, 병사 최경회 등이 혈전을 벌이다 중과부적으로 성이 함락되고 군이 함몰한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 ② 「임정충절사적」 (1615년, 43세); 임진·정유년에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 및 김여물·유극량·이종인·이잠·고득파·신호 등 8인 충절사적을 수록하고 있다.
- ③ 「삼원기사」 (1615년, 43세); 이진왜란 때 김덕령 장군, 김응희 별좌, 김대인 의장이 무고를 당하여 원통하게 죽은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 ④ 「호남의록」 (1616년, 44세); 호남의 충절 최경회·정운·백광인·소상진·황진·장운·김경노·안영·유팽로·양산·숙·문홍헌·최희랍·강희열·오비·김인혼 등 16명의 의병기록을 실은 것이다.
- ⑤ 「백사논임진제장사변」 (1633년, 61세); 백사 이항복이 왜란 중의 전과나 전황을 기록하면서 그 공좌·시비·우열에 대한 평이 명확하지 못했으므로, 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과 논변을 붙인 것으로 매우 주목되는 글이다.
- ⑥ 「부산기사」 (1644년, 72세); 좌수사 이충무공의 전공과 녹도만호 정운이 부산해전에서 순절한 사실을 기록한 글이다.
- ⑦ 「노량기사」 (1645년, 73세); 무술년<sup>1596</sup>에 통제사 이충무공이 노량에서 왜적을 대파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사실을 기록한 글이다.
- ⑧ 「임진기사」 (연대 미상); 이이의 양병론, 조현의 절왜론, 김천일의 방어책 등이 채택되지 못하여 마침내 임진왜란을 겪게 되었다는 원론적인 배경을 정리한 글이다.

그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충절들의 사적을 발굴하여 후세에 전하려 한 것은 아마도 충신·절사의 열렬한 행적을 기록하여 보존하는 일이 세교를 세우는 커다란 밑거름임을 자각한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이귀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국가에 절의가 있음은 사람에게 원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원기가 있으면 비록 심한 병에 걸리더라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처럼, 국가에 절의가 있으면 비록 크게 어지럽더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존망은 오직 절의를 붙잡아 세우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39세 되던 1611년에 가족을 이끌고 서울 낙산의 매계동으로 이사하여, 금산전투에서 순절한 조현의 유문을 모아 『항의신편』을 편찬하였다. 이 글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자신의 식견과 사상을 널리 알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광해조를 혼란으로 몰고 간 이이첨 등이 자주 관직으로 유혹하며 출사를 종용하였으므로 ‘빙호추월’의 청렴결백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42세 되던 해 가을에 우산으로 낙향하여 은둔하였다.

53세에 인조반정이 성공한 뒤, 조정에서 동몽교관·사포서 별제·오수도 찰방 등의 벼슬을 내렸으나 나아가지 않고, 반정공신 김환에게 몇 가지 충고가 담긴 시급한 서신을 보냈다. 충신과 현인에게 포상하는 은전을



서둘러 호헌상의하는 기풍을 진작할 것, 온힘을 다해 편당을 조정할 것, 인재를 널리 등용하여 공을 앞세우고 사를 뒤로 할 것, 인심을 수습하고 군병을 훈련시켜 오랑캐의 침략에 대비할 것, 수령의 탐학을 금하여 민생을 살찌울 것 등등.

55세에 그토록 경계했던 오랑캐의 침략(정묘호란)이 현실로 다가오자, 의병을 일으켜 근왕의 의기를 높이 세웠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주화론이 채택되어 청과 형제의 맹약을 맺고 즉각 의병을 파할 것을 명하니 해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63세 되던 1635년 봄에는 능주 쌍봉동으로 거처를 옮기고 『혼정편록』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선조대의 동서분당 이후 사론이 갈라져 올바름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이이와 성혼 두 선생을 비방하여 혈통음이 끊어 없었는데, 그는 시비는 한 때 혼잡하나 공론은 백세에 저절로 정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1575년부터 1650년까지 약 70여 년간에 걸친 조야의 시시비비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모아 편집하고 여기에 시비사정의 대략을 정리하고 있다.

64세 12월에 청태종이 병자호란을 일으키자, 동지들과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격문을 띄웠다.

“국운이 불행하여 오랑캐가 돌진하여 오니 대가는 남한산성 한 모퉁이로 피난하였으나 포위를 당하게 되었다.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의 통탄을 차마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주군이 옥을 당하니 신하가 죽어야 할 때를 당해 누구든 분의하여 국난에 임할 뜻이 없으리오. 이에 장차 의병을 일으켜 성세에 만의 하나라도 돕고자 하니 힘을 모을지어대!”

이듬해 정월에 의병대장이 되어 수백 명의 의병을 이끌고 여산에 이르렀을 때 남한산성의 포위가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통공하며 돌아왔다. 척화파 김상헌 등의 주장이 꺾이고 주화파 최명길 등의 주장이 채택되어 마침내 성문을 열고 항복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는 10여 년 뒤 자신을 찾아온 송시열에게 당시 괴로웠던 심정을 시로 들려줬다. “통곡하노라! 그때 그 일을 내 장차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한 평생 강개한 눈물을 오늘 그대를 위해 뿌리네.”

69세에 동북에 새로운 집터를 잡고 『기묘유적』이라는 중요한 저술을 집필하였다. 『기묘유적』은 기묘사화 때 조광조 등 8현이 간혹의 모함으로 참혹한 화를 당한 사실의 전말을 밝힌 것으로, 중종 10년<sup>1515</sup> 김정과 박상이 단경왕후 신비의 복위를 상소하여 청한 일로부터 광해군 3년<sup>1611</sup> 조광조가 문묘에 배향될 때까지 근 백년에 걸쳐 대의를 밝힌 글이다.

71세에 「우산문답」을 저술하여 자신의 진유관을 피력하였다.

“옛날 사람들은 절의가 학문 가운데에 있었으니, 오늘날의 사람들은 절의가 학문 밖에 있다. …… 우리 동방의 학문은 정포은과 권양촌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학문을 논한다면 양촌이 포은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그 절의를 논하자면 양촌은 불만한 것이 없다. 우리 조정에 이르러서도 그 폐단이 아직 남아있어 학문과 절의를 나누어 둘로 여긴다. 그리하여 명현이 비록 많아도 진유는 적은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능히 분별하지 못한다.”

학문이 생명력을 지니고 살아 있는 학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역사적 관계 속에서 윤리적 당위인 절의를 적절하게 실행해야만 하며, 그래야만 배운 것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참된 유학자 즉 진유의 명성을 얻게 됨을 밝혔다.

74세 되던 해 11월에 다시 쌍봉동으로 돌아와 두어 칸 띠집을 지어 은봉정사라 불렀다. 포은 정몽주와 중봉 조현 두 선생의 충효절의를 지극히 사모하여, 그들의 호에서 끝 자를 한 자씩 따서 편액으로 붙인 것

이다. 그는 이곳에서 서봉령·양주남·이위·정암·김여용 등 많은 제자들과 성리학을 강론했으며 예학을 실천했다.

진유의 삶을 희구했던 그는 82세를 일기로 은봉정사에서 숨을 거두었다. 처음에 보성 죽방동에 묻혔다가 나중에 동북현 갈학동(현 화순군 남면 복교리)에 이장되어 영면하고 있다. 그의 부음을 들은 효종은 예조에 특명하여 부의를 보내도록 했으며 숙종은 사제문을 내렸다. 저서로는 『은봉전서』가 있으며 보성의 대계서원, 능주의 도산사, 동북의 도원서원에 배향되었다. 1821년에 문강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 4 최대성, 도망군관이 되어버린 모의장군

\*출처 : 이종범 편, 『나는 호남인이로소이다』, 사회문화원, 242~247쪽

최대성은 보성군 사곡리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경주이고 첨정 한손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훈련원정에 이르고 정유재란 통제사 이순신의 휘하에서 공을 세우고 또한 의병을 일으킨 공이 있었다. 영조 때에 참의로 추증되었다.

모친이 사곡촌 주산인 초암의 토굴 아래 샘에서 물을 떠서 먹고 그를 낳아다고 하여 어릴 때 이름을 수득이라 하였다. 후일 사람들은 그 샘을 장군정이라 불렀다.

어릴 때 천자문·사략·소학 등을 익혔지만 무인의 기질이 두드러져 ‘조죽위궁’하는 놀이를 하곤 하였다. 죽천 박광전에게 배웠다. 죽천은 이 퇴계의 제자로 보성에 살면서 안방준, 장사제 등의 많은 제자를 키운 당대 명유였다.

17세에 덕산군수를 지낸 박이성의 딸과 혼인하였다. 부인은 죽천의 종매이다.

그는 문창후 최치원의 후예가 됨을 자부하였던 듯하다. 19세 도던 해에는 병으로 중도에 돌아오고 말았지만 문창후의 진영을 보러 경주로 떠난 적이 있었다. 그리고 1578년 26세 때에는 서울을 다녀오는 길에 경주로 가서 부운촌에 있는 선조묘에 참배하였다고 한다.

그는 여행을 좋아하였다. 일찍이 전라감영이 있던 전주로 보성의 벗들과 관광을 하였으며, 광주 서석산(무등산)에 올라 풍일대, 규봉암을 10여 일 간이나 다녔으며 도중에 김덕령 집에 투숙하기도 하였다. 이때가 1579년 나이 27세였다.

그는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였다. 노불을 ‘적멸-공공’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마을에 사곡정사를 세우고 과업을 준비하고 또한 뜻 있는 명사들과 어울렸으며 신의계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훗날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송용호나 1578년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전라병사를 지내다가 경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선거이 등이 사곡정사를 찾았다. 보성군수도 정사를 방문하였다. 또한 그의 모친의 상에 군수가 예물을 가지고 부의한 것으로 보면 그의 가문이 보성의 현족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는 33세가 되던 1585년 무과에 합격하였다. 병과 제4인이었다. 그는 귀향 길에 금강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붓을 던진 서생이 출신하니  
청천 대도에 연붉은 먼지로다  
장부가 어찌 시골 밭의 노인으로 머물 것인가?

맹세코 바람을 타고 일어서서 낭인을 파하리라.

나이 40세가 되던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이에 참전할 수 없었다. 그의 부친이 위독하여 마침내 그 해 8월에 별세하였기 때문이었다. 임진년에 보성에서는 선거이나 손옹호 외에도 그와 교류하던 별장 소상진과 좌의장 임계영은 호남좌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성주성 전투에서 순절하였다. 이때 그는 더욱 ‘무릎을 치며 탄식’하였다.

이듬해인 1593년에 ‘연사’ 즉 ‘군대훈련의 일’을 보았다.

1597년 2월 일본이 재차 전면공격을 하였다. 전라도 땅을 일본군이 휩쓸었고 관군은 힘없이 무너졌다. 그는 향병을 모아 대항하여 광양·순천·낙안·홍양 등지에서 전투를 하였다.

이순신은 그에게 모의장군의 기호를 내리고 군관으로 대동하였다. 한산전투에서는 한후장으로 삼았다. 이때 참퇴장 배응록, 이언, 김효성과 함께 힘을 합하여 왜병의 큰 배 두 척을 부수고 불태우는 전공을 쌓았다. 그리고 홍양의 망저포와 첨산에서도 싸웠다.

1697년 6월에는 아들 언립과 후립으로 더불어 안치(기러기재)에서 싸웠는데 용기를 분발하여 몸을 돌아보지 않고 전진을 하여 칼날을 휘둘러 거의 적의 우두머리를 베려는 순간에 날아온 탄환이 가슴을 뚫어 목숨을 잃었다. 그의 나이 45세였다.

그의 두 아들 언립과 후립은 이후에도 전투에 참가하여 1605년<sup>천조<sup>38</sup></sup>에 각각 선무원종훈을 받았다. 그런데도 그의 충절을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1646년 11월에 호남 당대의 거유인 은봉 안방준을 소두로 한 상서가 올라갔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의 충절에 대하여 벼슬을 더하고 정려를 세워야 한다는 사람의 청원이 이어졌다. 그러기를 백여 년 1752년 4월에 들어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통정대부 형조참의’로 증직하는 교지가 내려졌다. 그리고 정충사에 배향하였다.

최대성의 충절은 왜 늦게 인정되었을까?

앞서 정리했듯이 『모의장군최공창절록』의 「연보」를 비롯한 「안방준의 상서」, 「호남의록」 등에는 최대성이 임진년에는 부친상으로 참전하지 않았으며, 정유년에 들어서 여러 전투에 참가하여 공을 세운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최대성이 이순신의 막하에 활동한 것도 모두 정유년의 일로 정리하였다. 한산대첩에서 공을 세운 일도 정유년 사실로 보고 있다.

그런데 『창절록』의 부록에 있는 두 아들의 사적을 보면 “임진란을 당하여 대인공(최대성)이 의려를 불러 모아 이충무공 막하에 들어가 한후장이 되어 적을 무찌르다 … 9월에 참정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병으로 임종하였다”고 하며 5년을 전장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절이 나온다. “정유년에 대인공의 귀향하여 의려를 모아 변방의 적을 막았다. … 6월에 이르러 안치에서 … 별세하였다. … 8월에 이충무공이 다시 통제사가 되어 진주에서 순천을 지나 보성에 이르러 모의공이 순절하였다는 소식에 ‘내가 다시 호남에 와서 믿을 자 누구인가…’하고 탄식하였다고 한다”고 적혀 있다.

이에 의하면 최대성은 임진왜란 초기 이순신의 막하에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순신이 최대성에 내렸다고 하는 모의장군의 기호도 이때 내렸다. 이 또한 「연보」 등에는 정유년의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바로 의병을 일으켰다면 그때 이순신은 모함으로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 직책이 없는 백의장군으로 지내고 있어 기호를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 통제사가 되었을 때에는 최대성은 순절한 이후이다. 그렇다면 모의장군의 기호는 전라좌수사 때 이순신이 의병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내린 기호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왜 「안방준상서」나 「연보」 등에는 최대성의 전공이 정유년에 한정되었는가?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 그의 두 아들의 사적에서 임진년 일이 언급되고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가?



1598년<sup>현조31</sup> 4월 20일의 사헌부가 아뢰는 말에 이런 문구가 나온다.

“신들이 통제사의 군관 현응신·윤사충·진몽일·오대가·최대성 등의 도피 공사를 추고하였더니, 병조가 지난해 10월에 통제사 이순신의 장계에 의하여 각도에다 공문을 발송하여 그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체포한 다음 이순신에게로 압송하여 모두를 군율에 의해 처단하도록 계하받아 행이하였는데, 4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잡아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병으로서는 마땅히 감사를 추고하도록 청하고 독촉해서 잡아내어 그들을 군문으로 계송하여 대중 앞에 효시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금년 1월에 와서는 그들의 죄가 지금으로서는 꼭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니 그들을 잡아들여 국문한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죄를 정해야겠다는 것으로 다시 아뢰어 전쟁에 임해 도주했던 자들을 즉시 효시를 못하게 만들었으니, 극히 통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조의 당상과 색낭청을 모두 추고하소서. 그리고 종전 공사대로 그들을 통제사 이순신에게로 계송하여 그 중 정범이 더욱 심한 자를 골라내어 법대로 처단하게 하소서.”

이를 정리하면 ①병조에서 통제사 휘하의 도망 군관 5인을 통제사 진영에서 처단할 수 있도록 잡아들이라는 공문을 각도에 내린 것이 1597년 10월이었으며, ②이 공문은 통제사 이순신의 장계에 의한 것이고, ③그런데 각 도가 이들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1598년 1월에 병조는 선조에게 ‘도망간 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처리할 것을 주장하여 윤험을 받았고, ④이에 1598년 4월에 사헌부가 도망자 처리 방침을 바꾼 병조 당상과 낭청을 추고할 것을 임금에게 상언한 내용이었다.

이에 의하면 최대성은 도망 군관 5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통제사 이순신은 1597년 6월에 죽은 최대성을 군무이탈자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러한 보고가 가능한 것이었을까? 주지하듯이 통제사 이순신은 1597년 1월 파직을 당하여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무고의 혐의를 벗고 4월 1일 석방되어 도원수 권율 휘하에서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가 된 것이 8월 3일이었다. 그리고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것이 8월 15일이었다.

이후 이순신은 전열을 정비하고 전함을 새로 짓고 군사를 모으며 고하도, 고금도 등지로 통제사영을 옮기면서 수군의 전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단숨에 한산도 시절의 전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위에서 인용한 5인의 도망 군관에 대한 이순신의 장계는 이때에 올라갔을 것인데 이순신은 한 때의 자신의 군관인 최대성이 나타나지 않자, 그의 사망을 모르고 이를 도망으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순신이 수군통제영을 복구하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지방을 순시하는 과정에서 보성을 순시하다가 최대성의 사망 소식을 듣기 이전이면 당연히 그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여튼 조정에서는 충무공의 장계에 의하여 최대성을 도망자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최대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공을 제시하면서 왜 구태여 정유년간에 한정하였을까? 이 충무공의 장계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해가고자 함이었는가? 아니면 통제사 이순신의 휘하에서 도망가지 않았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는가? 이 문제는 다른 자료와 면밀히 검토할 일이다.

「충무공이공순신동순제공사실」에도 최대성에 대하여 ‘기유에 무과하고 정유에 이충무공막을 따라 한후장이 되고 한산에서 대첩을 하였다. 또한 송대림·김덕방·황우복과 더불어 예교 침산 등에서 싸워 이기고 또한 두 아들 언립, 후립을 데리고 항병 수천을 모아 본군의 안치에서 싸워 수백 명을 참수하였으나, 총알에 맞아 죽었다. 두 아들도 서로 따라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5 영광정씨 가문의 한 많은 가족사

### 1. 정해룡\_ 중도 민족주의와 혁신계

\*출처 : 안종철·최정기·김준·정장우, 『근현대 형성과정의 재인식 (1)』, 중원문화, 128~333

1913년 전남 보성 출생

1947년 근로인민당(여운형) 중앙위원

1960년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

1961년 5·16쿠데타 직후 ‘특수반국가행위’라는 죄목으로 구속됨

1967년 대중당(서민호) 전당대회 의장 겸 정치훈련원장

1969년 사망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현실은 단지 통일을 주장하는 것조차도 용공분자로 낙인찍힐 정도로 중도세력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런 왜곡된 현실에서 평생 중도 민족주의노선만을 추구하다가 한 번도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사라져 간 사람들이 있다. 그 중 전남 지역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봉강鳳崗 정해룡丁海龍이다. 그는 일제하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도주의자요, 민족주의자였으며, 해방 후에는 몽양 여운형을 존경하며 따르는 정치인으로 통일운동의 맥을 잇고자 노력한 혁신계 인사였다.

그는 1913년 7월 2일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에서 정종익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봉강리에서만 13대를 이어 내려온 영광 정씨 문중의 종가로, 할아버지 대에 가산을 일으켜 1년에 3000석을 수확했다는 천석지기 부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7세 되던 해에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했다. 완고한 할아버지는 집에 독선생을 모셔 놓고 그에게 한학을 가르치면서도, 신학문을 접할 기회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도 당시 성행하기 시작한 서양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결국 1929년부터 와세다 대학 강의를 통해 그것을 배우기 시작해 소정의 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그의 동생인 정해진에게 신학문을 익히게 하여 경성제대를 거쳐 동경제대 대학원까지 수료(철학 전공)하게 했다.

아마도 이렇게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그는 민족의 현실과 인간에게 눈을 뜬 것 같다. 그는 17세 이던 1929년 대흥년이 들어 인근에 아사자가 속출하자 조부 명의로 곡식 수백 석을 면민에게 희사했다. 이와 같은 공민에 대한 구휼활동은 이후 1943년의 대흥년 때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1930년대 초반 인촌 김성수가 방문해 보성전문에 기부금을 부탁하자 조부 명의로 논 200두락을 희사하기도 했다.

정해룡이 본격적으로 현실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중반이었다. 이 무렵 그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이미 서울에서 공산주의운동에 뛰어들었던 그의 동생과 회천면 인근에 훌륭한 선생으로 인망이 높던 윤승원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항일운동과 민족교육의 후원자로 자금 지원을 하는 한편, 직접 항일운동가로 나서기도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그의 최초의 사회운동은 1938년 향리에 설립한 양정원(현 회천서교)이었다. 평소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그는 윤승원과 의 만남을 통해 그 꿈을 실현할 계기를 만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소유인 향리 어귀의 땅 200평에 사비를 들여 건물을 짓고, 학생들을 모집해 무상으로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양정원은 그가 원장을 맡아 운영을 전담했고,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윤승원이 책임지는 구조였다. 또한 그는 1940년 무렵부터는 항일운동가들과도 자주 회합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했으며,

또한 동생을 통해 국제공산당에도 자금을 기부했다. 이러한 사실은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지만 후일 그와 함께 활동했던 인사들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는 자신의 부를 배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다. 그가 최초로 만든 사업체는 보성인쇄소이다.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41년 판에 따르면 1934년 12월 28일에 설립된 보성인쇄소는 자본금이 2만 5000원으로 신문사를 제외하고는 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였는데, 대표취체역이 정해룡이었다. 또한 1942년에는 울산에서 철광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1940년대 초반 정해룡은 총독부 개척 단원으로 신분을 위장해 만주를 방문하고 그곳 활동가들과 연결을 시도했다고 한다. 물론 아직까지 드러난 성과는 발견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1943~1944년 봄 귀향하는 도중에 경찰에 체포되어 4개월 동안 서대문감옥에 수감되기도 했다. 또한 이 무렵 여운형이 주도한 건국동맹에 가담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 확인할 길이 없다. 당시 건국동맹은 7만여 명의 맹원이 있었고, 그가 만주를 방문한 때가 건국동맹이 연안의 독립동맹과 연결을 모색하던 시기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증언이다.

이 무렵 그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 1945년 해방 직전에 그는 대지 일부와 전답 대부분을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했다. 또한 종문서를 태워버리고, 그들에게 일정 정도의 농지를 나누어 주면서 나가 살게 했다. 당시만 해도 생경했던 이런 일들은 인간평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정해룡의 주변에도 커다란 변화가 다가왔다. 그는 해방 직후 열린 면민대회에서 건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그해 가을에는 상경해 여운형의 영향 하에서 정계에 뛰어든 것이다. 그러다가 여운형이 3당 합당(조선공산당·인민당·신민당의 좌익 3당)을 거친 후 신당 결성을 준비하던 1947년 3월, 그는 38명으로 구성된 중앙준비위원회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신당의 명칭인 근로인민당(이하 근민당)으로 결정되어 1947년 5월 24일 근민당 창당대회가 열렸을 때 그는 근민당의 중앙위원으로 당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후 그는 죽는 날까지 여운형노선을 고수하면서 통일운동에 헌신했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는 좌우익 간의 대립구도 속에서 여운형의 중도민족주의 노선은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었다. 결국 1947년 7월 19일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근민당의 정치적 지향도 좌절되었다. 이런 상황에 염증을 느낀 그는 여운형의 장례식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와버렸다. 하지만 장건상, 김성숙을 중심으로 당이 재건되자, 그도 이에 참여하고 서울과 보성을 오가면서 당 업무에 몰두했다. 그러나 여운형이 없는 근민당은 계속되는 내우외환에 시달리다가, 결국 1949년 10월 19일 정부가 남로당 등 133개 정당과 사회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때, 그들과 운명을 함께하고 말았다.

남북한 단일정부를 목표로 정치활동을 하던 여운형과 근민당의 영향 때문인지 정해룡은 분단의 상징인 제헌의회를 비판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은 그의 전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여운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붙들려 가 2~3달 동안을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어야 했다. 또한 1950년 5·30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를 용공주의로 규정한 경찰의 불법적인 방해공작으로 낙선의 쓴맛을 봐야만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동안의 덕행에 힘입어서인지 한국전쟁 때의 학살극에서는 무사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이승만의 폭압정치, 계속되는 찬바람을 운둔으로 피해 내던 그가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것은 1967년이였다. 그해도 마무리되어 가던 11월 16일 그가 장건상, 김성숙 등과 함께 근민당 재건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다. 이 사건은 진보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암암리에 성장해 온 혁신계를 탄압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었다. 당시 사형까지 당한 진보당과 달리 근민당 관련자들은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그가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4·19로 혁신계의 정치활동이 해빙기를 맞이했던 1960년이였다. 당시 중앙의 혁신계 정치인들은 사회대중당을 결성하려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던 지역활동가들과 연쇄적인 회의를 계속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중



심에 두고, 그곳에서 사회대중당에 성원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하여 그는 1960년 5월 13일에 창당된 사회대중당에 참여했으며, 1960년 7·29선거에서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의 자격으로 보성에서 출마했다. 그러나 아직 냉전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에는 무리였을까? 그는 또다시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혁신계의 참패로 종결된 7·29선거 이후 사회대중당이 통일사회당과 사회당으로 분열된 후, 그는 김성숙과의 교분 때문에 통일사회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5·16쿠데타로 혁신계 인사들은 또다시 된서리를 맞아야만 했다. 그는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 전국적으로 검거선봉이 몰아치던 5월 18일 보성경찰서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당시 그의 죄목은 통일사회당 활동을 근거로 ‘특수반국가행위’라는 것이었는데, 이것 자체가 사후 입법이었기 때문에 그의 구속은 불법이었다. 그는 1962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출옥 후 집에서 은신하던 그는 생애 마지막으로 다시 정계에 뛰어들었다. 1967년도 대선을 앞두고 서민호가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창당한 대중당(민사당의 후신)에 전당대회 의장 겸 정치훈련원장으로 참여한 것이다. 당시 보수파인 서민호에 가담한 이유를 묻는 한 후배에게 그는 “월파 같은 골수 보수정객이 아니고 서는 군사파쇼 치하에서 혁신정당의 기치를 내걸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 하면서 빙그레 웃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혁신계 동지들은 1967년의 대선에서 후보단일화를 주장했고, 결국 서민호는 선거 직전에 후보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이후 향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는 1969년 9월 17일(음력) 세상을 하직했다. 그가 죽은 지 2주년이 되던 1971년 그와 뜻을 같이했던 장건상 등 동지들과 그를 존경하는 향리 유지들이 모여서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했다. 기념비에는 우국지사, 봉강 정해룡 선생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그가 용공분자이기 때문에 우국지사라는 말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가해왔다. 결국 그 기념비는 세워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보성군 어딘가에 묻혀 있다. 그는 두 번 죽은 것이다.(당시 작성된 발기문)

그는 몽양 추모일에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상경해 추모식에 참석했다. 정해룡과 함께 혁신정당 활동을 했으며 1960년 7·29선거 때 그의 찬조연설을 담당했던 김세원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는 수천 석을 수확하는 지주였지만 일제 때에는 독립군 군자금으로 재산을 바쳤고, 그 자신도 독립운동을 한 애국자이다. 그는 대중연설은 잘 못했지만 품성이나 인격이 훌륭한 분이였다.”

## 2. 아부하고 고개 숙여 정승 판서 나오면 뭐하냐\_ 영광 정(丁)씨 고택지킴이 정길상

\*출처 : 한겨레신문(2016.9.23)

참 희한한 집안 얘길 들었다. “선대로부터 당대의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가계도를 그려서 8쪽짜리 병풍에 모셔두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뿐이라면 그다지 대수로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몇 대조 할아버지가 높은 벼슬을 하고 몇 분이 공신록에 이름을 올렸다는 족보 자랑은 어느 집안에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가문의 전설’이니까.

이 집안의 가계도 병풍이 남다른 이유는, 그것이 가문의 영광과 출세의 이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문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손들로 하여금 선대의 족적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폐족의 위기를 맞아 뿔뿔이 흩어지는 자식들 손에 황급히 쥐여주는 가문의 증표처럼…·. 항일운동과 혁신계 정치운동, 통일운동으로 문중의 수십명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사살당하고 사형당한 내력을 촘촘히 기록해둔 가

계도는, 그 어떤 대하소설보다도 비장하고 파란만장하다. 그것은 가문의 성취와 과시가 아니라, 패배와 상처의 처연한 기록이다.

남도에서 손꼽히는 천석지기 부농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민족교육과 항일운동에 거액을 희사하고, 노비문서를 불태워 토지를 무상분배하고, 기근으로 고통받는 빈민들에게 수백석의 구휼미를 풀어서, 스스로 빈한한 가구가 되었던 덕망 높은 가문. 그러나 해방 이후 친일파, 친미파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맞서다가 급기야 1980년 ‘보성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한 집안에서 32명이 체포되고 사형과 징역을 받아 풍비박산이 난 집안. 전남 보성의 영광 정<sup>ㅈ</sup>씨네 이야기다. 종가 고택을 지키고 있는 정길상(70) 선생은 1946년생으로, 해방 이후 수난의 가족사 속에서 살아남은 증인이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그는 1980년 11월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 같은 사건으로 형 춘상씨는 사형을 당했고, 어머니와 두 형은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에 마음을 다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 교도소 출소 뒤 생계를 위해 외지에 머물던 그가 폐가가 된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오욕과 상처로 얼룩진 가족사 속에서 그가 끝내 지키고자 하는 것, 되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6일, 보성군 회천면 봉강리의 정씨 고택으로 그를 찾아갔다.

####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가훈

바다가 지척인데 마을 제일 안쪽에 위치한 고택은 산사처럼 고즈넉했다. 매처럼 날개를 펼친 매봉산 자락 아래, 400년 전부터 15대를 이어 살아온 정씨 고택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261호로 지정이 될 만큼 유서 깊은 가옥이다. 뒷산에서 내려오는 정갈한 약수가 사랑채 앞 연못으로 낙수하며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었다. 연못은 한반도 모양으로 생겼는데, 정길상의 부친인 봉강 정해룡 선생이 직접 설계해 만든 것이라 했다.

-그럼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거로군요.

“그래요. 한반도 모양으로 이 연못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두만강처럼 (수로를 가리키며) 여기서 쏟아지면 이게 한반도 모양으로 흐르는데, (연못 가운데 세워진 돌들을 가리키며) 이게 민족의 고도 평양, 여기가 서울, 여기가 광주입니다. 이 아래 제주도도 만들고 그 밑으로 물이 빠지게 해놨어요.”

-그냥 인부들한테 맡겨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겠네요.

“직접 일일이 감독을 하셨겠죠. 우리나라가 동쪽이 높고 서쪽이 완만한데, 연못 바닥도 일부러 그렇게 해놓았지 않았습니까? 동쪽은 깊고 서쪽 바닥은 완만하게...”

사랑채 마루에 걸터앉으니 연못 너머로 푸른 남도바다가 내려다보였다. 연못 주변엔 오군자<sup>五君子</sup>를 뜻하는 매화, 난초, 국화, 소나무, 대나무가 골고루 심어져 있는데, 나무등치가 심하게 휘었다가 다시 위로 뻗어나간 소나무 한 그루가 유독 시선을 끌었다.

-저 소나무는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이걸 알아보시네. (나무 아래 바위를 가리키며) 여기 뿌리를 보세요. 이 큰 바위틈에서 어린 묘목이 났단 말입니다. 90살 넘는 우리 누님 얘기로, 이 소나무 묘목을 아버님이 어찌나 아끼셨는지 소나무 꺾인다고 이 근처엔 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해요.”

-묘목이 다칠까봐서요?

“그렇죠. 소나무가 자라면서 이 바위를 두 동강 내지 않았습니까? 이 나무가 우리 민족의 끈기, 바위를 뚫고 생명을 틈을 만큼 5천년 외세에 버티고 살아나온 지구력, 그걸 닮지 않았나요?”

본격적인 인터뷰를 위해 사랑채에 들어서는데, 머리 위로 큼지막한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 (액자 속의 한자를 읽으며) 물위역사죄인(勿爲歷史罪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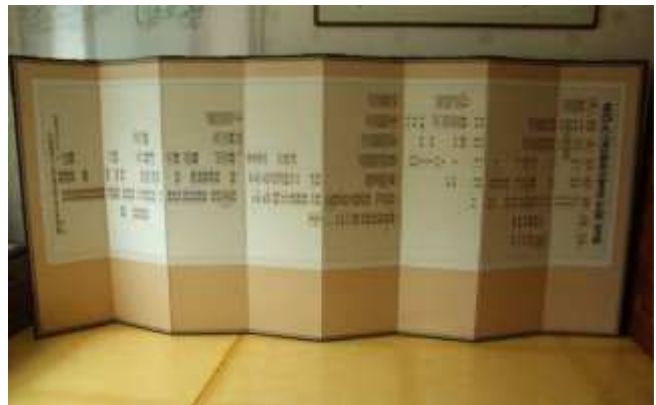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말라”는 뜻이죠. 봉강 선생(부친)이 누누이 이르던 우리 집 가훈입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역사에 죄짓지 말아야 한다고요.”

- 이런 유서 깊은 집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역적 집에 오셔가지고...(웃음) 역적 집이죠.”

그가 껄껄 웃으며 예사로이 말했다. 시대의 풍량은 그들을 “역적”으로 낙인찍었지만,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는 가훈을 거스르진 않았다는 당당함이 배어 있는 웃음이었다.

남도의 3천석지기 부농 집안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몸담아  
노비문서 태우고 토지 나눠주며  
빈한한 삶 택한 덕망 높은 가문  
8쪽짜리 병풍에 새긴 가계도는  
가문의 출세 이력 자랑이 아닌  
멸문(滅門)에 대비한 가문의 증표  
수십명 투옥 내력 등 촘촘히 기록



선대로부터 당대의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가계도를 그려서 8쪽짜리 병풍. “멸문(滅門)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손들로 하여금 선대의 족적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만들어졌다고 정길상 선생은 설명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우리가 어떤 가문인데 친일을 하나?

정길상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보좌했던 정경달의 14대손이다. 조선대 사학과 김정숙 교수

에 따르면, 정경달은 문과에 급제해서 경북 선산 부사로 부임한 뒤 임진왜란을 맞아 선산이 함락되자, 인근 금오산을 중심으로 의병을 모아 일본군 수백명을 참수한 인물이다. 그 소식을 듣고 이순신은 정경달을 종사관으로 임명했는데, 이순신이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을 때는 “유능한 장군을 죽이면 국운이 위태롭다”고 선조에게 직간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훗날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정경달을 “지방 수령의 모범”으로 높이 평가한 바 있다.

- 정경달의 유훈이 가풍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동네 애들은 세살 먹어서부터 할아버지 무릎에서 하늘 천, 따 지를 배우는데 그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얘가지. 너는 정경달의 몇 대 손이냐? 정경달은 무엇을 했느냐? 충무공하곤 어떤 관계냐?... 아버님도 충무공 탄신기념일이 되면, 꼭 집안에서 탄신기념을 하고 식사 때 여러 가지 이야길 하셨어요.”

- 아, 충무공 탄신기념일도 집안 의례로 치르셨다고요?

“네, 4월28일이지요. 식사하면서 우리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길 하시는데, 병자호란 때 삼학사(청나라에 결사 항전을 주장하다가 참형당한 홍익한·윤집·오달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화파가 옳으냐? 주전파가 옳으냐? 너희 생각은 어떠냐?’ 묻기도 하시고.”

- 자녀들한테 역사논쟁을 시키셨네요.



“그런 거지.(웃음)”

정길상에게 정해룡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사상적 스승이자 삶의 모범이다. 봉강 정해룡은 7살 때 부친을 여의고 조부인 정각수 아래서 성장했다. 그에겐 2살 터울의 동생 정해진이 있었다. 종손인 정해룡은 조부의 가르침에 따라 한학을 배우며 집안을 지켰지만, 동생에게는 할아버지의 반대를 피해 신학문을 익히게 했다. 총명한 동생은 광주고보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경성제대 예과를 거쳐 동경제대 철학과에 입학했다. 형 해룡도 틈틈이 와세다대학 강의록으로 공부하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했다.

-증조부(정각수) 대까지도 3천석지기 부농집안이었는데, 그 뒤로 가산이 계속 줄어든 거죠?

“증조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상해 임시정부의 외교책임자인 문창범한테 거금을 건네거나 민립대학 건립운동을 하던 인촌 김성수한테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하곤 했어요. 노쇠해진 증조부를 대신해서 우리 아버님이 실제로 결정하신 일이라고 봐야지.”

-그럼 정해룡 선생도 인촌과 같은 우파 민족주의자였나요?

“중간에 인촌하고는 결별한 셈이지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민족교육기관으로 1937년에 양정원을 설립한 거예요. 한글하고 역사 가르치도록 땅 내놓고 선생 모시고 해서….”

-김성수가 1932년 보성전문학교(오늘날 고려대) 인수할 때까지도 거액을 지원하셨는데.

“그땐 뜻이 같았으니까. 그 뒤로 교류가 없어졌지.”

-실제로 30년대 후반쯤 되면 민족주의 계열이 친일로 많이 돌아서고 그랬잖아요.

“이 집안에선 그럴 수가 없어. 저 가훈, 이 집안의 전통과 정경달, 정명열, 정남일… 그리고 정각수가 유훈으로 남긴 ‘삼의당의 정신’(마땅히 해야 할 세가지 선비의 도리)까지….”

### 이 땅에서, 백성에게서 찾은 해답

주전자 물이 끓고 있었다. 녹차 잎을 우리는 동안 그는 미리 준비해둔 학술자료며 1930~1940년대 신문기사의 복사본, 오래된 흑백 사진 등을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앉은 사랑채와 연못을 배경으로, 내로라하는 당대 지식인들과 우국지사들이 찍은 기념사진도 적지 않았다. 거북정을 다녀간 많은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대한민국 원로 정치인, 우파의 거두가 되었고 어떤 이는 월북해서 고위직에 올랐으며, 어떤 이는 빨치산으로 입산해 죽었다. 집안 대소사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던 문중 사람 중에도 체포되거나 사살된 이가 수십명이다.

-문중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접하게 된 건 숙부 정해진을 통해서인가요?

“그 양반이 동경제대 다닐 때 방학이 돼서 고향에 온다고 기별이 오면, 보성역에 군수, 경찰서장이 미리 사열해 있다가 깎듯이 절을 했대요.”

-하긴 그 시절에 동경제대에 다닌다는 건 이미 고위 관료가 된다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었겠지요.

“근데 그 양반들이 여기 오면 그냥 앉아서 술 먹고 바둑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뒷산에 지게 지고 올라가서 풀을 베는 거예요.”

-그 귀한 도련님들이?

“풀 베어서 지게 지고 가요. 그래서 앞 논에다가 부리고, 논둑 고치고, 못줄 잡고, 작두 해서 퇴비 썰고, 일꾼들하고 같이 말이여. 그런 거를 우리 아버지는 다 알지. 그리고 자기 동생이 하는 걸 100% 후원했다고. 광주학생 사건의 주모자인 정해두도 우리 집안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 집안

에서도 다 알고 이 근방 주민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집안 노비도 다 풀어준 건가요?

“해방 직전에 20여명 노비를 바로 이 자리에 다 앉혀놓고 봉강이 선언을 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니 이제 당신들도 자유롭게 떠나라’고. 중농 이상으로 살 수 있게 토지를 쟁겨주고 호적에 입적시켜서 법적으로도 조치를 다 취해주고, 되도록 (노비 내력을 모르는) 먼 고장으로 떠나 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노속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서방님, 우리를 버리실랍니까?’ 하고. (간첩)사건 나기 전까지도 명절 무렵만 되면 그분들이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곤 했어요.”

-아버지는 선영을 지키고 한학을 하신 분이요, 숙부는 동경제대생으로 사회주의 물 먹은 사람인데, 이런 일들을 의논할 때 형제간에 갈등은 없었어요?

“아니야, 두 분이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버님은 몽양 여운형 계열이고 그 동생은 동경에서 국제공산당에 입당한 사회주의자였지만 이 민족을 구해야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엔 차이가 없었어요.”

-단순한 형제 관계를 넘어서서…

“동지적 형제지.”

-민족주의자들이 하나들 친일로 휘둘러주는 걸 보면서 두 분은 다른 돌파구로 좌파운동을 보게 된 걸까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해버리시네.(웃음) 삼촌이 자기 동문들하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일까?’ 찾겠다고 여러 명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이광수, 안재홍, 서재필… 그런데 청년들이 보기에, 그 어른들도 정확한 좌표를 못 찾고 있더라고요.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해서, 여기 울포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다도해로 해서 여수, 부산으로… ‘우리가 갈 좌표는 우리 국토에서 찾자. 선현들, 우리 유적, 이 땅에서 찾자, 이 백성들에게서 찾자’ 하고.”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찾았나요?

“다도해 다 거치고 육상을 거쳐 만주까지 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무장투쟁을 벌이는 항일유격대 모습을 본 거지. ‘아, 이제 답을 찾았다’ 그랬다는군. 정해진이 돌아와서 그 얘길 형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해룡도 개량주의 노선을 버리고 무장투쟁 노선으로…

“어디 숨어서 뼈라나 뿌려썰고 그래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되겠냐고, 전투를 해야지. 일본의 심장에 총을 겨뤄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 거지.”

## 아버지가 꿈꾼 미래

그 뒤로는 험난한 세월의 연속이었다. 해방 이후 정해룡은 몽양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와 근로인민당 중앙위원으로 참여한 이후 줄곧 혁신계 정당운동에 몸담다가 두 차례나 옥고를 겪었고, 정해진은 동경제대를 그만둔 뒤 노동자가 되어 사회주의운동을 하다가 한국전쟁 중에 월북했다. 문중에서 여덟명은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사살되었고 연좌제에 걸린 가족들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는 데도 큰 좌절을 겪어야 했다.

정씨 고택도 경찰의 습격에 불타 모두 소실될 뻔했다. 안채 마당의 감나무는 시커멓게 타다 남은 밀둥치를 그대로 드러낸 채 용케 살아남았다. 청년 정길상의 삶도 그 감나무처럼 신산했다. 천석지기 옥답은 독립운동 자금과 사회운동자금으로 모두 처분하고 그가 중학에 입학할 무렵엔 학비는커녕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

가 되었다.

-선생님이 중학교 때 아버님은 감옥에 계셨지요?

“몽양 여운형의 뜻을 이어 중도민족주의 혁신계 정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57년 투옥되었다가,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혁신계 일제검거로 다시 수감되었지요. 내가 보성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인데 석 달을 못 다녔어. 납부금을 못 내 가지고.”

-그래서 목포 해양고등학교에 진학하신 거예요? 전액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데라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관비로 공부시키니까.”

-그땐 그럼 꿈이 뭐였어요?

“목포 해양고등학교로 가니까 아버님이 ‘장하다’고 하셨어요. 너는 배는 못 타니까 졸업장만 받아오라고.”

-배를 왜 못 타요?

“집안 연좌제 때문에 여권이 안 나오지. 배 몰고 이북 올라갈까봐...(웃음)”

학교는 졸업했지만 취업할 길이 막막해서 다시 교원양성소 시험을 보고 들어갔다가 74년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교사생활은 길지 못했다. 80년 보성가족간첩단 사건으로 그의 형 정춘상, 친척 정중희 등과 함께 구속된 것이다. 월북했던 숙부 정해진이 65년과 67년 두 차례 고향집을 찾아와 정해룡과 정춘상, 정중희를 만나고 고정간첩의 임무를 맡겼다는 이유였다. 아버지 정해룡은 67년 작고했고, 정길상은 북에서 숙부가 내려왔었던 사실을 한참 뒤인 75년에 알았다.

-숙부는 내려와서 뭘 부탁하고 간 거죠?

“그건 자기 형(정해룡)밖에 모르지. 두 사람만 이야기를 주고받았더니, 그 깊은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정춘상은 사형이 확정되어 85년 불귀의 객이 되었고, 정중희는 12년(이후 8년으로 감형), 정길상은 7년형을 언도받았다. 만기 출소 뒤, 정길상은 다시 교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집안의 웃어른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사상운동을 하면 그 자손들은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원하는 걸 해서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신 자식으로 사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런 원망을 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해서 교육비도 못 대주고, 끝내 간첩 명에까지 지워 주고 떠난 아버님이 원망스러웠던 적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든 그 양반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보겠다’ 그랬던 거 같아. 어떻게든지 이 민족을 구하려고 별 약을 다 써봤지 않습니까? 동생을 통해서도 써봤고, 몽양 계열을 통해서도 써봤고, 그다음에 몽양 작고하신 뒤에 혁신계 김성숙, 이동화를 통해서도 힘을 써봤고, 혁신계 다 죽어버리고 한 사람도 말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보수 우익하고 손잡고 대중당도 해보고, 백방의 약을 다 써본 거야.”

-아버님이 꿈꾸었던 미래는 뭡까요?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아버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아버님 사상의 핵심은 홍익인간의 정신 같아. ‘세상을 넓게 이롭게 하라’ 그런 정신에서 노비들을 해방하고 빈민 구제하고, 그건 우파, 좌파하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버님이 죽을 고비에 처할 때에도 우파 사람들이 도와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좌우파 폭넓게 교유하고 덕을 베풀었어요.”

-아버님에 대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요?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결국에는 용돈이 없고 집에 먹을 식량까지 떨어져버린



상태에서 돌아가셨거든. 내가 교편 잡고 조금 더 사셨더라면 용돈 드리고 했을 건데, 자식들이 하나같이 불행한 상태에서 돈 없이 돌아가시게 한 것이 가장 안타깝지. 3천석 재산을 들었다 났다 하던 분이 밥을 굶는 상태가 되어도 그 누가 돈 한 냢 써보시라고 손에 못 쥐여준 거, 그게 한이 되죠.”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87년 정길상은 징역을 마치고 세상에 나왔지만, 간첩 전과자를 써주는 직장은 없었다. 먹고살기 위해서 그는 향타기(말뚝박는 중장비) 기술을 배워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했다. 기름 덩어리를 뒤집어쓰고 흙 범벅이 되어 하루 21시간씩 일을 하다가, 못 견디게 힘들 때는 통곡을 하고 운 적도 있다. 그렇게 20여년을 일했다. 다행히 집안의 풍파 속에서도 용케 견뎌준 아내 덕에 슬하의 세 딸도 잘 자라서 각자 제자리를 찾았다. 그는 다시 정씨 고택으로 돌아왔다.

-그사이에 집은 누가 관리했나요?

“20년간 비어 있었지. 마당에도 지붕에도 발 디딜 수 없을 만큼 풀이 자라고... 자려고 안채에 누웠는데 천장이 땡 뚫려서 하늘이 보이고 흙덩이가 부슬부슬 떨어지고 처음엔 아주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휴가가 되어 있었던 거네요.

“간첩 집이라고 하니까 도둑도 얼쩡을 안 했더니까. 우리 집에 선대로부터 내려온 고서적이 500여권이 있고 고문서도 3천~4천개가 있었는데, 간첩이라니까 도별꾼도 얼쩡하지 않은 거요.(웃음) 문서고 집기고 그대로 있더라고. 덕분에 고서적은 전남대 도서관에 무사히 위탁할 수 있었지.”

-근데 왜 이 폐가에 돌아오셨어요?

“역사에 남겨야 하니까. 지난 400년간 이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 부친이 앉으셨던 자리에 앉아서 연못을 내다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좀 되물읍시다. 당신이 나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에고, 좀 편히 살걸...(웃음)

“예끼! 거짓말하지 말고.(웃음) 부친은 저 한반도 지도를 보면서 얼마나 분이 났겠어. 남북은 막혀 있고.”

-인생 잘못 산 것 같다, 후회한 적은 정말 없으세요?

“(펼쩍 뛰며) 아유, 왜 잘못 살아요?”

-좀 편안히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남산 취조실에서 고문당할 때 경관들이 그럽디다. ‘저놈들은 생물(生物)이 아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늘 속에만 있어도 장관, 국회의원 다 할 놈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스스로 쥐구멍에 기어들어 가냐?’고. ‘그래서 사람 죽고 집안 망하고 재산 없어지니 어떠냐?’고 내게 물어봅디다.”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것이니 당신은 당신대로 사시라고 했지.”

-그러느라고 가족들한테는 어쩔 무책임한 가장이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가족이란 뭡니까?

“대만 사법고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정치란 무엇인지 간단히 쓰라고. 정치란 무엇인가? 경제를 위한 것이다. 경제(먹고사는 일)는 내 가족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가족을 위해서 최고 상위 가치는 정치예요.”

-이런 파란만장한 가문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게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왜 부담스러워요? 그 책임이 막중한 것이 옳지. 우리 선현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정경달부터...”

-저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우리 가문에 정승판서 몇 나오고...’ 이런 족보 자랑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선생님 가문 얘기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웃음)

“외세에 빌붙어서 아부하고 고개 숙여서 정승판서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그걸 자랑해야지. 민(民)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걸 자랑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현실에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지. 죽은 송장 치켜들고 뭘 할 것이여. 허허허.”

## 6 민족의 교사, 학산 윤윤기

\*출처 : 황광우, 「민족의 교사, 학산 윤윤기」, 『호남학산책』 (한국학호남진흥원), 2020년 9월 17일

### 학산 윤윤기 기념비

“위대하다 학산이여.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 재주와 품격이 단아하였고 학식 또한 고명하였다. 갑술년<sup>1934</sup> 봄 학교를 세우는 일을 맡아 홀로 계책을 다하였다. 몸을 다하여 수고하였고 이슬 맞으며 나무 밑에서 행한 풍교(風敎)가 순박하였는데 학교를 준공하여 교실에 들어가서는 촌음을 아껴 가르쳤다. 병자년<sup>1936</sup> 태풍에 교실이 무너졌는데 다음날 또 나무 아래에서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학산 윤윤기는 1900년 7월 9일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에서 부친 윤병남과 모친 김삼송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조부는 유교의 전통에 따라 엄하고 굳센 가풍을 세웠다. 학산의 부친 역시 서당을 열고 후학을 가르친 한학자였다. 학산은 덕암서원과 기산서원에서 사서(四書)를 열심히 공부했다.

1908년 의병들이 학산이 살던 평주 부락에 숨어들었다. 일본 헌병들은 의병을 잡기 위해 마을을 포위하고 불을 질렀다. 마을은 온통 불바다가 되었다. 학산은 어린 동생을 업고 마을 뒷산을 타고 검백면으로 도망갔다. 검백면은 고개를 세 개나 넘어야 하는 외딴 곳이었다. 학산은 이때 겪은 일제의 잔혹한 만행을 잊을 수 없었다.

크면서 학산은 부친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었다. 사서를 끼고 앉던 자리방석을 털고 일어났다. 신학문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어 학산은 자신의 땀겨리를 잘랐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를 잘랐으니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었다. 그리고 학산은 집을 떠났다.

1924년 학산은 전남공립사범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듬해 3월 학산은 전남공립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훈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학산은 현 광주교육대학교의 모체인 전남공립사범학교의 제1회 졸업생이었던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22일 광주교육대학교는 학산 윤윤기 선생의 흉상 제막식을 개최한 적이 있다.

첫 발령지는 장흥이었다. 학산은 1925년 장흥군 안양공립보통학교의 훈도로 부임하였고, 이곳에서 34년까지 재직하였다. 그는 열정적인 교사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진 학교 건물을 고치는 일을 도맡아 하였으며 야학을 열어 마을의 문맹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방학이 되면 학산은 영농교육을 실시

한다는 명분하에 마을 청년들을 불러내어 민족교육을 시켰다. 한글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 연필과 공책을 나누어 주었다. 물론 별도의 학비를 받지 않았다. 제자들은 회고한다.

“학교가 일본인 교장과 경찰들의 감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대놓고 한글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어린이들에게 한글과 역사를 강조하셨습니다.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34년 3월 학산은 천포간이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간이학교는 2년제 단기과정의 초등교육기관이다. 그런데 보성군 회천면 천포리에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사<sup>校舍</sup>가 없었다. 일본인 교장은 민족사를 가르친 학산을 밋게 본 것이었다. 교사도 없는 곳에 발령을 내면 사표를 던지리라고 계산했을까? 아무 것도 없는 마을에 전보를 낸 것은 명백한 보복성 좌천이었다. 천포는 척박한 땅, 갯벌밖에 없는 오지였다. 학교를 설립하기엔 너무나 열악한 마을이었다.

천포에 온 학산, 지체 없이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흑판을 걸어놓을 교실도 없는데 어찌 가르쳤을까? 동네 어른이 빌려준 문중 제각에 학생들을 모았다. 당산나무 밑 널찍한 바위에 아이들을 모았다. 교재도 학용품도 없지만 교사와 학생이 있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낮에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밤이면 농사일을 마친 청소년들을 모아 가르쳤다.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농촌의 주된 교육 현장, 그것이 야학이었다.

마을 유지들을 만나 학교 건립을 호소하였다. 임상현이 내놓은 땅을 학교 부지로 삼기로 하였다. 득량만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명당이었다. 마침내 천포간이학교가 문을 열었다. 운동장을 다지고 울타리를 만드는 일은 학산과 학생들의 몫이었다.

학생 수의 정원(定員)이 없었다. 연령의 제한도 없었다. 사실상 무상교육이었다. 오직 요구되는 것은 배움의 열정이었다. 밤낮이 없는 강행군이었다. 1학년과 2학년을 동시에 수업하였다. 1학년을 가르칠 때 2학년은 자습을 하였고, 2학년을 가르칠 때 1학년은 자습을 하였다. 1,2학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하였고, 3,4학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업하였으며, 5,6학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수업하였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상황, 학산은 단신으로 천포간이학교를 이끌어 나갔다.

전 학년이 글짓기와 산술, 한문과 서예를 배웠다. 수신<sup>修身</sup>도 배웠고, 풍금에 맞춰 노래도 배웠다. 학산의 풍금 연주는 수준급이었다. 시조도 배웠고, 주산도 배웠다. 조선어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학산은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 흑판에 조선어를 써가면서 몰래 가르쳤다. 감찰이 오면 땅을 보는 학생이 미리 알려주었고, 몇몇 학생들이 한글 교재를 쓸어 담아 뒷산으로 달아나곤 했다.

학산이 천포간이학교에서 실행한 조선어 교육과 민족사 교육은 그 소문이 금세 널리 퍼져나갔다. 시학관과 주재소 순사들은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였다. 학산은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한글 교재를 없앴고 한글 공책도 사용하지 말도록 하였다. 철저히 첩판에만 의존하였다.

1939년 3월 학산은 보성보통학교로 전보가 났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은 학산의 공적을 잊지 않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다. 학산 윤윤키의 기념비 말이다.

그런데 보성보통학교에서 학산이 복무한 기간은 길지 않았다. 학산은 부임한 지 1년이 채 안 된 1940년 1월 돌연 학교에 사표를 냈다. 학산은 교육공무원이라는 특권을 스스로 내던진 것이다. 훈도직만 그만 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황이 주는 은급<sup>恩給</sup>마저 포기하였다. 은급은 일본 정부가 퇴직자에게 주는 연금이었다. 15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연금이었는데, 학산은 교직 14년 차에 퇴직함으로써 스스로 연금을 포기한 것이다.



교직을 사퇴하고 연금까지 포기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사 일이 아니었다. 무슨 사연이 있었음에 분명하다. 학산의 내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 소중한 가보로 전해져온 몇 편의 한시를 읽어 본다. 그 중에는 눈에 띄는 특이한 시 한 편이 있다. 억보초병<sup>億步哨兵</sup>, 보초병을 생각하며 쓴 시이다. 도대체 학산은 언제 어디에서 보초병을 목격했을까?

億步哨兵 보초병을 생각하며

自朝終夕入向山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을 보고 서 있네  
 冒雨暴風飽飢寒 세찬 비바람, 기한에 떨고 있네  
 遙望荒天吹雪裏 멀리 거친 하늘 눈보라 몰아치고  
 更看曠野落昏間 다시 광야를 보니 황혼이 지는구나  
 眼配四方勁超疲 사방을 경계하느라 목은 뻣뻣하고  
 足印一步脚如閑 발은 한 곳에 있으니 다리는 한가하더라  
 邦家興敗雙肩在 조국의 흥망이 그대 두 어깨에 걸려 있으니  
 胡億生前故國環 어찌 생각하리 살아서 고국에 돌아갈 날을

학산의 큰 아들 윤성식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체포 구금된 적이 있다.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윤성식은 그곳에서 김성숙을 감옥에서 조우하였다. 김성숙은 김원봉과 함께 조선의용대를 이끌어간 독립투사였다. 윤성식은 자신의 부친의 함자가 윤윤기임을 고하였는데 그때 김성숙이 깜짝 놀라며 윤성식을 두 손을 땃석 잡더라는 것이다. 김성숙은 일제 치하에서 윤윤기와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시대의 고뇌를 공유한 동지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성숙은 1940년 충칭 임시정부 시절 학산이 임시정부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전하더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들 윤성식의 증언이다.

잠시 조선의용대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자.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원봉과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김성숙 등이 연합하여 조선의용대를 결성한 것이 1938년 10월 10일이었다. 조선의용군의 전신 조선의용대의 대장은 김원봉이었고, 정치부장이 김성숙이었다. 조선의용대는 1940년 5월 후난성<sup>湖南省</sup>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한편, 조선의용대 본부는 충칭<sup>重慶</sup>으로 옮겼고 1940년 11월 4일 화북 이동을 결정하였다.

아들 윤성식의 증언과 조선의용대의 이동 경로를 종합하여 고찰하건대, 학산이 충칭의 임시정부를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동지 김성숙의 소개로 가능한 일이었다. 학산이 목격한 보초병은 조선의용대의 대원이었을 것이며, 이 역시 김성숙의 안내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 개정령이 발표되었고, 황국신민화 교육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었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조직되었다. 조선은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전시체제로 편제되었다. 남자는 지원병으로 징병되었고, 여자는 정신대로 동원되었다. 숨이 막히는 시국이었다. 일제는 황국신민서사를 열창하도록 강제했다.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쳐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충을 들고 싸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의 시대였다.

1940년 2월 올 것이 왔다. 일제는 조선인에게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였다. 창씨개명을 따르지 않은 조선인은 불령선인으로 간주하여 갖가지 불이익을 강제했다. 취업 기회를 박탈했고, 식량 배급에서 차등을 두었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했다. 학산의 두 아들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인 교사들에게 두들겨 맞았다.

1940년 학산이 왜 교직을 사퇴했는지, 왜 은급을 포기했는지, 이제 그 내면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도 충을 들고 전선에 서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충칭 임시정부를 찾아간 것이다. “조국의 흥망이

그대 두 어깨에 걸려 있으니 어찌 생각하리 살아서 고국에 돌아갈 날을” 억보초병<sup>億步哨兵</sup>은 그냥 쓴 시가 아니었다. 학산 역시 저 보초병처럼 나라 위해 싸우다 죽길 바랐을 것이다.

그런데 학산이 서야 할 전선은 충칭이 아니라 고향 보성에 있었고, 학산이 들어야 할 무기는 총이 아닌 분필이었다. 추측건대 밤을 세워 김성숙과 고뇌어린 논의를 하였을 것이다. 돌아온 학산이 지켜든 일은 일본의 관현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학교였다. 학산이 세운 양정원<sup>養正院</sup>은 요즘의 대안학교였다.

1940년 4월 12일 양정원에는 1기 입학생 500명이 몰려왔다. 보성군 전역에서 학생이 왔으며, 장흥과 영암, 완도와 강진에서도 학생들이 왔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교문을 열어주었다. 일체의 경제적 부담이 없는 무상교육이었다. 양정원의 무상 교육 하나만으로도 학산은 한국의 교육사에 신기원을 연 교육자였다. 어떻게 수업을 했을까? 잠시 학산의 교실을 탐방하자.

“조문도야석사가야<sup>朝聞陶冶夕死可也</sup> ‘아침에 도를 닦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칠판에 쓰시며 학생들에게 조선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민족혼을 심어주었습니다.”

양정원 교실에는 밤에도 남포등 아래에 몰려든 30-40대 만학도들과 부녀자들이 글을 읽었다. 책상과 의자가 부족하여 선 채로 강의를 받았다. 양정원엔 글을 깨우치기 위한 배움의 열기가 타올랐다. 학생들이 지붕 위로까지 올라가 ‘가갸거겨’ 한글을 배웠다는 소설 《상록수》의 현장이 양정원이었던 셈이다. “조선은 독립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민족임을 알아야 한다.”게 학산이 아이들에게 준 가르침이었다.

이제 우리는 학산의 최후를 확인할 때이다. 1950년 7월 22일 보성군 미력면의 예재 고갯길. 학산의 아들 윤호철과 학산의 동생 윤점성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갯길을 올라왔다. 그들은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계곡으로 향했다. 계곡 주변은 난자당한 주검들로 즐비했다. 죽창에 찔려 죽은 사람, 입에 말뚝이 박힌 사람,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현장,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학산의 시신은 굵은 철사로 상처와 두 팔이 묶여 있었고, 하체도 발목이 결박당해 있었다. 예리한 총검으로 찌른 듯, 몸통에는 깊은 자상(刺傷)이 여러 곳에 나 있었다. 입은 양쪽으로 귀밑까지 찢어졌고 코도 찢겨나갔다. 이는 모두 부서진 상태였다. 학산의 시체가 발견된 곳은 보성경찰서에서 불과 6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보성경찰서 경찰들이 학산을 경찰서로 연행한 것은 7월 21일 오후였다.

해방 후 학산이 걸은 정치적 행보는 여운형의 좌우합작을 지지한 것뿐이었다.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학산의 신념이었다. 그날 후배 정해필과 한가하게 바둑을 두고 있던 학산을 잡아간 보성경찰서 서장은 이봉하였다. 그는 일제 치하에서 고등계 형사를 지낸 전형적인 민족반역자였다. 학산의 원혼을 우리는 어떻게 달래야 하는가?

학산이 남긴 시 한 수를 함께 읽자. 학산은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앞서 먼저 근심’<sup>先天下之憂而憂</sup>한 시대의 지식인이요, 선비였다.

聞曉笛 새벽 피리 소리를 들으며

更深耿耿抱愁懷 깊은 밤 근심으로 뒤적이다

城北我聞曉笛催 성북, 새벽을 재촉하는 피리 소리를 듣네

驢路廿年孤枕上 흘러간 20년, 외로운 침상

篷窓依舊送明來 봉창은 어제처럼 밝은 날 맞이하네

## 7 선율마다 조국애가 용솟음치는 민족음악가, 채동선

\*출처 : 이종범 편, 『나는 호남인이로소이다』, 사회문화원, 291~295쪽

‘그리워 그리워 찾아와도 그리운 옛님은 아니 뵈네. 들국화 애처롭고 갈꽃만 바람에 날리고...’로 시작하는 가곡 「그리워」는 웅만한 기성세대는 다 기억할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다. 이 곡은 원래 정지용의 서정적인 시 「고향」을 그 가사로 하였던 것이 후에 이은상에 의해 개사된 것이다. 독일에서 음악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고향에 돌아왔건만 꿈에도 그리던 그곳이 일제에 짓밟히고 있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시에 처절한 곡조를 달아 부른 이가 바로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요, 민족음악가인 채동선이다.

채동선은 1901년 6월 11일 전라남도 보성군 별교읍 별교리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부친 채중현씨는 전남 지역의 이름난 대농이자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부호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희사한 독지가이기도 하였다.

지금도 채중현의 공덕비가 별교초등학교의 교문 안에 세워졌다. 이렇듯 채동선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별교에서 떨어진 전남순천의 공립보통학교를 다니며 일찍부터 새로운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보통학교를 마치고 경성제일고보에 입학한 열다섯 살 때, 그는 취미로 바이올린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당시 장안의 손꼽히는 바이올린 연주가였던 홍난파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채동선 선생이 음악의 길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조국의 학도로서 민족의식을 키워가던 채동선은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에 가담하게 되고, 그 결과 중학교 4학년에 학교를 떠나야만 하는 운명을 맞게 된다. 그러나 1919년 그 해 바로,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 영문과에 입학한다. 대학생활 중에도 바이올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당시 유명한 바이올린교사로 추측되는 다중조에게 바이올린을 배우며 실력을 닦아 마침내 야마다 문하에서 교향악단 단원으로 선발되기 이르기까지 한다.

1924년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영문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채동선은 미국유학길에 올랐으나 그 학문들이 적성에 맞지 않아 독일로 옮겨간다. 베를린 슈테른웬음악학교에서 리히할트 하르체 교수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고 빌헬름 클라헤에게서 작곡을 배운다. 이리하여 1929년 귀국할 때 채동선은 진정한 음악가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다.

귀국 후 그는 당대의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였고, 오랫동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다 정년퇴직한 누이동생 채선엽의 소개로 1931년 이소란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 부인과 함께 서울 성북동에 터를 내린 채동선은 이화여전에 나가 외국어 강의를 하면서 작품 창작과 바이올린 연습에 열중했다.

1939년까지 서울에서 4회에 걸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졌다. 또한 1932년에는 현악 4중주단을 만들어 동료인 최호영, 이해구 등과 함께 실내악을 보급하며 우리나라 서양음악의 기초를 쌓는데 일조를 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작곡발표회 형식으로 성악곡들을 ‘장곡천 공회당’에서 발표하였는데 그의 누이동생인 채선엽이 노래를 불렀다. 그 당시 채동선이 발표한 독창곡의 격조는 시를 선택한 심미안에서도 볼 수 있으며 특히 정지용의 시를 택하고 이를 소화시킨 점으로 보아서 그의 작품에 상대적인 평가를 값지게 할 수밖에 없다.

김상용, 김영랑, 김동조 등의 서정적인 시들도 그의 창작욕을 자극시켰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노래의 참된 조화는 정지용의 것을 빼놓고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다른 가사로 바뀌어져 불리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가 만들어준 하나의 비극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그 가곡의 예술성을 정지용의 시

를 빼어놓고 논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노’ 이렇게 부르던 「고향」(뒤에 「그리워」)은 그 노래 중에서 대표적인 걸작으로 평가되어야 하겠다. 특히 멜로디의 진행이 시의 억양과 조화와 긴밀감, 내면적인 서정성과 선율의 반복에서 얻어지는 다이내믹은 그의 예술성이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채동선이 1930년대에 그토록 심도 있는 작품을 쓰고 악단에서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에서 다른 음악가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어 소개되지는 않았다. 이는 그가 자기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그가 귀국할 당시 악단의 주역은 홍난파였고, 같은 무렵 현재명과 귀국해서 연희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음악활동을 했는데 1930년대에는 현재명과 채동선보다 뒤늦게 독일에서 돌아온 계정식 등이 우리나라 악단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것 같다. 또한 채동선은 타협을 거부하는 성격으로 악단에서는 오히려 외롭게 지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러한 면 때문에 그는 오히려 연주의 향상과 작곡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많은 음악가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후생악단 등 일제 전시체제에 순응하는 활동을 하였으나, 그는 강한 민족주의적인 신념으로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거의 은둔생활로 들어갔다. 한때 재목상을 경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일제의 침략정책에 호응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창씨개명도 그는 거부하였고 늘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으며, 낮에는 농사꾼으로 그리고 밤에는 국악의 채보에 열을 올렸다. 다만 이 시기에는 실내악을 통해서 자신이 음악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이 시기가 일반적으로 암흑시기였던 것처럼 채동선에게도 이 시기는 은둔의 어두운 시기였다. 다만 국악의 채보를 통해서 민족음악 수립의 내일을 위한 기초를 이 시기에 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해방이 되어서는 조용하게 들어앉았던 채동선에게 불길 같은 정열이 솟아올랐다. 악단의 일선에 나서서 음악인들의 규합에 나섰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혼란한 음악가들을 모아 당시 좌경되었던 음악가와 미군에 편승해서 야합하던 극우세력의 중간에서 민족주의적인 음악가들의 단합을 역설하고 이것이 바로 고려음악협회의 창설로 연결되었다. 1947년에 고려작곡가 협회 회장이 되어서 해방된 조국 당에서 작곡가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았다.

교성곡 「조국」, 「한강」, 「독립축전곡」 등이 모두 이 무렵에 작곡된 것이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감격 속에서 작곡한 「입성가」, 「3·1절 노래」, 「개천절」, 「무궁화노래」, 「한글노래」, 「선열추모가」 등은 모두 폭발된 해방의 감격과 애국적 정열을 담은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문필가들의 모임인 문필가협회 부회장직도 맡았었고, 또 예총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문총의 부회장직을 맡아 우익진영 문화인들 속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부가 수립된 후로는 문교부 예술위원, 국립극장 운영위원, 예술원 초대회원 등 문화계의 중요한 발언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영원한 자유인이었다. 그는 일생 동안 어디에 매어 산 적이 없는 직업적으로도 독립된 사람이었다. 세상을 떠나기 한해 전 피난지 부산에서 생계수단의 방편으로 잠시 서울 상대와 숙명여대, 그리고 경기여고, 창덕여고에 출강하여 영어와 독일어를 가르쳤는데 그 기간을 일 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다.

채동선의 작품이 오늘날에 살아남은 것은 고인의 치밀하고도 강한 집념의 소산이었다. 6·25가 발발했을 때 그는 부산으로 피난가기 전에 그의 모든 작품들을 땅속에 묻고 갔다. 땅을 깊이 파고 그 속에 모래와 숯을 넣고, 배수가 잘 되게 처리하여 거기에 독을 묻고, 그것을 다시 철판으로 짰 다음 파묻었다. 피난 중 그는 북막염으로 세상을 떠났고, 환도 후 미망인 이소란 여사가 이를 다시 캐내어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 그렇게 세밀하게 배려했지만 악보의 일부는 습기에 차서 판독이 어려운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악보는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이 되어있다. 작품의 극소수가 1930년에 출판이 된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악보는 원본 그대로가 보존되어 있다.

현재 정리된 작품목록에는 50여 곡으로 되어 있지만 누락된 국악채보의 일부까지 합한다면 그의 작품은



100곡이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되고, 관현악과 합창으로 된 교성곡은 80~90명의 관현악 편성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작곡된 것 중 최대 규모의 작품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채동선의 활동시기를 요약하면 대략 3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그리고 작곡가로서 활약하던 시대이고, 이 기간 동안에 4회의 독주회를 위한 예술가곡 및 실내악곡 등을 작곡했다.

제2기는 은둔기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현실에서는 이탈함으로써 창작가로서 내적인 충실을 기하고, 국악채보 등을 통해서 장차 활동할 기틀을 잡아놓았던 시기이다.

제3기는 열정적인 활동가로서, 조국해방과 더불어 음악일선에 나서서 창작활동과 음악운동을 통하여, 해방이 된 조국의 땅에서 민족음악의 기틀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고 관현악, 합창, 취주악 등 집단 음악활동을 제창하면서 그의 음악적 사상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떠났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커다란 문화유산을 남겨주었다.

## 8 보성의 사회주의 운동가들

\*출처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 1. 김백동(金百東, 1903~?)

(전남노동협의회 조직부 책임자, 남로당 전남도당 위원장) 전남 보성 출신으로, 사범학교를 졸업했다. 1930년 3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한때 검거되었다. 1931년 9월 전남노동협의회 임시사무국 결성에 참여하여 목포지방 책임자가 되었고, 12월 전남노동협의회 결성에 참여하여 조직부 책임을 맡았다. 1932년 5월 목포에서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1934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화순에서 적색농민조합 운동에 종사했다. 1945년 9월 조선공산당 목포시책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남조선노동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지냈다. 1948년 8월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50년 8월 조선인민군 점령 하에서 전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 2. 김영재(金永才, 1902~?)

(전남노동협의회 참가자, 남로당 중앙위원) 전남 보성의 빈농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다. 1923년 서울로 올라와 중등학교에 입학했으나 1학기 만에 중퇴했다. 이후 고향에서 청년동맹, 신간회,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1931년 10월 전남농민조합 결성에 참여하여 보성·장흥·해남·강진·영암·화순군을 담당했다. 11월 별교면위원회를 조직하여 소작쟁의를 지도하고 12월 전남노동협의회 결성에 참여했다. 1934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45년 8월 조선공산당 전남도당 조직을 위한 준비모임에 참여했고, 11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 목포시 대표로 참석했다. 1946년 6월 조공 전남도책, 12월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 및 전남도당 위원장을 역임했다. 1948년 8월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50년 8월 조선인민군 점령 하에서 광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 3. 박기원(朴基源, 1912~?)

(광주학생운동 참가자)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고등보통학교를 다녔다. 1929년 6월 '독서회 중앙부' 산하 광주고보 독서회에 참여하여 조직선전부 위원을 맡았다. 12월 광주학생운동으로 검거되어 1931년 6월 대구 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32년 3월 보성적색농민부에 참여했다. 이후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1934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 4. 박만춘(朴晩春, 1904~?)

(전남노동협의회 회원) 전남 보성의 빈농 집안에서 태어났다. 1925년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자동차학교에서 3개월간 기술을 익힌 후 광주에서 운전을 하면서 생활했다. 1928년 10월부터 전주에서 화물자동차 영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곧 폐업했다. 1930년 4월 다시 자동차연구소를 개설했으나 다음해 2월 폐쇄했다. 1931년 8월 적색노동조합건설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책임자가 되었으며, 도시 제사공자·교통·인쇄 노동자 조직임무를 담당했다. 9월 전남노동협의회 임시사무국 결성에 참여했고 12월 전남노동협의회 결성에 참여하여 정치부 산하 재정부를 담당했다.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1934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5. 이남래(李南來, 1913~?)

(경성콤그룹 참가자) 전남 보성 출신으로, 1929년 3월 조성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서울 동광당서점에서 점원으로 일했고, 'ML연구 독서회' 결성에 참여했다. 1931년 3월 '조선국내공작위원회 사건'으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932년 8월 예심면소 처분을 받았다. 출옥 후 서점 점원으로 일하면서 1940년 경성콤그룹에 참가하여 가두부(街頭部)에 배속되었다. 해방 후 19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 전남지역 무임소위원으로 선임되었다.

### 6. 이유민(李維民, 1914~?)

(독립동맹 중앙집행위원) 전남 보성 출신으로 1932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동제대학(同濟大學) 독어과에서 수학했다. 그 후 의열단의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학했다. 중국공산당에 입당하고 1935년 8월 남경에서 결성된 혁명동지회(10월회)를 지도했다. 1937년 12월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성자(星子) 강릉분교(江陵分校)에 입학하여 1938년 5월 졸업했다. 1939년 연안의 항일군정대학에서 수학했다. 1941년 1월 태항산에서 화북조선청년연합회 결성에 참여하여 조직부장에 취임했다. 1942년 7월 태항산 팔로군 근거지에서 결성된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중앙집행위원 겸 조직부장으로 선출되었다. 1944년 초 태항산에서 건립된 적구공작반(敵區工作班) 조직부 책임자가 되었다. 6월부터 하북성 동북에 위치한 조선인 농장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전과 조직 활동을 전개했다.

(조선신민당 조직부장, 노동당 중앙위원) 1945년 말 38선 이북으로 귀국했다. 1946년 3월 조선신민당 결성에 참여하고 조직부장이 되었다. 1948년 3월 북조선노동당 제2차 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고 8월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다. 1950년 10월 한국전쟁 중 박헌영을 수행하여 북경을 방문했다. 1953년 12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재직했고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58년 연안파 숙청에 연루되어 해임되었다.

## 7. 임종근(林鍾根, 1906~?)

(성진회 회원) 전남 보성 출신으로, 전남공립사범학교를 다녔다. 1926년 성진회에 가입했다. 1929년 3월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무안군 비금공립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11월 광주학생운동 관련으로 검거되어 1931년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해 12월 출옥하여 전남노동협의회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다. 1932년 11월 검거되어 1934년 1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8. 최창순(崔昌淳, 1881~?)

(조공 당원) 전남 보성 출신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한학을 수학했다. 1921년 이래 보성청년회 회장을 지냈고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 1925년 전조선노동대회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광주야채이카에 배속되었다. 1928년 8월 경기도경찰부에 검거되었고, 1929년 6월 『동아일보』 보성지국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19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 9 김선우, 전남 빨치산의 총수

\*출처 : 안종철·최정기·김준·정장우, 『근현대 형성과정의 재인식 (1)』, 중원문화, 248~253쪽

1918년 전남 보성 출생  
1949년 전남도당 부위원장 겸 유격대 총사령관  
1954년 조선공산당 전남도당 위원장  
1954년 토벌군에 포위된 상황에서 자폭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빨치산, 즉 인민유격대에 관련된 내용은 소설이나 영화의 형식을 빌어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않고 있는 현대사 연구의 처녀봉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빨치산을 이야기할 때, 그 전설적인 총수였던 이현상을 떠올린다. 그러나 남한의 빨치산 중 가장 많은 부대원을 거느리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했다는 전남 지역의 빨치산 사령관 김선우는 쉽게 떠오르지 않는 인물이다.

과격했을 거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선비 같은 풍채로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책벌레, 그러나 전투 중에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웃음 띤 얼굴로 전남 유격대를 총지휘했다던 김선우. 그는 1918년 5월 2일 전남 보성군 웅치면 유산리에서 가난한 농부였던 김성중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의 이름은 김선봉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문 수학을 하다가, 아들이 없었던 백부의 양자가 되면서 웅치보통학교를 마치게 된다. 이후 백부와 함께 목포로 이사 온 그는 자격시험을 통해 중등과정을 마치고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여기서 그는 그의 사상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만남을 갖게 되었다. 같은 보성 출신으로 경성제대에 다니면서 이미 공산주의사상을 접하고 있던 정해진을 만난 것이다. 이후 그는 정해진의 소개로 ‘공산청년회’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결국 학교까지 중퇴하게 되었다.

학교를 중퇴한 1940년을 전후한 무렵, 그는 평양에 있는 일본 병기제조창에 입사해 처음에는 선반공으로 일했다. 여기서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판임관까지 승진해 총무나 내무 등의 일을 맡았다. 또 1942년에는 그곳에서 간호부로 일하던 김명자와 결혼까지 했다. 그러나 그가 활동을 중단한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당시 평양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따르면 발각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수차에 걸쳐 방화와 폭파사건을 일으켰다고 한다.

해방을 전후한 무렵 그는 처와 3세 된 아들을 남겨두고 홀로 서울로 왔다. 그 후 그는 인천시 민청 위원장, 조선공산당 경기도당 선전부장,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당시 경기도당이 김삼룡의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인지 현재 생존해 있는 그의 동료들은 그를 김삼룡계로 분류하기도 한다. 당시 그가 벌였던 여러 활동이 발각되면서 그는 1947년경에 체포되어 부천교도소에 수감되었다.

1948년에 출옥한 그는 또다시 경기도당에서 활동을 재개했다. 이때 그의 삶에 또 한 번의 전기가 찾아왔다. 그것은 1948년의 여순사건과 그 파장으로 남로당 전남도당이 와해되고, 1949년 1월경 전남도당이 긴급 비상체제로 변경되면서 일어났다. 당시 경기도당 위원장인 전인수와 부위원장인 김선우가 그 수습을 맡게 된 것이다. 이들은 1949년 1월경 전남도당으로 배치되었다. 그 무렵 도당 본부는 장흥 유치에 있었으나, 김선우는 광주 동명동에 있던 도당 연락과장 이남현의 집에 숨어서 당 조직의 재건을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경찰에 있던 고향 친구를 만나자, 신분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장흥 유치지구로 옮겨 갔다. 당시 유치지구는 유격대의 9·18기념 대공세 후 국군의 반격으로 11월경에는 유격사령관이었던 최현(충청도)까지 전사해 유격대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그는 도당 부위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채로 호남지구 유격사령관에 임명되어 그 뒷수습까지 담당하게 된다. 당시 유격대 부사령관은 오금일이었다.

전남 지역에 빨치산이라고 불리던 인민유격대가 처음 생겨난 것은 1946년 10월사건 이후다. 그러나 그때는 ‘작대기 부대’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경찰의 추적을 피해 극소수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다닌 정도였다. 그러다가 여순사건으로 정규군의 무장력이 가세하고, 극심해진 좌익탄압으로 입산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유격대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는 남쪽의 무장봉기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북한의 대남정책이 한몫 거든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한 양쪽에 단독저부가 수립된 이듬해인 1949년 북한에서는 이승업을 중심으로 인민유격대의 남파가 실시되었다. 이들은 태백산(1병단, 이호제), 지리산(2병단, 이현상), 오대산(3병단, 김달삼) 등에 유격기지를 건설하고 유격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한편 남한의 각 지역에는 각 도당을 중심으로 지구별 유격사령부가 따로 꾸려져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비된 전남유격대 조직은 1949년 말경 최고지휘부로 유격대 총사령부가 있고, 그 예하에 화순 백야산지구(일명 광주지구, 사령관 김용길), 장성 노령지구(김병역), 영광 불갑지구(박정현), 장흥유치지구(윤기남), 보성지구(김종채) 등 5개의 지구사령부가 있었다. 그 외에도 전남도당의 지도를 받으면서도 유격투쟁에 관한 사항은 지리산병단(이현상)의 지휘를 받는 구례, 곡성 등의 백운산특각(박종하)이 있었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시기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지만, 그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고 한국전쟁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군경의 계속된 토벌 작전과 열악한 환경은 김선우의 고군분투를 무위로 만들었다. 전남 인민유격대는 1950년 4월경이 되면 거의 궤멸당하고, 흩어진 소수 인원들에 의해 겨우 유지되고 있었다. 이들을 회생시킨 것은 한국전쟁이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0여일이 지난 1950년 7월 8일 전남도당에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다. 그때까지 도당을 이끌어 오던 전인수가 풍기문란, 도덕성 타락 등의 이유로 숙청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 김선우는 그의 숙청을 적극 만류하면서 인민군이 들어오면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할 것을 주장했으나, 다른 당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거부되었다고 한다. 당시 전인수는 “김선우 동지의 손으로 처형당하고 싶다”는 최후의 말을 남겼으나 그가 차마 총을 쏘지 못하고 다른 동료가 총살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후 김선우가 도당위원장서리가 되었다.

한국전쟁 때 광주에 인민군이 들어온 것은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7월 23일이었다. 이와 함



께 무등산까지 진출해 있던 조선노동당 전남도당은 광주로 내려와 중앙당에서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파견된 박영발 일행과 합류했다.

박영발, 김선우 등 전남도당의 간부들은 그날 오후 사동에 있는 최상현의 집에 모여 당과 행정기구를 조직하고 다음날인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도당위원장에는 박영발, 부위원장은 김선우와 김철인, 도 인민위원장은 주재백이 맡았다가 곧바로 김백동(보성 출신)이 임명되었다. 그 외 도당 간부진들은 조직부장에 김홍배(해남), 선전부장에 선동기(구례), 노동부장에 오금일(유격대 부사령관), 간부부장에 정규석, 농림부장에 이방휴, 광주시당 위원장 김영재 등이었다. 또한 인민위원회 간부진으로는 내무부장에 조형표(완도), 상공부장에 김계석, 보건부장에 박춘근이 있었다. 최초 도당 사무실은 광주법원 건물이었으나 그 후 전남여고 건물로 옮겼다가 다시 병무청 건물로 옮기게 되었다.

인민군 세상이 된 지 두 달이 조금 지난 9월 28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퇴각하자 전남도당은 또다시 비합법상태에 놓였다. 이때 김선우는 당 간부들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백야산으로의 후퇴를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입산한 후의 조직체계는 도당은 그대로 박영발이 위원장을 맡고, 유격대는 총사령관 김선우, 부사령관 오금일, 참모장 김병추, 그리고 그 밑에 1·5·7연대와 민청연대가 편성되었다. 이때를 기준으로 그 전에 입산한 구빨치와 그 후에 입산한 신빨치를 구분하는데, 대부분의 간부들은 구빨치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 유격대는 인민군이 후퇴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험준한 산악을 배경으로 이른바 ‘해방지구’를 형성하며 나름대로의 통치체계를 갖고 있었다. 심지어 이들 유격대는 1951년 4월 3일에는 전남의 심장부인 광주 시내까지 진출하여 토벌대를 습격하기도 했다. 즉 그때까지 토벌작전에 투입되었던 육군 11사단이 8사단으로 교체되면서 서석초등학교 오락회를 하고 있던 사이에 이들을 포위공격해 대단한 전과를 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한반도는 유격대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분단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그 속에서 빨치산의 운명도 결정되었다. 결국 1951년 11월에서 1952년 2월 사이에 비행기와 네이팜탄까지 동원한 수도군단의 대공세로 유격대는 큰 타격을 받았다. 당시 전남도당이 입은 상처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지리산으로 노약자나 부상자 등 2000명의 인원을 보내고도 1000여명이 되었던 인원이 이제 300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후 전남도당은 당세의 하락과 엄중한 감시라는 현실적인 조건 위에서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동부는 박영발이, 서부는 김선우가 책임을 맡는 체제였다. 그리고 1952년 5월 15일에는 전남도당 전투 병력을 제외한 모든 성원들은 하산해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명령의 독자성 여부는 현재 논란중인데, 전남도당에서는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1952년 4월 3일 새벽 2시 전남 경찰은 백야산을 기습 공격하는 작전을 벌여 전남 인민유격대 총사령관 김선우 등 46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발표가 오보임이 드러났다. 그 후 휴전회담 직후인 1954년 1월 노동당 전남도당 위원장 박영발이 뱀사골 비트에서 35연대 수색대에 포위되자 권총으로 자결했다. 그 후 김선우가 도당위원장을 승계하게 된다. 그러나 그 김선우마저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다. 1954년 4월 도당 조직부장이던 박춘석의 배신으로 그가 숨어 있던 광양 백운산 아지트가 토벌대에 포위된 것이다. 이때 그는 자신의 사상이 옳다는 신념아래 이른바 사상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수류탄으로 자폭하고 말았다. 이것이 남한 유격대 중 최강을 자랑하던 전남 인민유격대의 최후의 순간이었다. 물론 그 후에도 1954년 가을 40여 명의 잔류 병력으로 조직되어 보성, 겸백에서 전멸당한 산성부대(대장 강경구)가 있었고, 최후의 빨치산인 박갑출, 장삼래, 김병극 3명이 무등산에서 활동학도 하지만, 이것을 유격투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선우가 자폭했을 때, 그의 비트에서 많은 책이 나오자 토벌대 사령관까지도 적이지만 훌륭한 사람이라며 백운산 능선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한다. 1991년 겨울 그 무덤은 살아남은 그의 동료들과 후손들에 의해 그의 고향인 보성군 웅치면에 이장되었다. 그러나 그의 낮은 아직도 그의 동지들이 산화해 간 골짜기와 능선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보성군사편찬위원회, 『보성군사』, 보성군, 2014
-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보성의병사』, 보성군청, 2018
- 이종범 편, 『나는 호남인으로서이다』, 사회문화원, 2002
- 안종철·최정기·김준·정창우, 『근현대 형성과정의 재인식(1)』, 중원문화, 2010
- 안진오·오종일·최대우 외, 『호남의 유학자들』,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 전라남도, 『남도 이순신길 조선수군재건로 고증 및 기초조사보성군사』, 2013
-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보성문화원, 『보성 열선루와 이순신』, 엔터, 2005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 동학혁명·한말의병』, 2015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 민족독립운동』, 2015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 해방후 사회운동』, 2015
- 박성봉 편, 『박죽천연구논총』, 문강공 죽전 박광전선생 기념사업회·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04
- 이순신 지음·노승석 옮김, 『교감완역 난중일기』, 여해, 2019
-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기획, 『백범의 길\_ 조국의 산하를 건다 강원·충청·전라·경상편』, arte, 2018
- 한만수, 『태백산맥 문학기행, 해냄, 2003
- 김지현, 『소설 <태백산맥>의 공간과 장소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석사논문, 2016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뉴스레터, 『호남학산책』, 이종범·황광우 기사
-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신문기사



A misty mountain landscape with a path leading through a valley. The text is overlaid on the image.

기행紀行이란  
길 위에서 인간이  
문고<sup>人問</sup> 인간이  
듣고<sup>人聞</sup> 인간이 새기는  
무늬<sup>人文</sup>이다!